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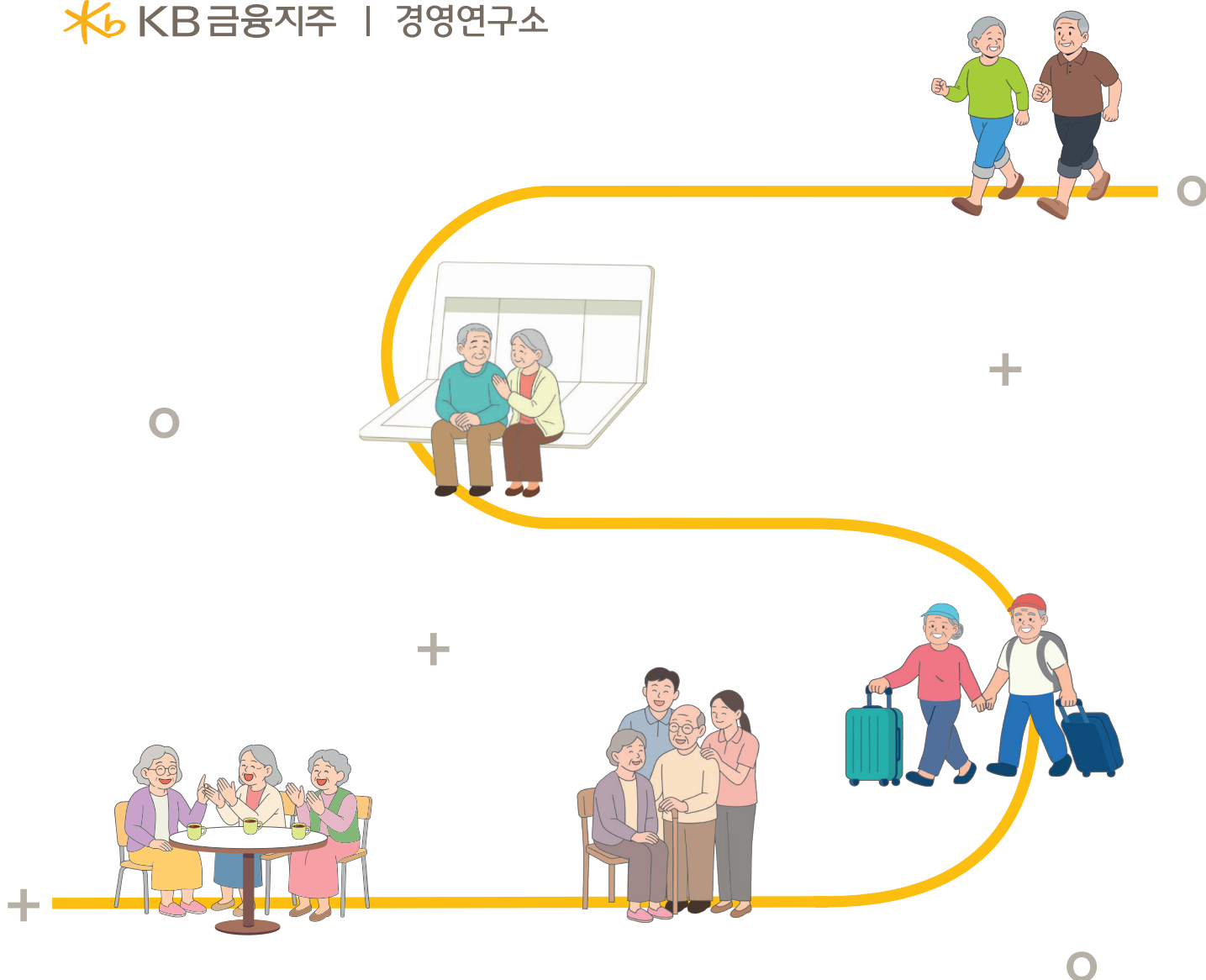
2025 KB골든라이프보고서

한국인의 노후준비와 집의 의미

202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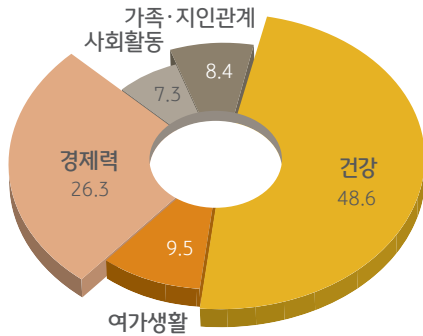
황원경 | 김남경 | 강운정

*b KB 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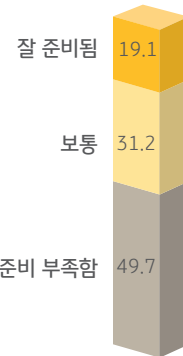
노후생활 행복 요소 압도적 1위는 '건강', 2위는 '경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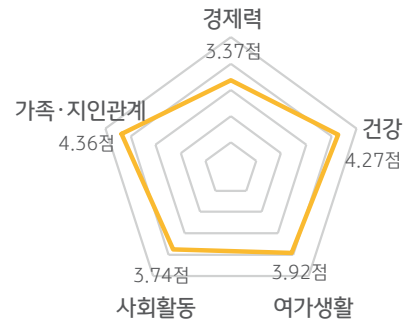
[단위: %]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응답자는 19.1%에 불과, 경제적 준비가 가장 미흡

● 전반적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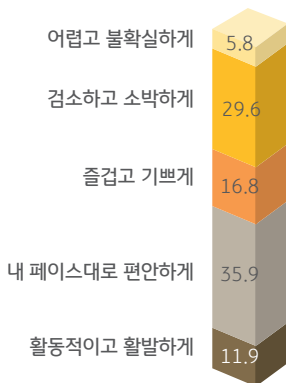
● 부문별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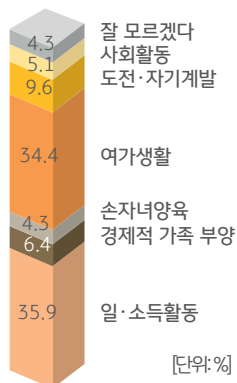
[단위: %점]

예상하는 노후 이미지는 '편안하고' '즐겁게', 노후생활은 '여가'와 '일'을 균형 있게

● 나의 노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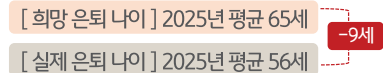
● 나의 노후생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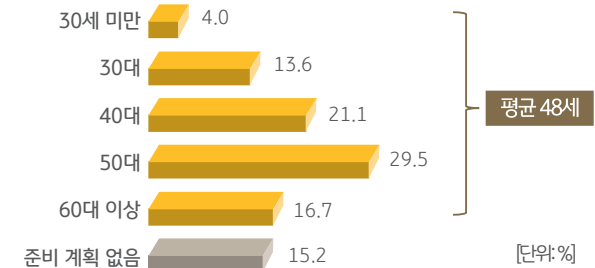
[단위: %]

'실제' 은퇴 시기는 '희망'보다 9년 빠르고, 48세가 돼서야 경제적 노후 준비를 시작

● 은퇴 나이



● 경제적 노후준비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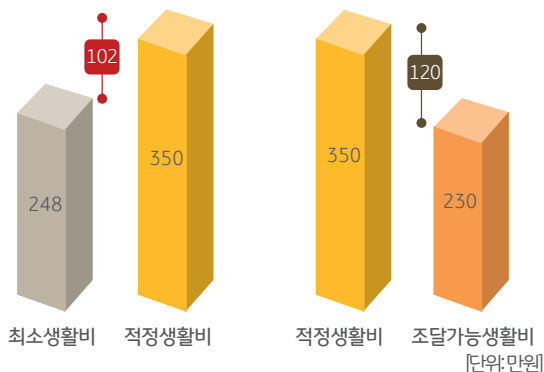


[단위: %]

노후의 적정생활비는 월 350만 원, 이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65.7%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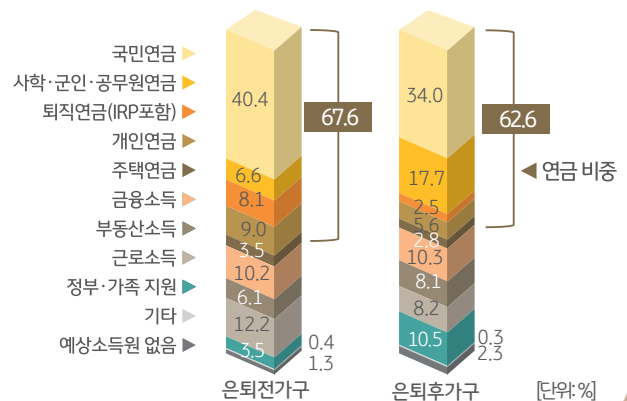
적정생활비 대비 최소생활비 비중
71.0%

적정생활비 대비 조달가능생활비 비중
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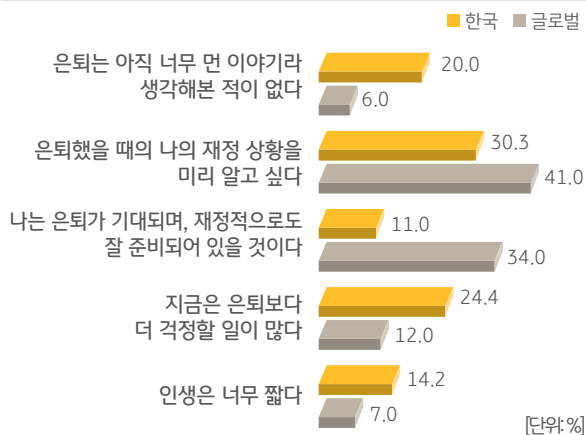


노후에 매월 조달 가능한 생활비 중 60% 이상을 각종 연금으로 마련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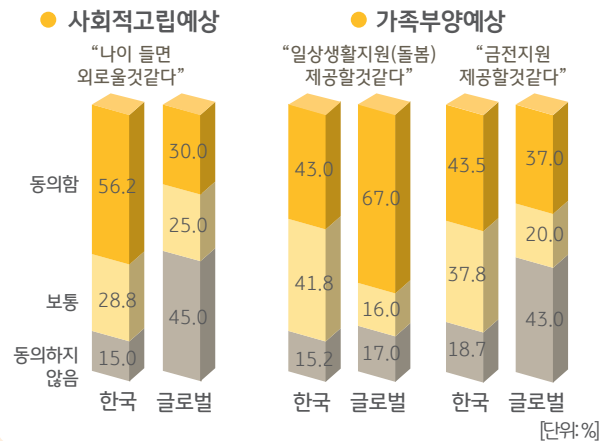
● 은퇴 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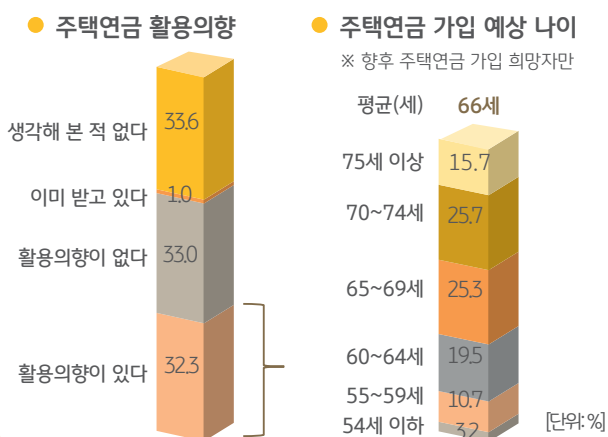
‘은퇴가 기대’되는 글로벌 vs. ‘은퇴는 아직 먼 얘기’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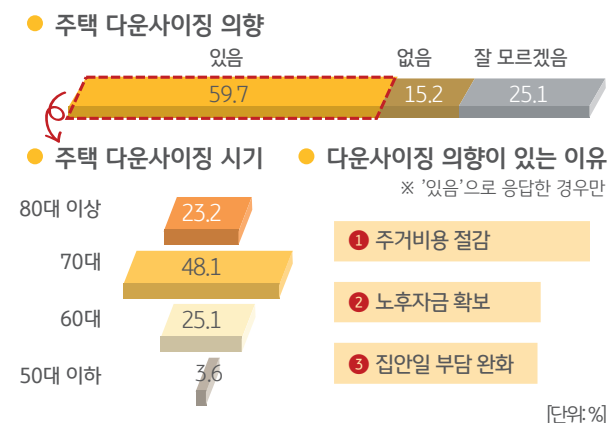
한국은 노후 사회적 고립 불안이 더 크고, 가족 부양 시 생활·금전 동시 지원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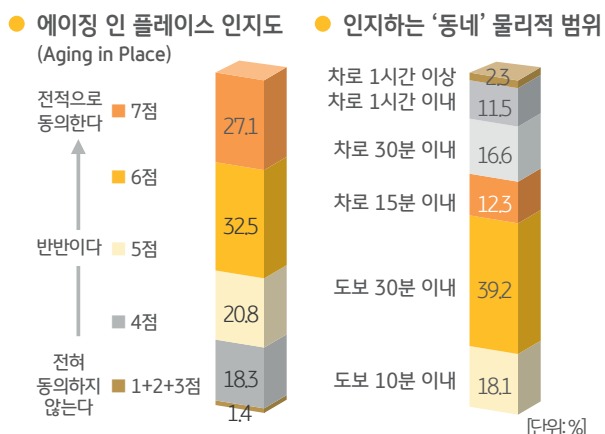
32.3%는 노후자금으로 ‘주택연금’ 활용 의향, 예상 가입 나이는 평균 66세



10명 중 6명은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 이중 48.1%는 ‘70대’ 실행을 계획



80.4%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동의, ‘동네’에 대한 물리적 범위는 ‘도보 30분 이내’



노후에 선호하는 동네 인프라 조건은 ‘의료시설’, ‘교통’, ‘공원·자연환경’, ‘쇼핑시설’



CONTENTS

	I. 노후생활 준비와 인식	07
	01 노후생활 준비 현주소	08
	02 노후 이미지와 롤모델	12
	03 노후생활 변화 방향	16
	Key Findings	20
	II.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21
	01 경제적 노후준비 시기	22
	02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24
	03 연금 보유 현황	28
	Key Findings	52
	III. [이슈1] 한국 VS. 글로벌 노후 인식	33
	01 나이 인식	34
	02 은퇴 인식	36
	03 노후 인식	38
	참고	44
	Key Findings	46

	IV. [이슈2] 노후자금 준비에서 부동산의 의미	47
	01 주택연금제도의 이해와 활용	48
	02 주택 다운사이징 활용	52
	참고	56
	Key Findings	58
	V. [이슈3] 노후 거주지 인식과 선택	59
	01 노후 돌봄 및 거주 관련 인식	60
	02 시니어전용주택의 선택 니즈	64
	참고	68
	Key Findings	72
	VI. [이슈4] 한국인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	73
	01 AIP 경향 진단	74
	02 AIP 지원 체계 조건	76
	03 AIP 첫걸음, 주택 개조 진단	78
	참고	80
	Key Findings	82
	[부록]	83
	01 연구 방법	84
	02 용어 정의	86
	03 참고 자료	88



노후생활 준비와 인식

01 | 노후생활 준비 현주소

02 | 노후 이미지와 롤모델

03 | 노후생활 변화 방향

Key Findings



‘인생 이모작’을 영어로 ‘앙코르 커리어(encore career)’라고 한다. 이는 청중이 좋아하는 가수가 다시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보고 싶어서 ‘앙코르’를 외치는 것처럼 인생 후반 새로운 커리어를 개척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미국의 시니어 비영리단체 ‘시빅 벤처스(Civic Ventures)’의 설립자 마크 프리드먼(Marc Freedman)이 2008년 처음 사용했다. 최근에는 ‘앙코르 커리어’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도전과 지속적 활동을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성취감과 행복을 얻는 황금기로 만드는 ‘앙코르 인생’의 개념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 같은 ‘앙코르 인생’에 대한 한국인의 준비와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노후 행복을 위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이어서 자신의 노후생활을 어떤 이미지로 그리고 이상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롤모델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은퇴 전후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은퇴 전후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01 노후생활 준비 현주소



노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과 '경제력'으로,
지난 조사 대비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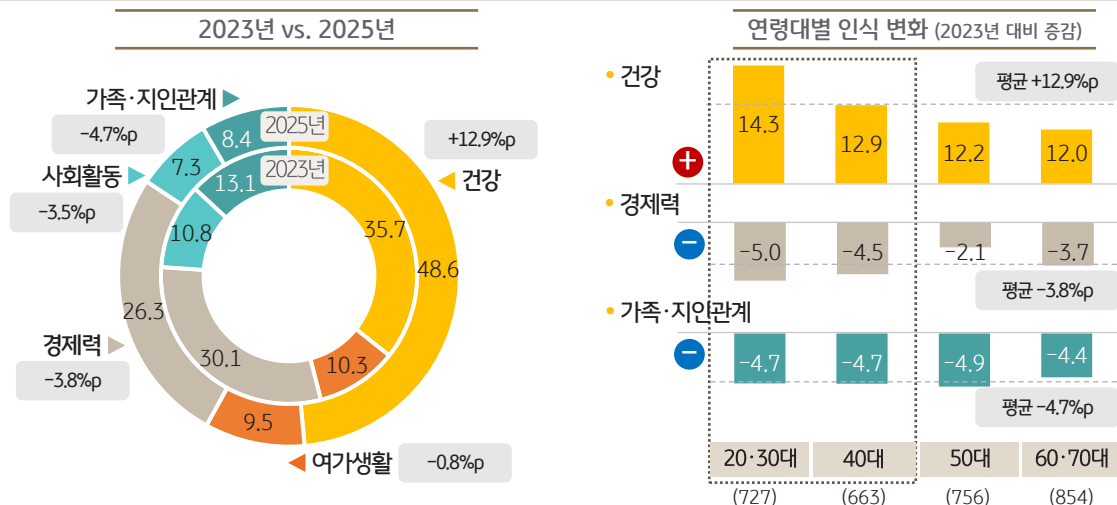
한국은 2024년 12월 23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기대수명 연장이라는 장수 혁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길어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노후 행복의 필수 요소'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8.6%)가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뒤이어 '경제력'(26.3%), '여가생활'(9.5%), '가족·지인 관계'(8.4%), '사회활동'(7.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건강'과 '경제력'이 노후 행복의 양대 기둥으로 꼽힌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는 '경제력'은 응답률이 소폭 감소한(-3.8%p) 반면 '건강'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12.9%p).

이 같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증가폭이 더 높았다(20·30대 +14.3%p, 40대 +12.9%p, 50대 +12.2%p, 60·70대 +12.0%p).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청년 세대 사이 '천천히 건강하게 늙기'를 의미하는 저속노화(Slow Aging) 트렌드가 확산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림 1-1 | 노후 행복의 핵심 요소

(단위: %, %p)



주) 2023년 n=3000, 2025년 n=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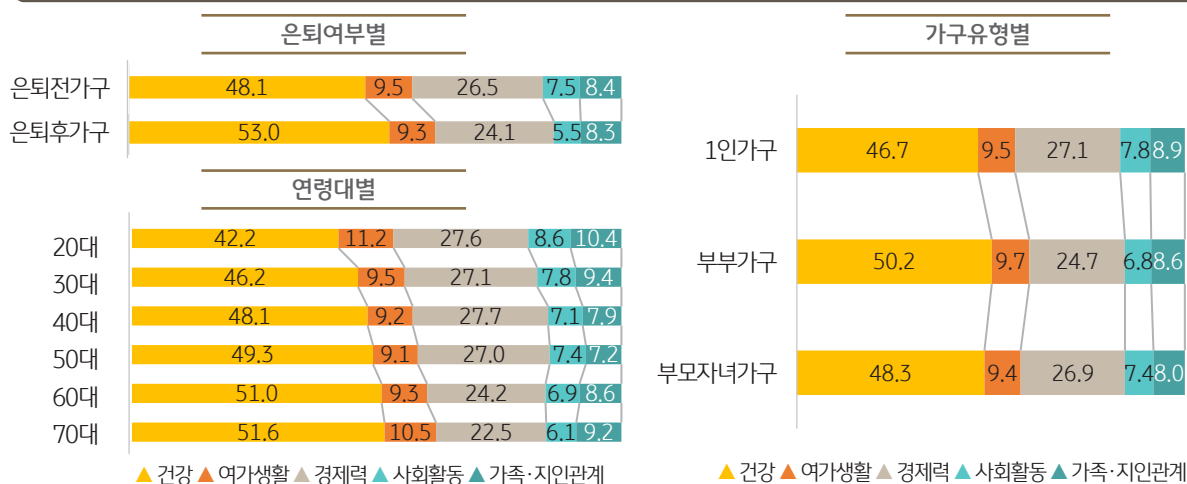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은 더, ‘경제력’은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

은퇴 여부에 따른 노후 행복 요소의 중요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은퇴전가구와 은퇴후가구를 비교해 보았다. 두 가구 간 노후 행복 요소의 순위 차이는 없는 가운데(‘건강’, ‘경제력’, ‘여가생활’, ‘가족·지인관계’, ‘사회활동’ 순),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은 응답률은 은퇴후가구(53.0%)가 은퇴전가구(48.1%)보다 높았다. 이같은 현상은 연령대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나, 은퇴자가 많은 고령층일수록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70대 51.6%, 60대 51.0%, 50대 49.3%, 40대 48.1%, 30대 46.2%, 20대 42.2%).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젊은 층 사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연령대별 응답률 차이가 좁혀졌으나(60대 이상과 30대 이하 응답률 차이 2023년 8.4%p vs. 2025년 6.1%p),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은 지속됐다. 60대와 70대의 경우 노후 행복 요소 2위인 ‘경제력’에 대한 응답률은 타 연령대 대비 낮은 반면(20대~50대 27.0~27.7% vs. 60대 24.2%, 70대 22.5%) ‘가족·지인관계’에 대해서는 50대를 저점으로 다시 높아지며(50대 7.2%, 60대 8.6%, 70대 9.2%) 사회적 관계를 점차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2023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부부가구(50.2%)가 부모자녀가구(48.3%) 및 1인가구(46.7%)와 비교해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부부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독립한 자녀에게 돌봄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력’에 대한 중요도는 1인가구(2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vs. 부모자녀가구 26.9%, 부부가구 24.7%), 이들이 노후생활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림 1-2 | 노후 행복 요소별 중요도 (2025년)

(단위: %)



주) 전체 2025년 n=3000, 은퇴여부별 은퇴전가구 n=2716, 은퇴후가구 n=284, 가구유형별 1인가구 n=712, 부부가구 n=831, 부모자녀가구 n=1417



77.8%가 노후준비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 가구는 19.1%에 그쳤다

노후 행복 요소에 대한 인식 조사에 이어 실제 노후준비 정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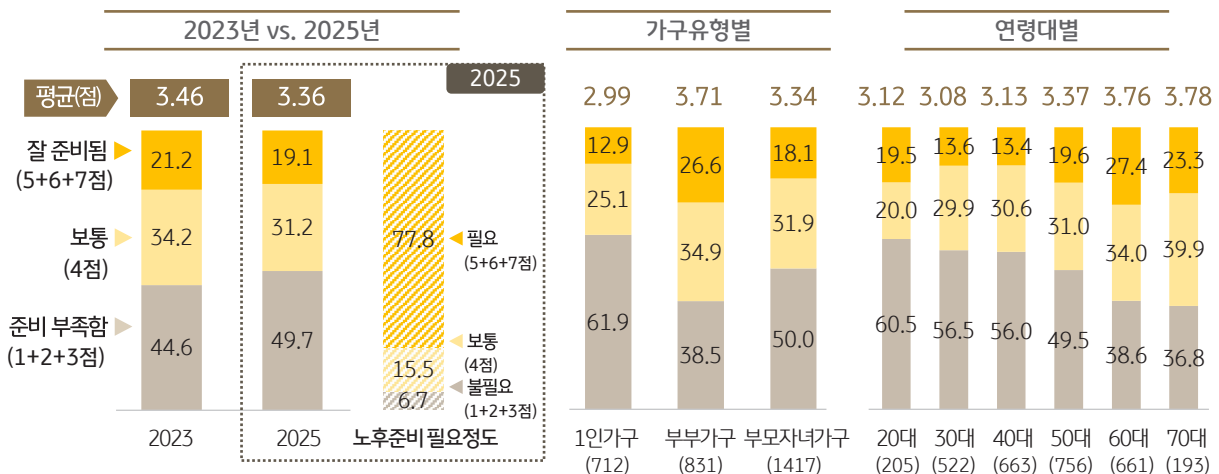
먼저 '건강', '경제력', '여가생활'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77.8%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실제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응답률은 19.1%에 불과해 지난 조사(21.2%)와 유사하게 대다수(80.9%)가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가구(26.6%)가 동거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이 있는 부모자녀가구(18.1%) 및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1인가구(12.9%)에 비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1인가구(61.9%)가 부모자녀가구(50.0%) 및 부부가구(38.5%)에 비해 높아, 1인가구가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27.4%), 가장 낮은 연령대는 40대(13.4%)로 두 연령대 간 14%p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이는 생애주기상 일반적으로 40대가 자녀 교육비 등 양육 부담이 커 노후준비 여력이 부족한 반면, 은퇴기에 접어든 60대의 경우 현실에 비추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후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1-3 | 전반적인 노후준비 정도

(단위: %점)



주1) 2023년 n=3000, 2025년 n=3000

주2) 1점(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7점(잘 준비되어 있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노후 행복 요소 2위 ‘경제력’의 준비 정도는 5위, 21.1%만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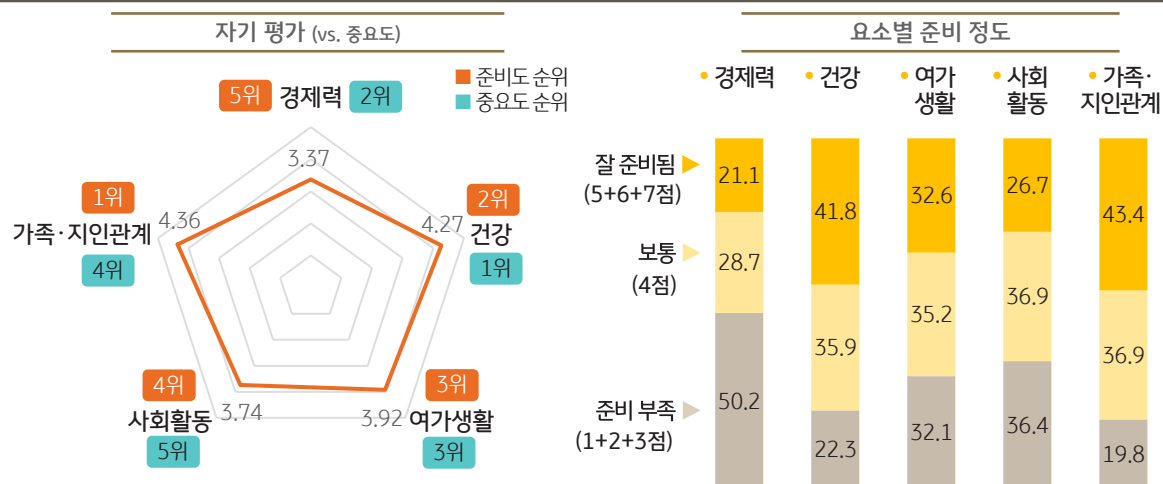
앞서 노후 행복 요소로 조사된 ‘건강’, ‘경제력’, ‘여가생활’, ‘가족·지인 관계’, ‘사회활동’ 각각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요소별 준비 정도를 점수로 매길 때 7점 만점에서 ‘가족·지인 관계’가 4.36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건강’(4.27점), ‘여가생활’(3.92점), ‘사회활동’(3.74점), ‘경제력’(3.37점)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노후준비 차원에서 가족·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률(43.4%)이 가장 높게 나타나 4위를 차지한 노후 행복 요소 중요도와 대조를 이루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에 주력한다는 응답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1위를 차지한 노후 행복 요소 중요도 순위와 대체로 일치했다. 노후 행복 요소 중요도 2위로 꼽힌 ‘경제력’의 경우 응답자의 5분의 1(21.1%)만이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낮은 준비 정도를 보였다. 이는 ‘경제력’이 노후 행복의 중요도와는 별개로 노후준비를 위한 현실적 여건 마련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취미, 문화생활 등의 여가생활을 통해 노후를 준비한다는 응답률은 32.6%로 3위를 차지해 노후 행복 요소 중요도 순위와 동일했다. 모임 등 정기적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26.7%를 기록했다(준비 정도 4위, 중요도 5위).

그림 1-4 | 노후 행복의 필수 요소별 준비 정도

(단위:점,%)



주1) 현역·반퇴가구만 응답, 노후 생활 요소별 각각 n=2716

주2) 1점(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7점(잘 준비되어 있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02 노후 이미지와 롤모델



나의 노후 이미지는 ‘편안하고’ ‘소박하면서도’ ‘즐겁게’, 지난 조사 대비 긍정적 인식이 소폭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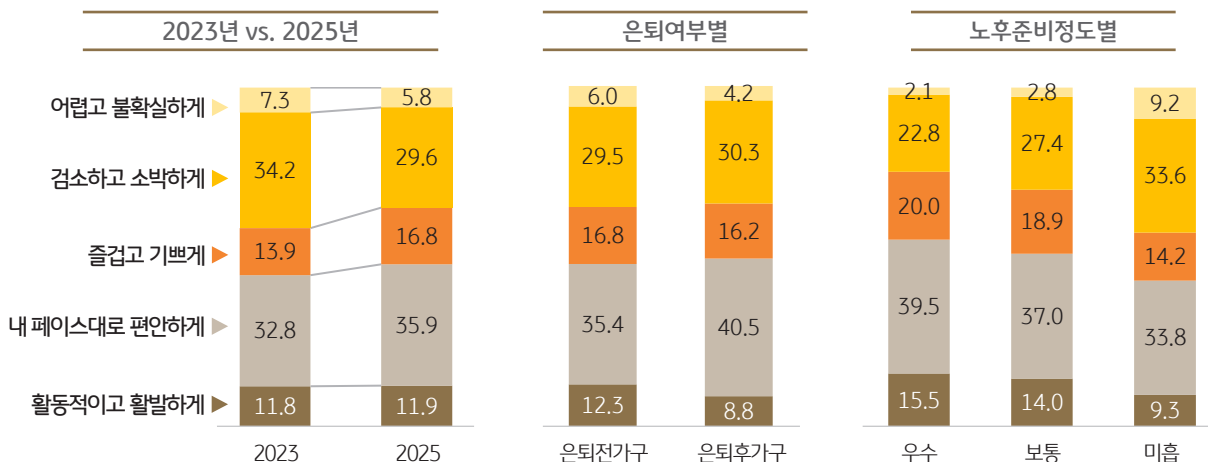
지금까지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자신의 노후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 이상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롤모델이 있는지도 질문해 보았다.

자신의 노후생활이 어떤 이미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조사 대상자 10명 중 4명은 ‘내 페이스대로 편안하게’(35.9%) 노후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고, ‘검소하고 소박하게’(29.6%), ‘즐겁고 기쁘게’(16.8%), ‘활동적이고 활발하게’(11.9%)가 그 뒤를 이었다. 연상되는 노후 이미지 중 ‘내 페이스대로 편안하게’와 ‘즐겁고 기쁘게’ 응답률은 지난 조사 대비 각각 3.1%p, 2.9%p 증가한 반면, ‘검소하고 소박하게’와 ‘어렵고 불확실하게’ 응답률은 각각 4.6%p, 1.5%p 감소해 노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3년 이후 코로나 19 여파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후 이미지 1위 ‘내 페이스대로 편안하게’ 응답률은 은퇴후가구(40.5%)에서 은퇴전가구(35.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 정도가 ‘우수’할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준비 정도 ‘우수’ 39.5%, ‘보통’ 37.0%, ‘미흡’ 33.8%).

그림 1-5 | 예상하는 나의 노후 이미지

(단위: %)



주) 2023년 n=3000, 2025년 n=3000, 은퇴여부별 은퇴전가구 n=2716, 은퇴후가구 n=284, 인식하는 노후준비 정도별 우수 n=574, 보통 n=936, 미흡 n=1490



10명 중 8명은 일과 여가생활, 자기계발을 통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후생활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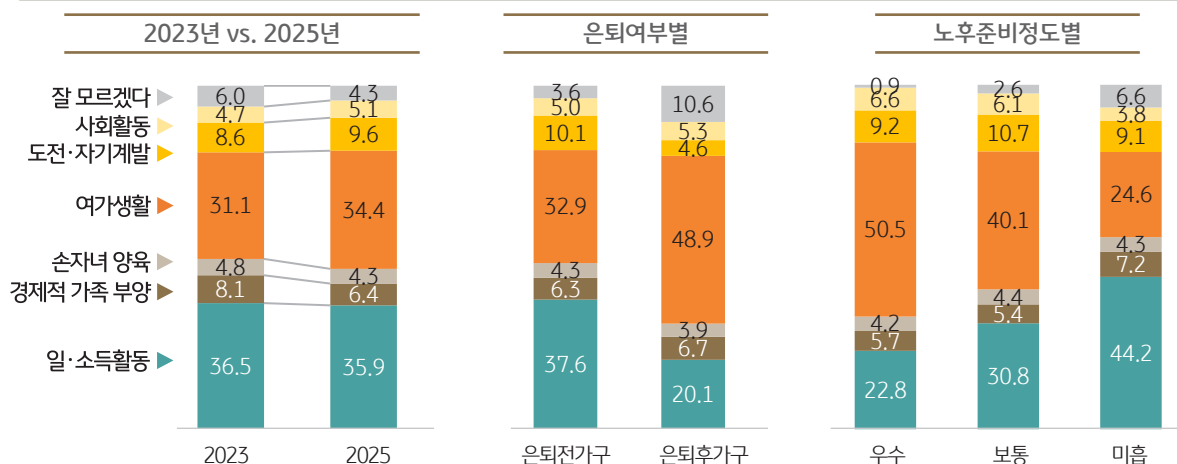
이처럼 대다수의 조사 대상자(94.2%)가 노후에 대해 ‘편안하고’ ‘소박하면서도’ ‘즐겁고’ ‘활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예상하는 노후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도 알아보았다.

예상하는 노후생활 모습은 지난 조사와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꾸준히 한다는 ‘일·소득활동’(35.9%, -0.6%p)과 자유롭게 취미나 여행을 즐긴다는 ‘여가생활’(34.4%, +3.3%p)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난 조사 대비 응답률이 상승한 ‘여가생활’의 경우 앞서 ‘건강’과 ‘경제력’에 이어 노후 행복의 필수 요소 3위로 꼽혀 그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자기계발을 한다는 ‘도전·자기계발’(9.6%, +1.0%p)이 3위를 차지해 10명 중 8명(79.9%)은 일과 여가생활, 자기계발을 통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후생활을 꿈꿨다.

은퇴 여부에 따른 노후생활 예상 모습을 살펴보면, 은퇴전가구는 ‘일·소득활동’(37.6%)과 ‘여가생활’(32.9%)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며 일과 여가의 균형을 예상하는 반면, 은퇴후가구는 ‘여가생활’(48.9%)에 대한 기대감이 ‘일·소득활동’(20.1%) 보다 월등히 높았다. 노후준비 정도가 ‘우수’하다고 생각할수록 활발한 ‘여가생활’을 예상했고(준비 정도 ‘우수’ 50.5%, ‘보통’ 40.1%, ‘미흡’ 24.6%), 반대로 노후준비 정도가 ‘미흡’하다고 인식할수록 ‘일·소득활동’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노후준비 정도 ‘우수’ 22.8%, ‘보통’ 30.8%, ‘미흡’ 44.2%).

그림 1-6 | 예상하는 나의 노후생활 모습

(단위: %)



주) 2023년 n=3000, 2025년 n=3000, 은퇴여부별 은퇴전가구 n=2716, 은퇴후가구 n=284, 인식하는 노후준비 정도별 우수 n=574, 보통 n=936, 미흡 n=1490



노후생활 롤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은퇴전가구가 은퇴후가구보다 더 크게 공감했다

미국 정신의학저널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기고한 글에서 브루스 로젠스타인(Bruce Rosenstein)은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노후의 롤모델로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를 꼽으며 그의 사전적 노후 설계와 준비, 고령에도 지속된 활동성 등을 소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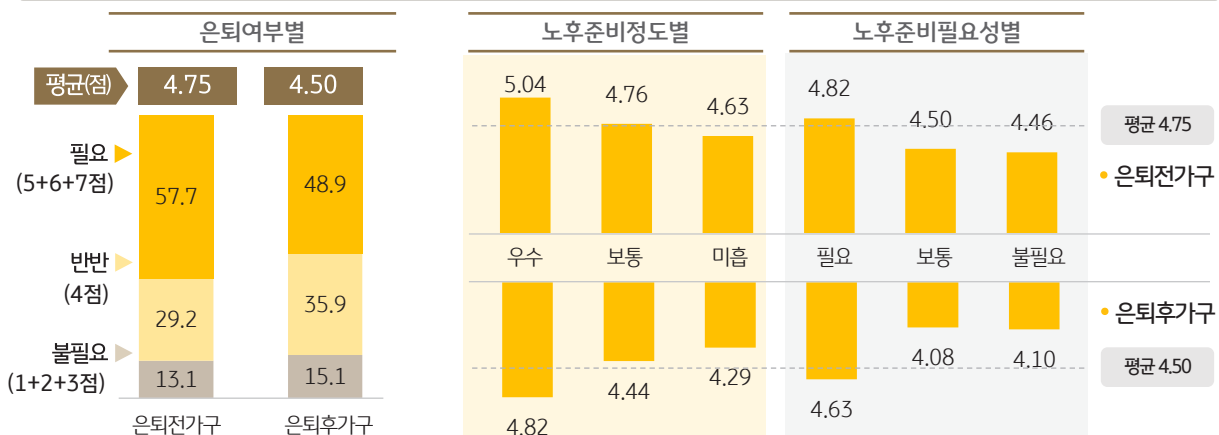
이처럼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때 본보기가 되거나 참고할 만한 가이드나 롤모델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아보았다. 이상적인 노후생활 롤모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은퇴전가구(57.7%)가 은퇴후가구(48.9%)보다 더 크게 공감했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반반이다’이라는 의견은 은퇴후가구(35.9%)가 은퇴전가구(29.2%)보다 많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은퇴전가구(13.1%)와 은퇴후가구(15.1%) 모두 많지 않았다.

노후준비 정도와 필요성별로 살펴보면, 노후준비가 ‘우수’하고 관련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의 롤모델을 원했다. 롤모델 필요성을 7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길 때 은퇴전가구는 평균 4.75점, 은퇴후가구는 평균 4.50점을 기록했고, 노후준비가 ‘우수’하고 관련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일수록 롤모델 필요성 점수가 높았다(은퇴전가구 준비 정도 5.04점, 노후준비 필요성 4.82점, 은퇴후가구 준비 정도 4.76점, 노후준비 필요성 4.63점).

종합적으로 볼 때, 은퇴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보내기 위해 벤치마킹 대상을 찾는 것과 배움을 통해 노후준비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 사이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 | 노후생활 롤모델 필요성

(단위: %점)



주1) 은퇴여부별 은퇴전가구 n=2716, 은퇴후가구 n=284 주2)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7점(매우 필요하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주3) 인식하는 노후준비 정도별 은퇴전가구 우수 n=490, 보통 n=842, 미흡 n=1384, 은퇴후가구 우수 n=84, 보통 n=94, 미흡 n=106,

인식하는 노후준비 필요도별 은퇴전가구 필요 n=2121, 보통 n=414, 불필요 n=181, 은퇴후가구 필요 n=214, 보통 n=50, 불필요 n=20



10명 중 6명은 노후생활 롤모델이 있었고, ‘부모’와 ‘지인’ 등 주변인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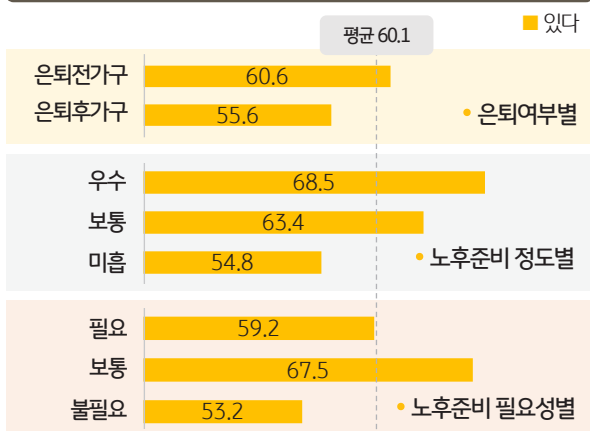
은퇴전가구의 57.7%, 은퇴후가구의 48.9%가 노후생활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롤모델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이보다 높은 60.6%, 55.6%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은 노후에 본받고 싶은 대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후준비 정도가 ‘우수’한 가구는 68.5%, ‘보통’ 수준의 가구는 63.4%가 노후생활 롤모델이 있다고 답해, 적정 수준 이상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롤모델 선정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학저널: 시리즈 B(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에 게재된 논문 “당신의 성공적인 노후 롤모델은 누구인가?(Who Is Your Successful Aging Role Model?)”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18~99세 중 85%가 건강·활동성·사회적 자원 등을 이유로 부모나 조부모를 노후 롤모델로 지목했고 이러한 ‘가족’ 롤모델을 가진 사람들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내에서도 많은 가구가 노후 롤모델로 ‘지인’과 함께 ‘부모’를 꼽았고(2023년 2위), 다음으로 ‘위인’, ‘인플루언서’, ‘공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여부별로 살펴보면 은퇴전가구는 ‘부모’, ‘지인’, ‘인플루언서’, ‘위인’, ‘공인’ 순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은 은퇴후가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 ‘부모’의 순위가 3위로 하락하고 배우자가 순위권에 포함됐다. 은퇴후가구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비율 차이를 보여 2위 ‘위인’과 5위 ‘배우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롤모델 선정 이유로는 ‘부모’와 ‘배우자’는 ‘배우자와 가정에 충실하는 모습이 좋아서’, ‘지인’은 ‘건강한 노후를 즐기는 모습이어서’, ‘인플루언서’와 ‘공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내는 것 같아서’, ‘위인’은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 1-8 | 노후생활 롤모델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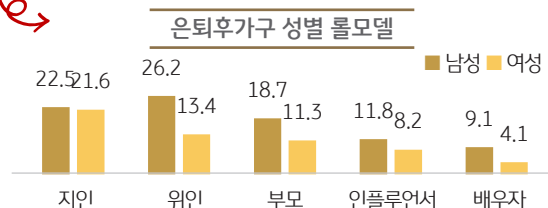


주) 은퇴여부별 은퇴전가구 n=2716, 은퇴후가구 n=284, 인식하는 노후준비 정도별 우수 n=574, 보통 n=936, 미흡 n=1490, 인식하는 노후준비 필요도별 필요 n=2335, 보통 n=464, 불필요 n=201

그림 1-9 | 노후생활 롤모델 Top5

(복수응답, 단위: %)

순위	1	2	3	4	5
2023 전체	지인	부모	위인	인플루언서	공인
2025 전체	지인	부모	-	위인	인플루언서
은퇴전	부모	지인	인플루언서	위인	공인
은퇴후	지인	위인	부모	인플루언서	배우자



주) 롤모델 보유자 한정

03 노후생활 변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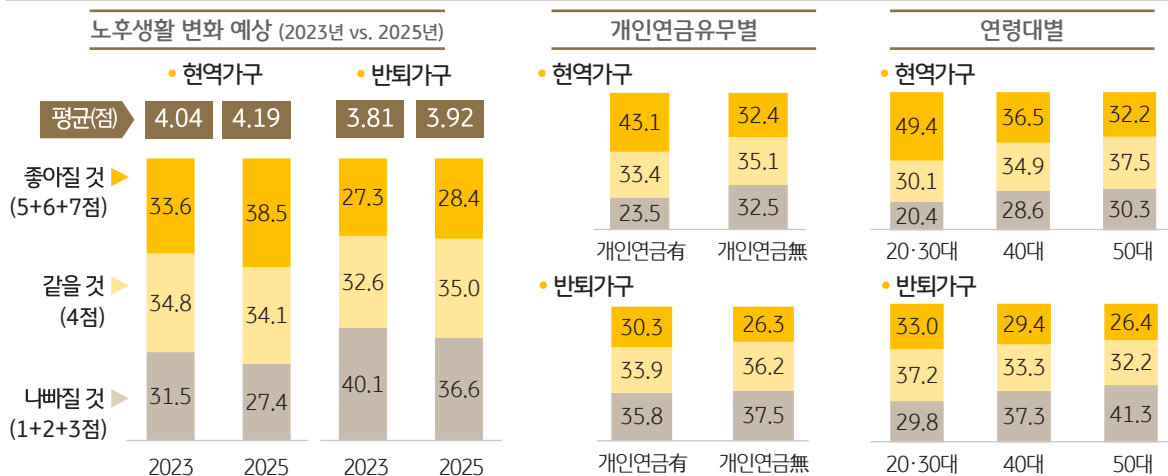
은퇴전가구의 노후생활 기대감은 2년 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노후준비 정도, 노후생활 이미지 등을 토대로 노후생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종합적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은퇴후가구의 의견을 청취하여 노후생활의 현실을 조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은퇴전가구에는 경제적 측면이나 인간관계·직장생활·여가생활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와 비교해 은퇴 후 노후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은퇴후가구에는 노후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으며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했다.

은퇴전가구의 경우 가구 구성원의 근무 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를 감안해 현역가구와 반퇴가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은퇴 후 노후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현역가구(38.5%, +4.9%p)와 반퇴가구(28.4%, +1.1%p) 모두 지난 2023년 대비 높아져 앞서 살펴본 노후 이미지의 긍정적 인식 증가와 맥을 같이했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 현역가구의 경우 반퇴가구와 비교해 노후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10.1%p 높았고,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은 9.2%p 낮았다. 현역가구, 반퇴가구 모두 개인연금을 보유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대감이 컸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노후생활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강했다.

그림 1-10 | 은퇴전가구가 예상하는 노후생활 변화

(단위: % 점)



주1) 가구 구성원 근무유형별 2023년 현역가구 n=2013, 반퇴가구 n=743, 2025년 현역가구 n=1924, 반퇴가구 n=792

주2) 1점(매우 나빠질 것이다)~7점(매우 좋아질 것이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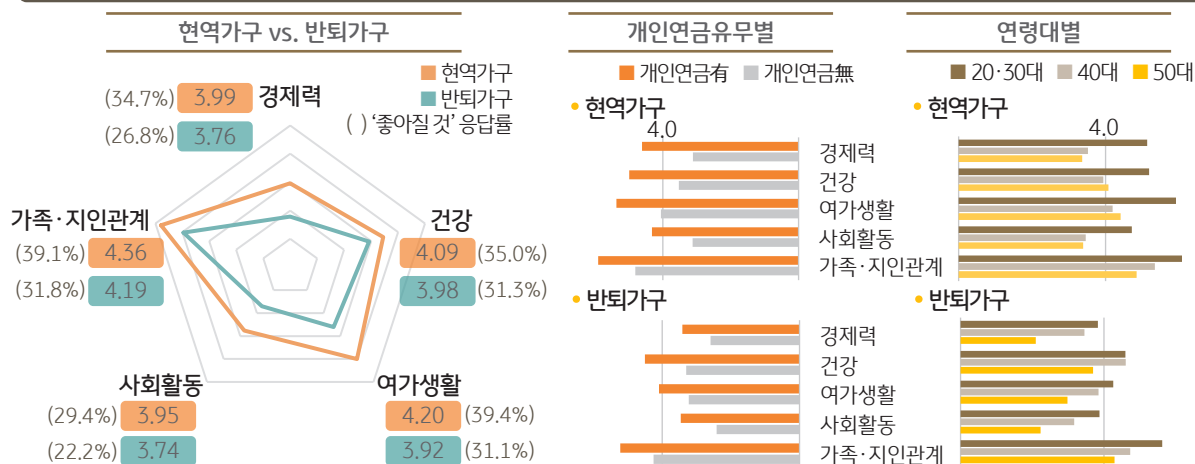
은퇴전가구는 ‘가족·지인 관계’와 ‘여가생활’에서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했다

다음으로 은퇴전가구가 전망하는 노후생활 변화 방향을 노후 행복 요소별로 살펴보았다. 앞서 종합적인 노후생활 전망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모든 요소에서 현역가구가 반퇴가구보다 노후생활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노후생활 변화 방향에 대한 인식을 7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길 때 ‘가족·지인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높았고(현역가구 4.36점, 반퇴가구 4.19점), 다음으로 ‘여가생활’(현역가구 4.20점, 반퇴가구 3.92점), ‘건강’(현역가구 4.09점, 반퇴가구 3.98점), ‘경제력’(현역가구 3.99점, 반퇴가구 3.76점), ‘사회활동’(현역가구 3.95점, 반퇴가구 3.74점)의 순이었다. 노후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만 놓고 보면, 현역가구는 ‘가족·지인 관계’(39.1%)와 ‘여가생활’(39.4%)에서, 반퇴가구는 ‘가족·지인 관계’(31.8%)와 ‘여가생활’(31.1%), ‘건강’(31.3%) 부문에서 종합적인 노후생활 기대감(현역가구 38.5%, 반퇴가구 28.4%)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긍정적인 전망을 드러냈다.

노후생활 변화 전망은 개인연금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현역가구와 반퇴가구 모두 개인연금을 보유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후 행복 요소 모두에 대해 낙관적으로 내다보았다. 연령대별로도 종합적인 노후생활 전망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력’, ‘건강’, ‘여가생활’, ‘사회활동’, ‘가족·지인 관계’ 모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림 1-11 | 은퇴전가구의 노후생활 부문별 변화 전망

(단위: % 점)



주1) 가구 구성원 근무유형별 2025년 현역가구 n=1924, 반퇴가구 n=792

주2) 1점(매우 나빠질 것이다)~7점(매우 좋아질 것이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은퇴후가구의 3분의 1은 은퇴 후 생활이 은퇴 전 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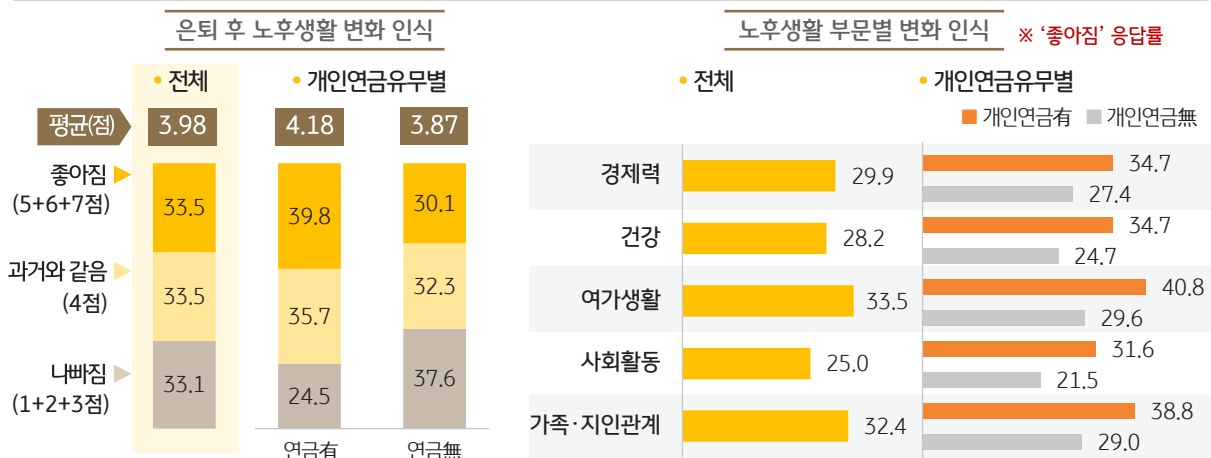
실제로 은퇴를 한 가구를 대상으로 과거에 비해 현재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앞서 현역가구의 38.5%, 반퇴가구의 28.4%가 은퇴 후 노후생활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가운데, 이와 유사한 비율인 은퇴후가구의 33.5%가 실제로 ‘좋아졌다’고 답했다. ‘과거와 같다’(33.5%)와 ‘나빠졌다’(33.1%)는 의견 역시 ‘좋아졌다’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개인연금 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의견 차이가 뚜렷해,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 간 ‘좋아졌다’는 응답률의 차이가 9.7%p에 달했다. 개인연금 보유 가구의 경우 ‘좋아졌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좋아졌다’ 39.8% vs. ‘나빠졌다’ 24.5%), 미보유 가구에서는 ‘나빠졌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나빠졌다’ 37.6% vs. ‘좋아졌다’ 30.1%).

노후 행복의 필요 요소별로 살펴보면, 은퇴후가구는 ‘여가생활’(33.5%)이 가장 많이 ‘좋아졌다’고 답했으며, ‘가족·지인 관계’(32.4%), ‘경제력’(29.9%), ‘건강’(28.2%), ‘사회활동’(25.0%)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은퇴전가구의 전망과 비교해(‘가족·지인 관계’, ‘여가생활’, ‘건강’, ‘경제력’, ‘사회활동’ 순으로 좋아질 것이라 기대) 기대감 부문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한 ‘여가생활’과 ‘경제력’이 은퇴후가구의 현재 생활 만족도에서는 한 단계씩 순위가 높아진 반면 1위와 3위를 기록한 ‘가족·지인 관계’와 ‘건강’은 한 단계씩 순위가 낮아졌다.

개인연금 보유 여부는 비단 ‘경제력’(개인연금유무별 ‘좋아졌다’ 차이 7.3%p) 뿐만 아니라 ‘건강’(10.0%p), ‘여가생활’(11.2%p), ‘사회활동’(10.1%p), ‘가족·지인관계’(9.8%p)의 모든 요소에 대한 변화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1-12 | 은퇴후가구가 인식하는 노후생활 변화

(단위: %점)



주1) 가구 구성원 근무유형별 2025년 은퇴가구 n=284

주2) 1점(과거보다 매우 나빠졌다)~7점(과거보다 매우 좋아졌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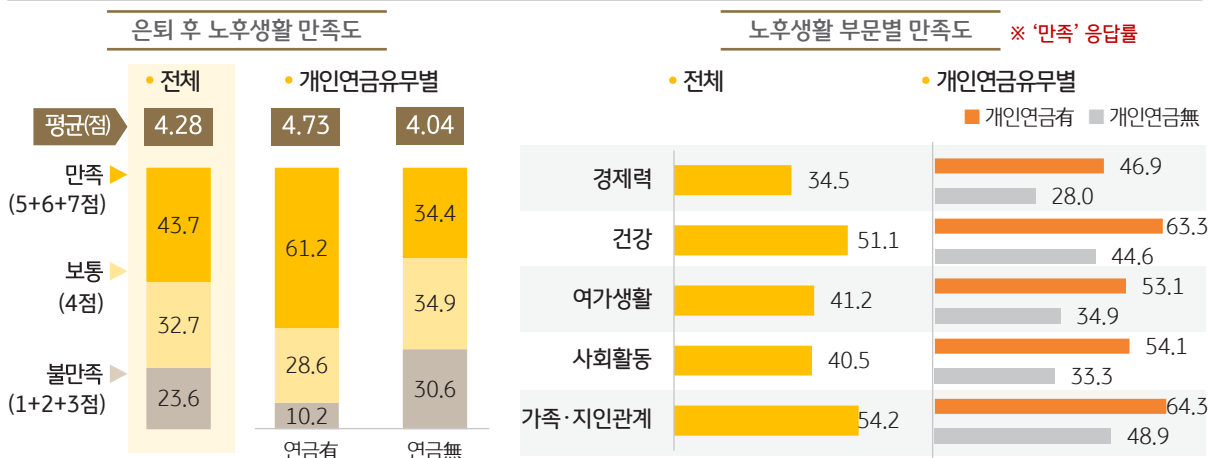
은퇴후가구의 43.7%가 현재 생활에 만족했고, 개인연금 보유 가구가 미보유 가구보다 만족도가 두 배 높았다

이번에는 은퇴후가구의 현재 생활 만족도를 파악해 이들이 생각하는 노후 현실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앞서 은퇴후가구의 33.5%가 은퇴 후 노후생활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로 은퇴 후 노후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보다 많은 43.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뒤이어 '보통'이라는 의견이 32.7%,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23.6%를 기록해 은퇴후가구의 현재 생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개인연금 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보유 가구(61.2%)가 미보유 가구(34.4%)보다 만족도가 두 배가량 높았다. 현재 생활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률은 개인연금 보유 가구(10.2%)가 미보유 가구(30.6%)의 3분의 1에 그쳐, 개인연금 보유 여부와 노후생활 만족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후 행복 요소별로는 '가족·지인 관계'(54.2%)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51.1%), '여가생활'(41.2%), '사회활동'(40.5%), '경제력'(34.5%) 순이었다. 개인연금 보유 여부는 앞서 살펴본 현재 생활에 대한 변화 인식 및 종합적인 만족도와 동일하게 모든 노후 행복 요소의 만족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연금 유무별 '만족한다' 차이, '경제력' 18.9%p, '건강' 18.7%p, '여가생활' 18.2%p, '사회활동' 20.8%p, '가족·지인 관계' 15.4%p).

그림 1-13 | 은퇴후가구의 노후생활 만족도

(단위: % 점)



주1) 가구 구성원 근무유형별 2025년 은퇴가구 n=284

주2) 1점(매우 불만족한다)~7점(매우 만족한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Key Findings

노후 행복을 위한 중요 요소로 '건강'과 '경제력'을 꼽으나 경제적 준비는 미흡한 편,
다만 지난 조사 대비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긍정적 인식은 소폭 높아졌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난 조사 대비 크게 높아졌다

- ☞ 노후 행복의 필수 요소 1위는 '건강'(48.6%), 뒤이어 '경제력'(26.3%), '여가생활'(9.5%), '가족·지인관계'(8.4%), '사회활동'(7.3%) 순. 2023년 대비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은 응답률이 큰 폭으로 증가(+12.9%p)
- ☞ 조사 대상자의 77.8%가 노후준비 필요성에 공감하나,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 가구는 19.1%에 그침. 노후 행복 요소별 노후준비 점수(7점 만점)는 '가족·지인관계'(4.36점), '건강'(4.27점), '여가생활'(3.92점), '사회활동'(3.74점), '경제력'(3.37점) 순으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가장 미흡한 수준



노후 이미지는 '편안하고' '소박하며' '즐겁게', 2023년 대비 긍정적 인식이 소폭 높아졌다

- ☞ 예상하는 나의 노후 이미지는 '내 페이스대로 편안하게'(35.9%, 2023년 대비 +3.1%p), '검소하고 소박하게'(29.6%, -4.6%p), '즐겁고 기쁘게'(16.8%, +2.9%p), '활동적이고 활발하게'(11.9%, +0.1%p), '어렵고 불확실하게'(5.8%, -1.5%p) 순으로 2023년 대비 긍정적 인식 소폭 높아짐
- ☞ 10명 중 6명(은퇴전가구의 60.6%, 은퇴후가구의 55.6%)은 노후생활 롤모델이 있고, '부모'와 '지인' 등 주변인이 많음



은퇴전가구는 2023년 대비 노후생활 기대감이 소폭 상승했고,

은퇴후가구의 현재 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 ☞ 은퇴전가구의 은퇴 후 노후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현역가구(38.5%, +4.9%p)와 반퇴가구(28.4%, +1.1%p) 모두 2023년 대비 소폭 증가
- ☞ 실제로 은퇴 후 노후생활이 '좋아졌다'고 답한 은퇴후가구는 33.5%로 은퇴전가구의 기대감과 유사한 수준
- ☞ 은퇴 후 노후생활에 '만족한다'는 은퇴후가구는 이보다 높은 43.7%로('보통' 32.7%, '불만족스럽다' 23.6%)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 만족도가 높음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48.6%)과 '경제력'(26.3%)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2023년 대비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12.9%p). 노후준비 필요성에는 조사 대상자의 77.8%가 공감하나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19.1%에 그쳐, 노후준비를 둘러싼 이상과 현실 사이 큰 격차는 여전했다.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예상하는 노후 이미지와 노후생활 모습은 과거 대비 긍정적 인식이 소폭 높아졌고, 같은 맥락에서 은퇴전가구의 노후생활 기대감 역시 현역가구(38.5%, +4.9%p)와 반퇴가구(28.4%, +1.1%p) 모두 소폭 상승했다. 은퇴후가구 역시 33.5%는 과거 대비 현재 생활이 '좋아졌다'고 생각했고, 이보다 많은 43.7%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II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01 | 경제적 노후준비 시기

02 |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03 | 연금 보유 현황

Key Findings



앞서 노후 행복 요소 중요도 2위의 ‘경제력’은 준비 정도 및 은퇴후가구의 생활 만족도에서 최하위에 그쳐, 경제적 노후준비가 중요하다는 인식과는 별개로 여건 마련이 쉽지 않은 한국 가구의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노후준비를 돕는 많은 금융 가이드는 일찍부터 인생 2막을 위한 재정 설계를 요구한다. 대표적으로 HSBC의 ‘은퇴 설계 체크리스트’는 60대 이후 인생 최고의 삶을 위해 20대부터 연령대별로 체계적으로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HSBC의 연령대별 ‘은퇴 설계 체크리스트’: ‘20대(현명한 스타터의 10년: 지출을 조절하고 가능하면 저축하라)’, ‘30대(진지한 저축의 10년: 현금을 좀 모아야 할 때)’, ‘40대(강자들의 10년: 저축 계획에 로켓연료를 추가하라)’, ‘50대(금융 중심의 10년: 목표를 놓치지 마라)’, ‘60대(생생한 삶의 10년: 미래를 기대하라)’]

본 장에서는 은퇴 연령과 노후준비 시작 시기에 대한 견해를 시작으로, 예상하는 노후생활비 규모와 조달 계획, 노후생활비 마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금과 노후소득 안정성을 보완해주는 개인연금 보유 현황까지, 노후를 위한 한국 가구의 경제적 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보고자 한다.

01 경제적 노후준비 시기



65세 은퇴를 희망하나, 실제 은퇴 나이는 이보다 9년 빠른 56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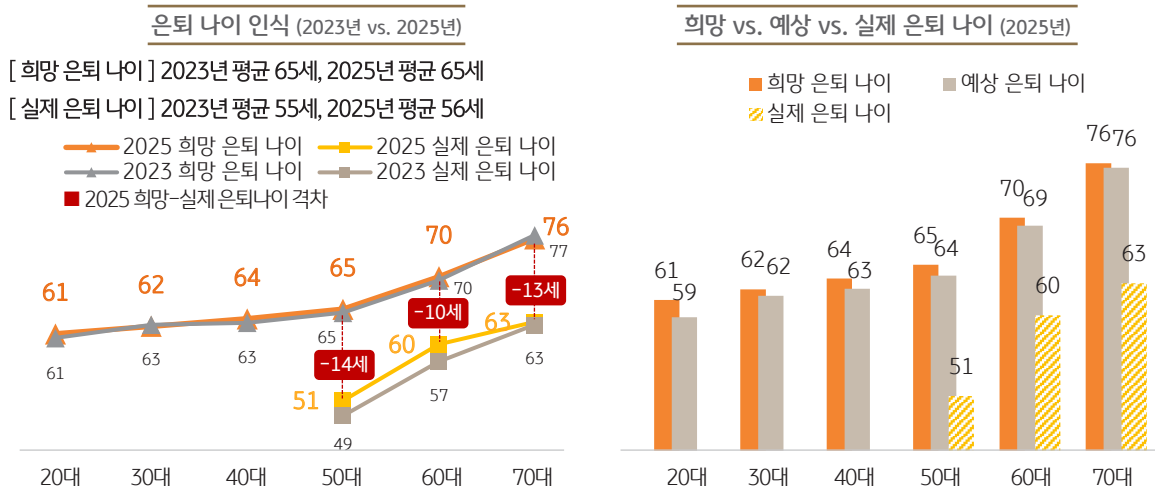
100세 시대를 맞아 길어진 노후는 현실로 다가왔다. 은퇴 후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가운데, 은퇴 연령에 대한 이상과 현실을 조명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은퇴전가구에는 ‘희망 은퇴 나이’를, 은퇴후가구에는 ‘실제 은퇴 나이’를 질문해 보았다.

현역가구의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로 2023년과 동일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50대는 60대 초·중반(61세~65세) 은퇴를 희망했으나 60대는 70세, 70대는 76세로 높아져 은퇴를 늦추고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2025년 실제 은퇴 나이는 56세로 2023년 대비 50대는 2세, 60대 3세 늦춰졌으나, 희망 은퇴 나이 대비 50대는 14세, 60대는 10세, 70대는 13세 일찍 은퇴해 여기에도 이상과 현실 사이 간극이 존재했다.

금번 조사에서는 희망 은퇴 나이, 실제 은퇴 나이 외에도 은퇴전가구가 실제로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는 ‘예상 은퇴 나이’도 질문해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희망 은퇴 나이와 같거나 연령대별로 1~2세 더 이를 것으로 예상해 둘 사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림III-1 | 희망 은퇴 나이와 실제 은퇴 나이

(단위:세)



주) 희망 및 예상(2025년 신규) 은퇴 나이에 응답 2023년 n=2477, 2025년 n=2401, 실제 은퇴 나이에 응답 2023년 n=409, 2025년 n=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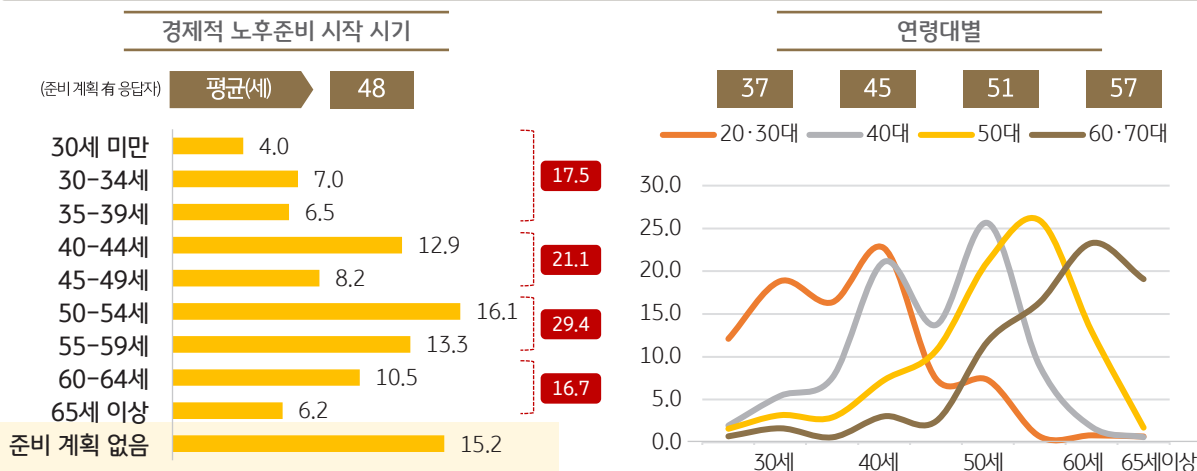
경제적 노후준비는 48세에 시작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준비 시작 시기가 늦었다

희망하고 예상하는 은퇴 시기보다 실제 은퇴는 더 빠른 상황에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시기를 알아보았다. 아직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5.2%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시작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시작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계획이 있는 84.8%의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노후준비 시작 시기는 평균 48세였다. 구체적으로 '50~54세'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16.1%), 뒤 이어 '55~59세'(13.3%), '40~44세'(12.9%), '60~64세'(10.5%), '45~49세'(8.2%), '30~34세'(7.0%), '35~39세'(6.5%), '65세 이상'(6.2%) 순이었다. 종합해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50대(29.4%)와 40대(21.1%)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시작 시기가 늦어 20·30대는 평균 37세, 40대는 평균 45세, 50대는 평균 51세, 60·70대는 평균 57세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상 준비가 늦어진 경우, 과거 경제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해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가 모두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II-2 | 경제적 노후준비 시작 시기

(단위: %, 세)



주1) 전체 n=3000, 연령대별 20·30대 n=727, 40대 n=663, 50대 n=756, 60·70대 n=854

주2) 노후준비 시작 시기는 시작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 응답(아직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는 향후 계획하는 시기를 응답)

02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노후 최소생활비는 월 248만 원, 적정생활비는 월 350만 원, 2023년 대비 소폭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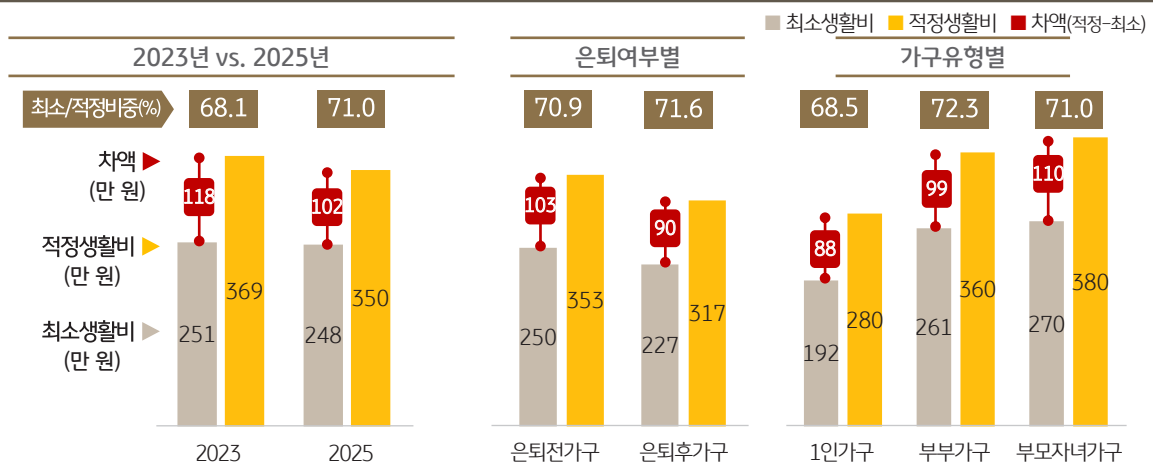
응답자의 15.2%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계획이 없고, 계획이 있는 경우도 평균 48세가 되어서야 행동에 나서서 8년 후인 56세에 실제로 은퇴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하는 노후생활비와 조달가능금액 및 방법 등 경제적 준비를 위한 선제적 고려사항을 짚어보았다.

먼저 노후 생활비를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최소생활비와 여기에 여행·여가활동·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적정생활비로 나누어 질문해 보았다. 적정생활비는 월 350만 원으로 2023년(월 369만 원) 대비 19만 원이 적었고, 최소생활비는 적정생활비의 71.0%로 102만 원이 적은 월 248만 원으로 2023년(월 251만 원)보다 3만 원 적었다. 이는 지난 조사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막연한 불안 심리가 높인 예상 생활비 규모가 제자리를 찾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은퇴전가가 은퇴후가구보다 월 최소생활비(+23만 원)와 적정생활비(+36만 원) 모두 더 높게 예상했고, 가구 유형별로는 양육 자녀가 있는 부모자녀가가 부부가구, 1인가구 대비 예상하는 노후생활비 규모가 컸다.

그림III-3 | 노후 매달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

(단위:만원)



주1) 전체 2023년·2025년 n=3000, 은퇴여부별 은퇴전 n=2716, 은퇴후 n=284, 가구유형별 1인가구 n=712, 부부가구 n=831, 부모자녀가구 n=1417

주2) 최소생활비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비용, 적정생활비는 의식주 및 여행, 여가활동, 손자녀 용돈 등을 줄 수 있는 비용(현재 가치로 고려)



노후에 조달 가능한 생활비는 월 230만 원으로, 적정생활비의 65.7%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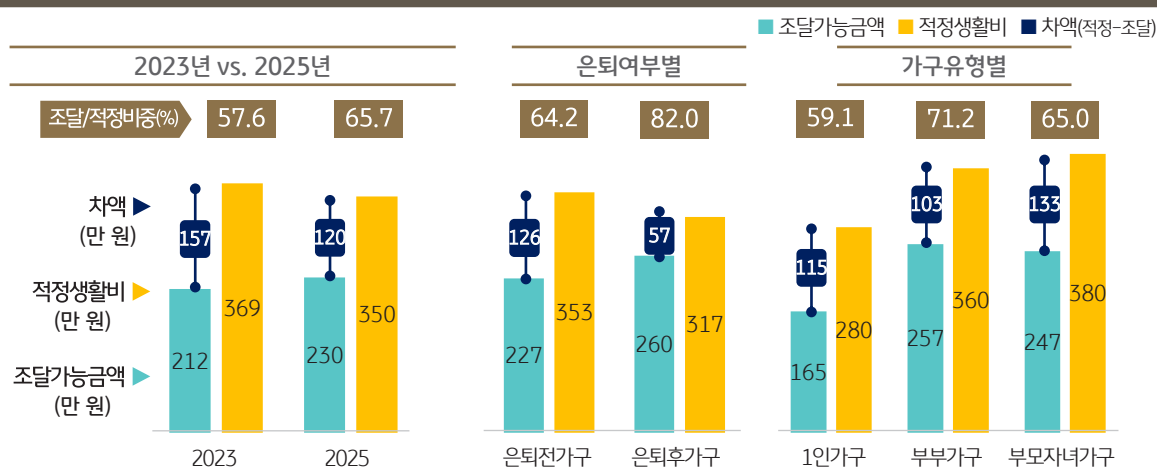
다음으로 현재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를 고려할 때 은퇴 후 필요한 적정생활비 대비 실제로 조달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앞서 노후를 위한 적정생활비는 월 350만 원이고 최소생활비는 월 248만 원으로 조사됐다. 예상하는 실제 조달가능금액은 월 230만 원으로, 적정생활비에 비해 120만 원 적고 최소생활비보다도 18만 원 부족한 금액이었다. 다만, 노후 생활비 조달가능금액이 2023년 대비 18만 원이 늘고 적정생활비가 소폭 감소하면서 적정생활비 대비 조달가능금액 비중이 2023년 57.6%에서 2025년 65.7%로 8.1%p가량 높아졌다.

은퇴 여부에 따른 노후 생활비 조달가능금액 규모는 은퇴전가구가 227만 원, 은퇴후가구가 260만 원으로 33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은퇴전가구의 경우 예상하는 적정생활비 규모가 은퇴후가구보다 컸고, 적정생활비와 조달가능금액 차액도 126만 원으로 은퇴후가구(57만 원) 두 배에 육박했다.

가구 유형별 노후 생활비 조달가능금액은 부부가구(257만 원)가 가장 크고 부모자녀가구(247만 원), 1인가구(165만 원) 순이었으며, 적정생활비 대비 조달가능금액 비중 역시 부부가구(71.2%)가 가장 높아 부모자녀가구(65.0%), 1인가구(59.1%) 대비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림II-4 | 노후생활비 조달가능금액

(단위:만원)



주1) 전체 2023년·2025년 n=3000, 은퇴여부별 은퇴전 n=2716, 은퇴후 n=284, 가구유형별 1인가구 n=712, 부부가구 n=831, 부모자녀가구 n=1417

주2) 조달가능금액은 현재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를 고려할 때 조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금액



조달 가능한 노후생활비 중 60% 이상은 공적·퇴직·개인·주택연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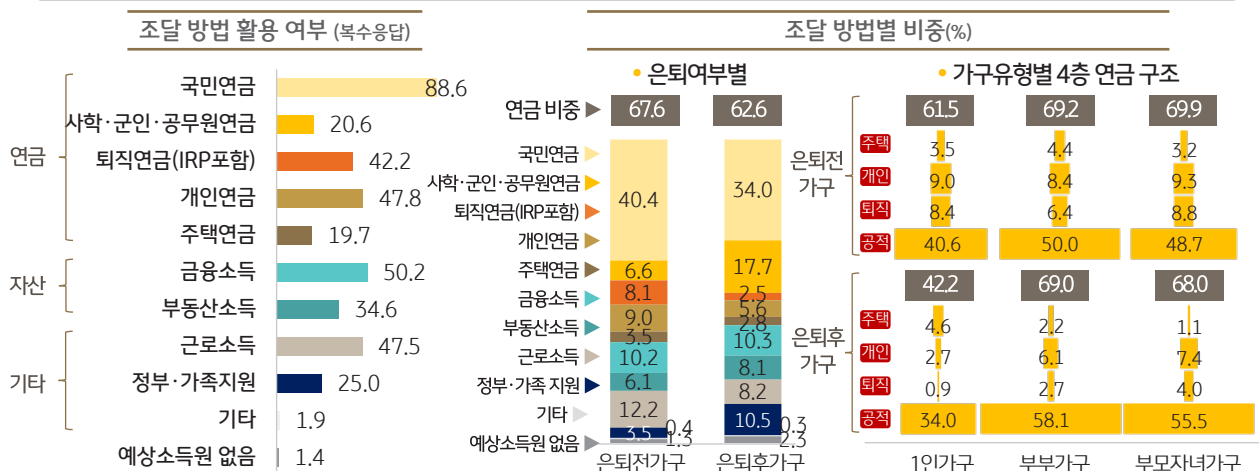
공적·사적연금과 금융·부동산소득 같은 자산, 근로소득이나 외부 지원 등 다양한 노후 생활비 조달 방법 중 한국 가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국민연금’(88.6%)이었고, 금융상품과 보험 등의 ‘금융소득’(50.2%), ‘개인연금’(47.8%), 소일거리 등의 ‘근로소득’(47.5%),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42.2%), 임대소득과 매각 대금 등의 ‘부동산소득’(34.6%)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처음 조사 문항에 포함된 ‘근로소득’의 경우 응답자의 47.5%가 예상 소득원으로 꼽아, 앞서 희망 은퇴 나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일거리 등을 통해 은퇴를 늦추고 지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노후 생활비 조달가능금액 230만 원(은퇴전가구 227만 원, 은퇴후가구 260만 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소득원 비중을 알아보았다. 은퇴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은퇴전가구 40.4%, 은퇴후가구 34.0%), 국민연금을 포함해 사학·군인·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연금’ 활용을 계획하는 가구 비중은 은퇴전가구(67.6%)가 은퇴후가구(62.6%)보다 높았다.

가구 유형별 노후준비 정도와 연금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방안으로 거론되는 4층 연금 구조(1층 공적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4층 주택연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은퇴전가구는 모든 가구 유형에서 연금 비중이 60%를 웃돌았고, 은퇴후가구의 경우 가구 유형별 연금 구조에 차이를 보였다. 은퇴한 1인가구의 경우 공적연금(34.0%)은 물론 개인연금(2.7%) 및 퇴직연금(0.9%) 보유율이 낮아 연금 비중이 42.2%에 불과해, 이들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III-5 | 노후생활비 조달 방법 및 비중

(단위: %)



주) 전체 n=3000, 은퇴여부별 은퇴전가구 n=2695, 은퇴후가구 n=257, 가구유형별 은퇴전 1인가구 n=646, 부부가구 n=666, 부모자녀가구 n=1348, 은퇴후 1인가구 n=60, 부부가구 n=141, 부모자녀가구 n=52



경제적 노후준비가 어려운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여력 부족’과 ‘미래 불확실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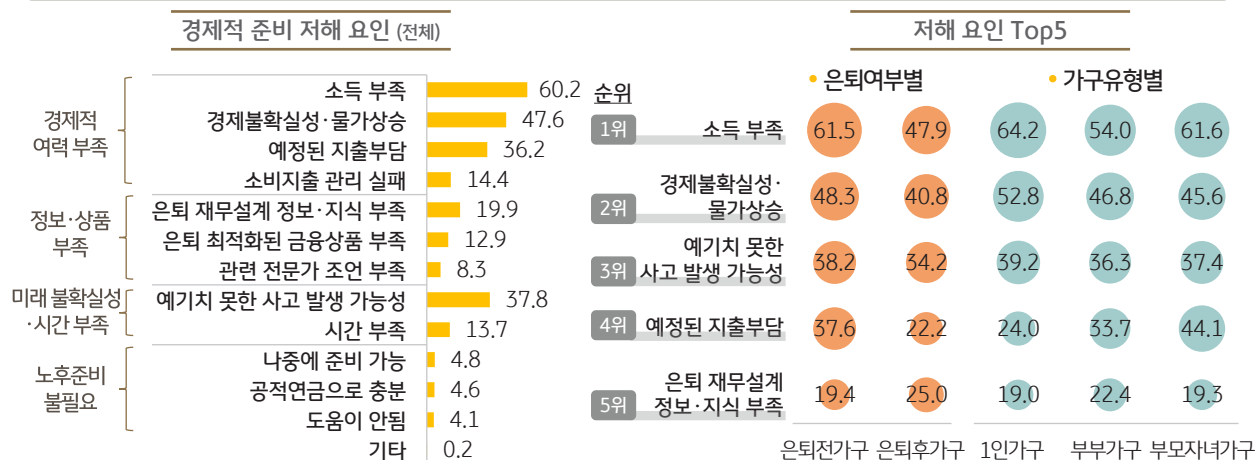
앞서 응답자의 15.2%는 경제적 노후준비 계획이 없다고 했고, 계획이 있는 경우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시작 시기가 늦었다. 노후 생활비 예상 조달가능금액은 적정생활비와 최소생활비보다 적다. 이처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준비가 어려운 이유를 질문해 보았다.

경제적 노후준비가 어려운 이유로는 ‘소득(경제적 여력) 부족’(60.2%)이 가장 많았고, ‘경제불확실성과 물가상승’(47.6%), 사고, 부모 병환, 사업 실패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37.8%), 부채상환, 주택자금, 자녀교육·결혼자금 등의 ‘예정된 지출 부담’(36.2%), ‘은퇴 관련 재무설계 정보·지식 부족’(19.9%)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2023년과 순위 동일). ‘향후에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나중에 준비 가능’)와 ‘공적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도움이 안됨’ 등 경제적 노후준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4.8%, 4.6%, 4.1%에 불과해, 경제적 준비 부족은 대부분 비자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퇴 여부에 따라서는 은퇴전가구의 경우 ‘소득 부족’이 가장 많았고(은퇴전가구 61.5% vs. 은퇴후가구 47.9%), 생애주기에 따라 주택 마련 자금·자녀 지원 등 상대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아 ‘예정된 지출부담’(은퇴전가구 37.6% vs. 은퇴후가구 22.2%)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가 동일한 이유로 ‘예정된 지출 부담’을 크게 우려했다(부모자녀가구 44.1% vs. 1인가구 24.0%, 부부가구 33.7%). 반면 ‘은퇴 재무설계 정보·지식 부족’을 꼽은 응답률은 은퇴후가구가 더 높아(은퇴후가구 25.0% vs. 은퇴전가구 19.4%) 은퇴 후 재정적 노후 설계를 위한 자문과 가이드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II-6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저해하는 요인

(1+2+3순위,단위:%)



주1) 전체 n=3000, 은퇴여부별 은퇴전 n=2716, 은퇴후 n=284, 가구유형별 1인가구 n=712, 부부가구 n=831, 부모자녀가구 n=1417

주2) 은퇴후가구의 경우 경제적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웠던 점을 응답

03 연금 보유 현황



가구당 평균 2.9개의 연금을 보유하고,
연금보유율은 부모자녀가구가 1인가구, 부부가구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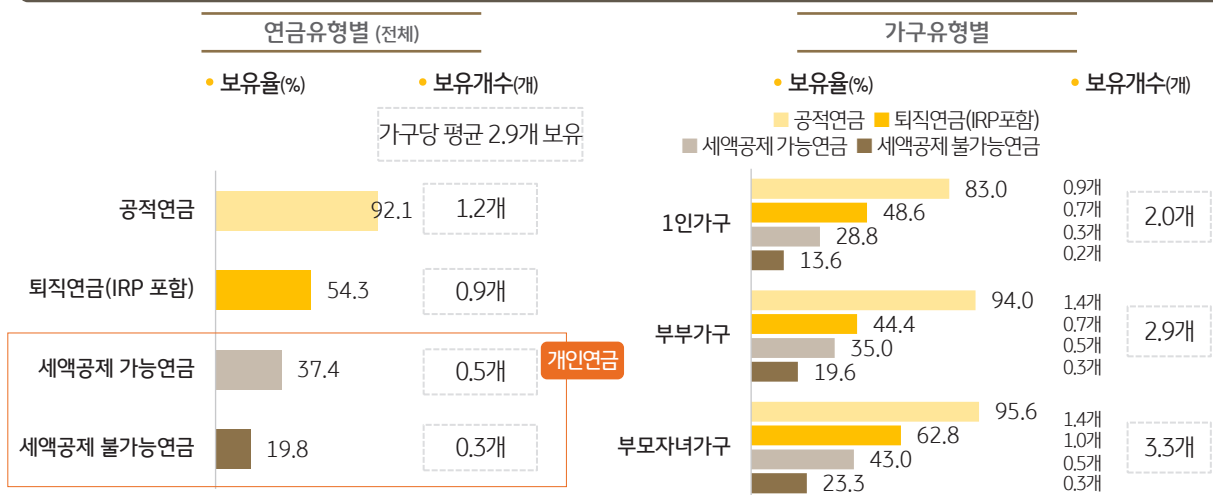
앞서 조달 가능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60%가 넘는 한국 가구가 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은퇴 전가구 67.6%, 은퇴후가구 62.6%). 노후소득 안정성 면에서 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가구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유 현황을 진단해 보았다.

먼저 국민연금과 사학·군인·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 개인형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과 세액공제형·비공제형 개인연금 등 연금 전반의 보유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한국 가구가 보유한 연금은 평균 2.9개였고, 대다수가 ‘공적연금’(92.1%)을 1개 이상(1.2개) 보유하고 있었다. ‘퇴직연금’(0.9개), ‘세액공제형 개인연금’(0.5개),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0.3개)을 보유한 가구는 각각 54.3%, 37.4%, 19.8%를 기록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가 3.3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가구’(2.9개), ‘1인가구’(2.0개) 순으로 연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2023년 동일한 결과로,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부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III-7 | 연금 보유 현황

(복수응답,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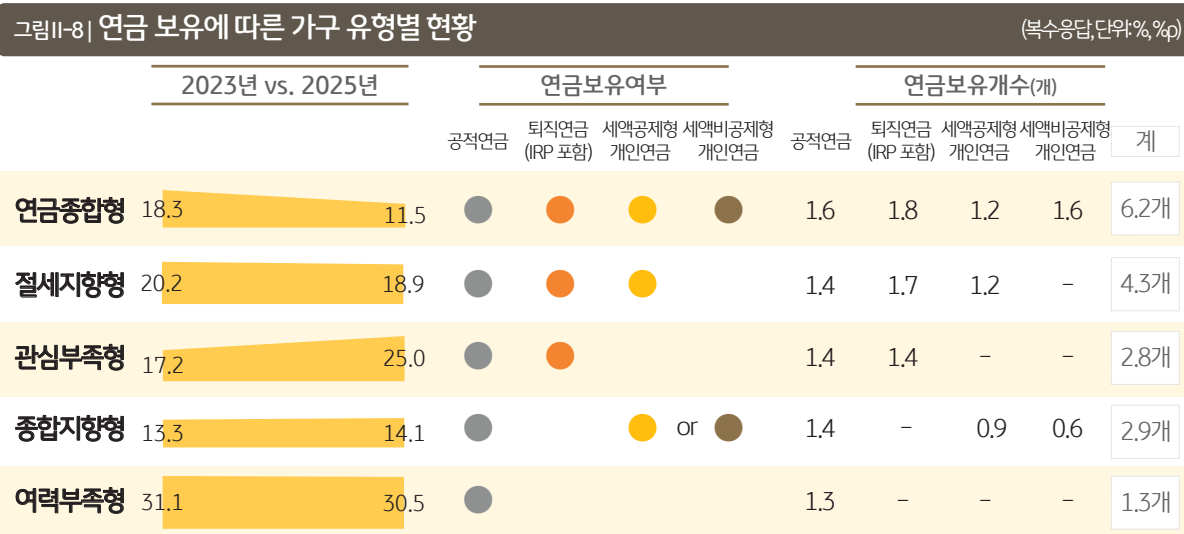
공적연금만 보유한 ‘여력부족형’ 가구가 30.5%로 2023년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유한 연금을 기준으로 한국 가구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연금 보유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다섯 가지 유형 분류에는 앞서 연금 보유 현황에 대한 종합 진단 시 사용한 네 가지 연금 유형인 공적연금, 개인형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 세액공제형 개인연금,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 보유 여부를 고려했다.

다섯 가지 연금 보유 가구 유형 중 공적연금만 보유한 ‘여력부족형’(30.5%) 가구가 2023년(31.1%)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노후생활비 재원을 공적연금에만 의존해 노후 소득 보장이 취약한 한국 가구가 30%에 달한다는 의미로, 사적연금(기업·개인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해 소득 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공적연금과 개인형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만 보유한 ‘관심부족형’(25.0%) 가구는 2023년(17.2%) 대비 7.8%p가 증가하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적연금·퇴직연금·세액공제형 개인연금의 세 가지를 모두 보유한 ‘절세지향형’(18.9%) 가구는 2023년(20.2%, -1.3%p) 대비 소폭 하락했다. 공적연금에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이나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종합지향형’(14.1%) 가구는 2023년(13.3%, +0.8%p)보다 소폭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연금을 모두 보유한 ‘연금종합형’(11.5%) 가구는 2023년(18.3%) 대비 -6.8%p 하락하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각 유형의 가구가 보유한 연금 개수를 살펴보면, ‘연금종합형’ 가구가 평균 6.2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절세지향형’ 가구(4.3개), ‘종합지향형’ 가구(2.9개), ‘관심부족형’(2.8개), ‘여력부족형’(1.3개) 순이었다.



주) 연금종합형 n=307, 절세지향형 n=504, 관심부족형 n=665, 종합지향형 n=375, 여력부족형 n=811



53.8%의 가구가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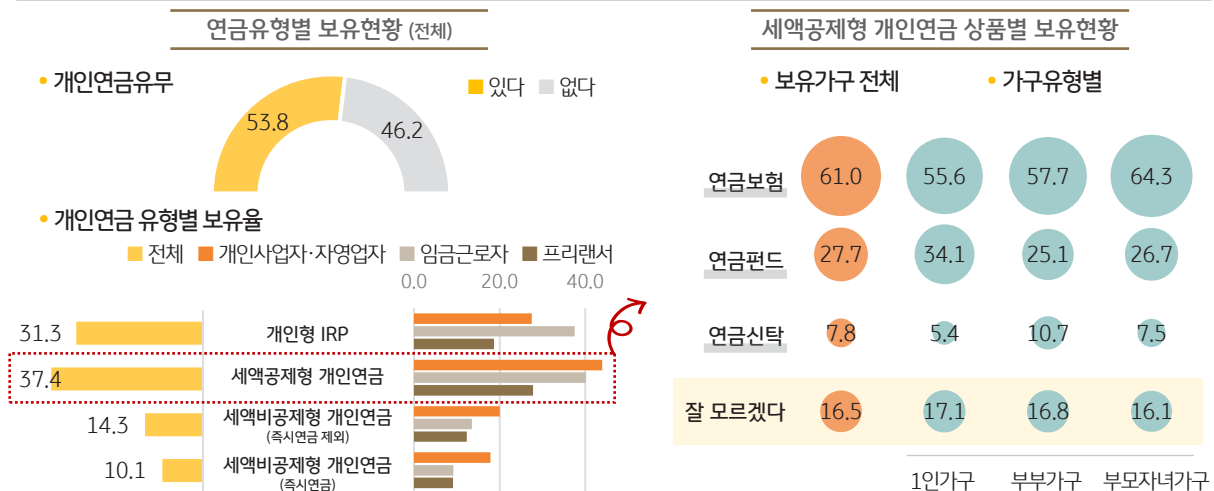
지금까지 한국 가구가 보유한 전반적인 연금 보유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노후소득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인연금 ‘3층 연금’ 체계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개인연금을 퇴직연금에 속하는 ‘개인형 IRP’, 연금보험·연금펀드·연금신탁 등의 ‘세액공제형 개인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의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즉시연금 제외)’,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즉시연금)’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유 현황을 살펴보았다.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보유한 가구는 53.8%였고, 가구당 평균 1.1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개인형 IRP’ 0.4개, ‘세액공제형 개인연금’ 0.5개,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 0.3개). 개인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37.4%가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을 보유해 가장 많았고, ‘개인형 IRP’(31.3%),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즉시연금 제외, 14.3%),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즉시연금, 10.1%)이 뒤를 이었다.

개인연금 중 보유율이 가장 높은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의 경우 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보험’(61.0%) 가입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증권사의 ‘연금펀드’가 27.7%, 현재 신규 판매가 중단돼 타 연금 상품으로 변경 가능한 은행의 ‘연금신탁’이 7.8%로 가장 적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의 경우 가족 보장 성격이 강한 ‘연금보험’ 가입률이 64.3%로 타 가구 대비 높았고(1인가구 55.6%, 부부가구 57.7%), 1인가구는 타 상품 대비 수익률이 양호한 ‘연금펀드’ 보유율이 34.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부부가구 25.1%, 부모자녀가구 26.7%).

그림II-9 | 개인연금 보유 현황

(복수응답, 단위%)



주) 전체 n=3000, 직업유형별 개인사업자·자영업자 n=280, 임금근로자 n=1868, 프리랜서 n=252, 세액공제형 개인연금 보유 가구 전체 n=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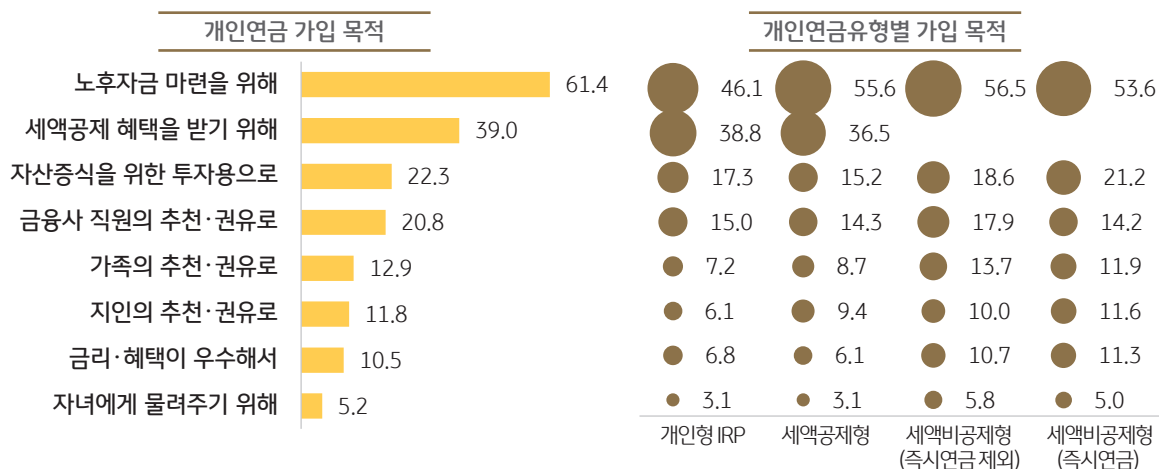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주된 이유는 ‘노후자금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이었다

과반이 넘는(53.8%) 가구가 공적연금에 더해 사적연금을 가입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라는 의견이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은퇴 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개인연금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가입자들의 기대감을 알 수 있었다. 소득공제, 비과세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39.0%)와 목돈 마련과 같이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를 위해’(22.3%) 의견이 그 뒤를 이었고, 금융사 직원(20.8%) 및 가족(12.9%), 지인(11.8%)의 추천이나 권유로 가입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밖에도 타 상품 대비 ‘금리·혜택이 우수해서’(10.5%),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5.2%) 등의 의견도 있었다.

개인연금 유형별로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라는 의견이 상품별로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으며(46.1%~56.5%), ‘개인형 IRP’(38.8%)와 ‘세액공제형 개인연금’(36.5%)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세액공제 혜택이 개인연금 가입의 유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용으로’라는 의견은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즉시연금)’에서 가장 높았고(21.2%),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즉시연금 제외)’의 경우 ‘금융사 직원의 추천·권유로’ 가입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17.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 2종(즉시연금 포함 및 불포함 모두)은 ‘금리·혜택이 우수해서’ 가입했다는 의견이 10%를 웃돌아, 상품성에 기반해 가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림II-10 | 개인연금 상품 가입 이유 (개인연금 보유 가구 한정)

(복수응답, 단락%)



주) 개인연금 보유 가구 전체 n=1614, 개인형 IRP n=938, 세액공제형 개인연금 n=1122,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즉시연금 제외) n=430,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즉시연금) n=302

- Key Findings -

‘희망’보다 ‘실제’ 은퇴가 빠른 한국 가구는 48세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시작했으며, 노후 생활비 조달가능금액 중 60% 이상을 연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65세 은퇴를 희망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9년 빨랐고, 경제적 노후준비는 48세에 시작했다

- ☞ 은퇴전가구가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인 반면 은퇴후가구의 실제 은퇴 나이는 평균 56세로, 은퇴 시기에 대한 희망과 현실 사이 간극(9세)이 존재
- ☞ 경제적 노후준비는 평균 48세에 시작하고, 다수가 50대(29.4%)와 40대(21.1%)에 행동에 나섬
- ☞ 경제적 노후준비 계획이 없는 경우도 15.2%를 차지



노후 적정생활비의 65.7%를 조달 가능하고, 이중 60% 이상을 연금에 의존할 계획이었다

- ☞ 최소생활비는 적정생활비(월 350만 원, 2023년 대비 -19만 원)의 71.0%인 월 248만 원(-3만 원)
- ☞ 예상하는 노후 생활비 조달가능금액은 월 230만 원(+18만 원)으로, 적정생활비 대비 120만 원 적고 최소생활비보다도 18만 원이 부족. 다만, 노후 적정생활비 대비 조달가능금액 비중은 2023년 57.6%에서 2025년 65.7%로 8.1%p 상승
- ☞ 노후 생활비 조달가능금액(은퇴전가구 월 227만 원, 은퇴후가구 월 260만 원) 중 60% 이상(은퇴전가구 67.6%, 은퇴후가구 62.6%)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사학·군인·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연금’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



가구당 평균 2.9개의 연금을 보유하고, 53.8%의 가구가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었다

- ☞ 전체 가구가 보유한 연금은 평균 2.9개로, 대다수가 1개 이상(1.2개)의 ‘공적연금’(92.1%)을 보유. ‘퇴직연금’(0.9개), 개인연금인 ‘세액공제형 개인연금’(0.5개)과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0.3개)을 보유한 가구는 각각 54.3%, 37.4%, 19.8%를 기록
- ☞ 전체 가구의 53.8%는 공적연금에 더해 사적연금을 가입.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는 ‘노후 자금 마련’(61.4%)과 ‘세액공제 혜택’(39.0%),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22.3%) 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시작 연령은 평균 48세였고, 15.2%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65세에 은퇴하기를 희망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9년 일찍 은퇴하는(평균 56세) 현실에서, 경제적 준비 시작부터 은퇴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가구가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월 350만 원, 최소생활비는 이 중 71.0%인 월 248만 원, 실제 조달가능금액은 적정생활비의 65.7%인 월 230만 원이었다. 조달가능금액 중 60% 이상은 국민연금, 사학·군인·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의 ‘연금’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 가구는 평균 2.9개의 연금을 보유하고 53.8%는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며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었다.



[이슈1] 한국 VS. 글로벌 노후 인식

01 | 나이 인식

02 | 은퇴 인식

03 | 노후 인식

참고

Key Finding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23년 『더 길고 더 나은 삶(Living Longer, Better)』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장수 문해력(longevity literacy)’ 개념을 소개하며, 고령화로 인해 길어진 미래에서 개인이 존엄과 목적을 가지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등을 우선시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그 시작으로 세계경제포럼은 노화, 은퇴, 미래의 삶 등 장수 전반을 주제로 북미·유럽·아시아·중동·남미 거주자 3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본 장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와 비교해 한국인의 노후 인식을 진단하기 위해 나이·노화·은퇴에 대한 시각을 뜯어보고, 세계경제포럼이 키워드로 제시한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에 대한 미래 인식, 길어진 노후에 관한 기대와 걱정 요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01 나이 인식



한국과 글로벌 공통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86세~90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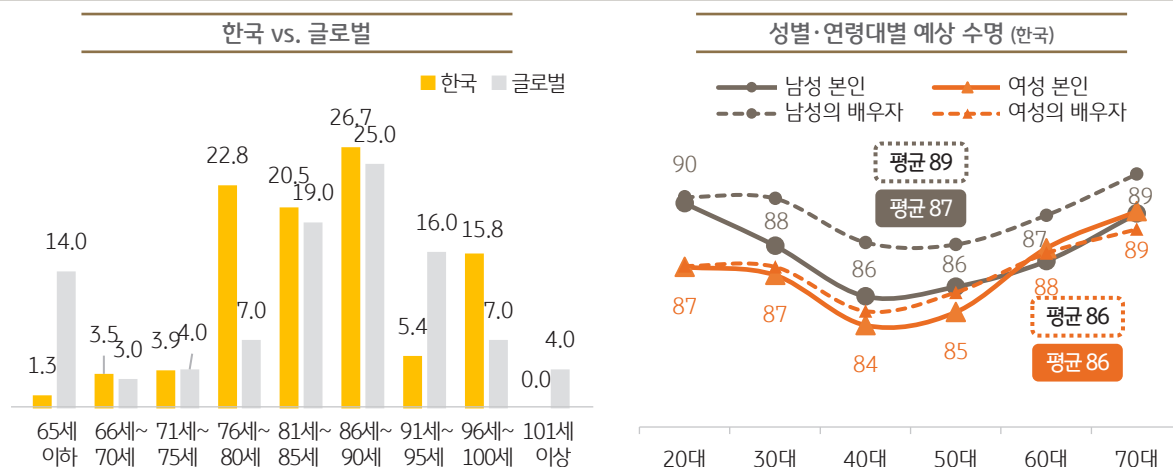
노후에 대한 한국과 글로벌 인식 비교 첫 단계로 본 장에서는 나이에 대한 생각을 비교해 보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5(OECD Health Statistics 2025)>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은 83.5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81.1년보다 2.4년 길고, 2018년에 비해 0.8년 증가했다(OECD 평균 +0.4년).

국가에서 발표한 기대수명과 별개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이 몇 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할까? 한국(26.7%)과 글로벌(25.0%) 공히 기대수명보다 긴 '86세~90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81세부터 95세 구간에 집중된 글로벌과는 달리 한국인의 예상 수명은 76세부터 100세까지 고르게 분포했다.

추가적으로, 한국인이 생각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예상 수명을 비교해보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5.8년 길다는 국가 통계와는 달리,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 응답자는 여성보다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배우자의 예상 수명에 대한 인식 역시 차이를 보여, 남성은 본인(87세)보다 배우자(89세)가 평균 2세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여성은 본인과 배우자의 수명을 동일하게(86세) 예상했다.

그림III-1 | 나이의 예상 수명

(단위: %세)



주1) 한국 n=3000, 글로벌 n=382

주2) 한국 성별 남성 n=1801, 여성 n=1199, 배우자有 남성 n=1258, 배우자有 여성 n=801



‘나이 들었다’는 인식은 한국이 글로벌보다 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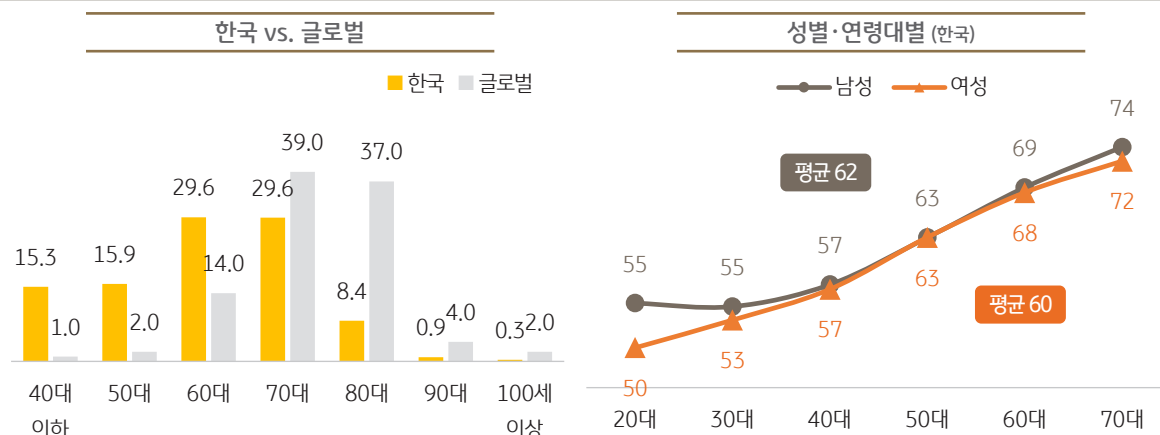
예상하는 나의 수명에 이어 누군가를 ‘나이 들었다(old)’고 생각하는 연령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다. 글로벌의 경우 ‘70대’라는 의견이 39.0%로 가장 많았고 ‘80대’라는 의견이 37.0%로 그 뒤를 이어, 70·80대에 응답자의 4분의 3(76.0%)이 집중됐다.

반면 한국의 경우 ‘70대’와 ‘60대’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29.6%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9%, ‘40대 이하’가 15.3%를 차지해, 60대 이하를 ‘나이 들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0.8%에 달했다. 60대 이하를 ‘나이 들었다’고 보는 글로벌 응답자가 17.0%(‘60대’ 14.0%, ‘50대’ 2.0%, ‘40대 이하’ 1.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이 전반적으로 일찍부터 나이를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해 한국인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나이 인식 차이도 살펴보았다. 누군가를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올라갔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60세)이 남성(62세)보다 평균 2세 일찍 ‘나이 들었다’고 인식했다. 20대의 경우 남녀 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여성이 남성보다 5세 빨랐다.

그림III-2 |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나이

(단위: %, 세)



주1) 한국 n=3000, 글로벌 n=380

주2) 한국 남성 20대 n=137, 30대 n=295, 40대 n=366, 50대 n=429, 60대 n=429, 70대 n=145, 여성 20대 n=68, 30대 n=227, 40대 n=297, 50대 n=327, 60대 n=232, 70대 n=48

02 은퇴 인식



희망 은퇴 나이는 한국과 글로벌이 유사하나, ‘오래 일하고 싶다’는 의지는 글로벌이 더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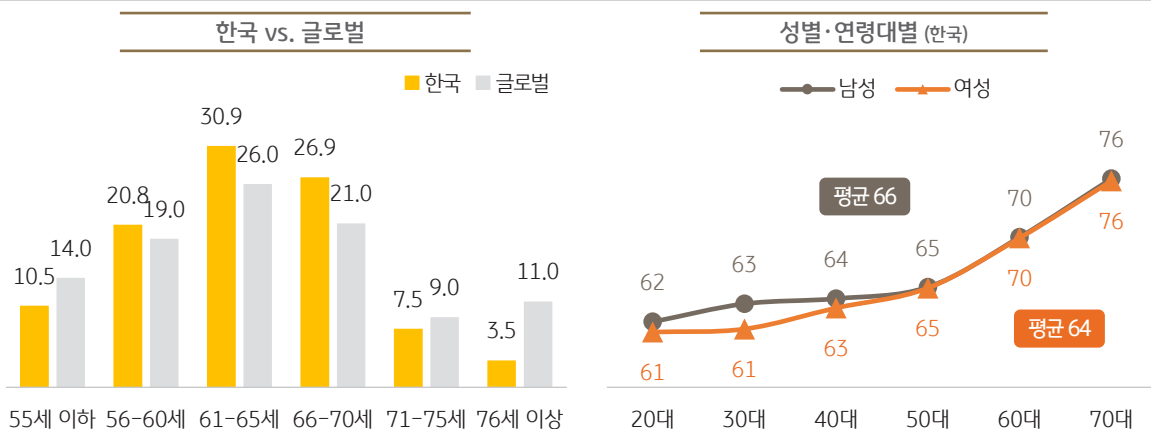
노후에 대한 한국과 글로벌 인식을 비교하기 위한 두번째 순서로, 본 장에서는 은퇴에 대한 생각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희망 은퇴 나이를 시작으로 은퇴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한 인식을 짚어보았다.

언제쯤 은퇴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은 앞서 제2장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은퇴 시기를 늦추고 싶어 하는 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희망 은퇴 나이 구간별 응답률 분포를 글로벌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한국의 경우 ‘61~65세’ 사이 은퇴하고 싶다는 의견이 30.9%로 가장 많았고 ‘66~70세’(26.9%), ‘56~60세’(20.8%), ‘55세 이하’(10.5%) 순으로 높게 나타나, 과반이 넘는(57.8%) 응답자가 61세부터 70세 사이 은퇴하기를 희망했다. 글로벌 조사 결과 역시 ‘61~65세’(26.0%), ‘66~70세’(21.0%), ‘56~60세’(19.0%), ‘55세 이하’(14.0%) 순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47.0%가 동일한 61세와 70세 사이 은퇴를 희망했다. 다만, 글로벌은 ‘71~75세’를 꼽은 응답자가 9.0%로 한국(7.5%)보다 많았고 ‘76세 이상’의 경우 11.0%로 한국(3.5%)의 세 배에 달해,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성별에 따른 한국인의 희망 은퇴 나이는 남성 66세, 여성 64세로 나타났으며, 20대~40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 대비 1~2세 더 늦은 은퇴를 바라고 있었다.

그림 3-3 |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

(단위: %)



주1) 한국 n=2401, 글로벌 n=378

주2) 한국 남성 20대 n=137, 30대 n=292, 40대 n=362, 50대 n=415, 60대 n=300, 70대 n=58, 여성 20대 n=67, 30대 n=189, 40대 n=234, 50대 n=224, 60대 n=106, 70대 n=17



은퇴 후 재정 설계에 대한 관심이 공통적으로 높은 가운데, 글로벌은 한국보다 은퇴에 대한 준비와 기대가 컸다

다음으로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다섯 가지 의견을 보기로 제시하고 이 중 가장 동의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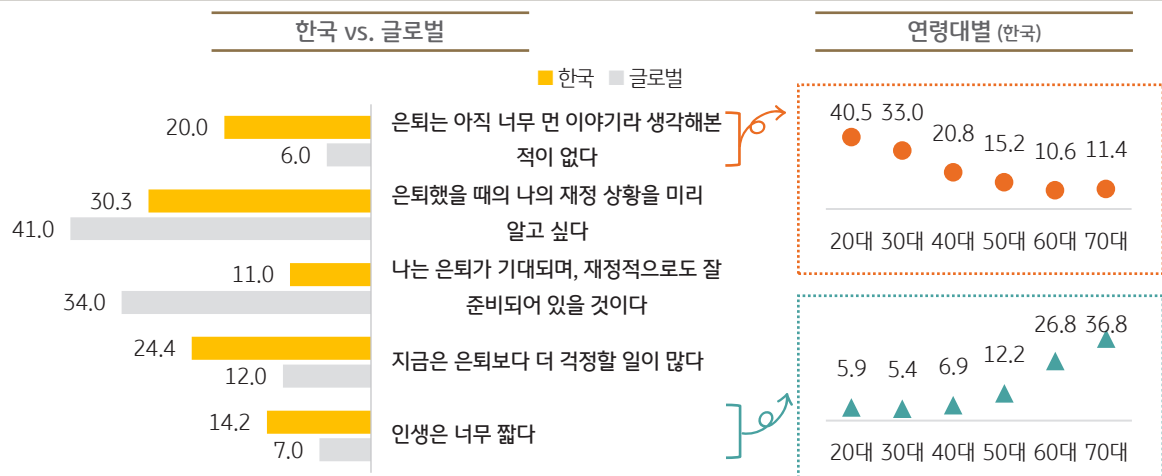
한국과 글로벌 모두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인 의견은 ‘은퇴했을 때의 나의 재정 상황을 미리 알고 싶다’(글로벌 41.0%, 한국 30.3%). 2위부터는 한국과 글로벌의 의견이 갈려, ‘은퇴가 기대되며, 재정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는 의견은 글로벌 조사에서 34.0%의 동의율로 두번째로 높았으나, 한국은 이보다 23.0%p 낮은 11.0%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 2위를 차지한 의견은 ‘지금은 은퇴보다 걱정할 일이 많다’로 24.4%가 동의한 반면 글로벌 동의율은 절반 수준인 12.0%에 그쳤다. ‘은퇴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의견 역시 한국에서는 응답자의 5분의 1(20.0%)이 동의했으나 글로벌 동의율은 6.0%에 그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너무 짧다’ 의견의 경우 한국은 14.2%가 동의했으나 글로벌 동의율은 그 절반인 7.0%에 불과했다.

은퇴 후 재정 설계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국과 글로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기대감은 글로벌이 한국보다 높았으며, 한국의 경우 ‘은퇴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지금은 은퇴보다 걱정할 일이 많다’ 등의 이유로 은퇴 후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연령대별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은퇴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인식이 강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생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그림III-4 | 은퇴에 대한 인식

(단위: %)



주1) 한국 n=3000, 글로벌 n=366

주2) 한국 연령대별 20대 n=205, 30대 n=522, 40대 n=663, 50대 n=756, 60대 n=661, 70대 n=193

03 노후 인식



노후 사회적 고립에 대한 우려는 공통 현상이며,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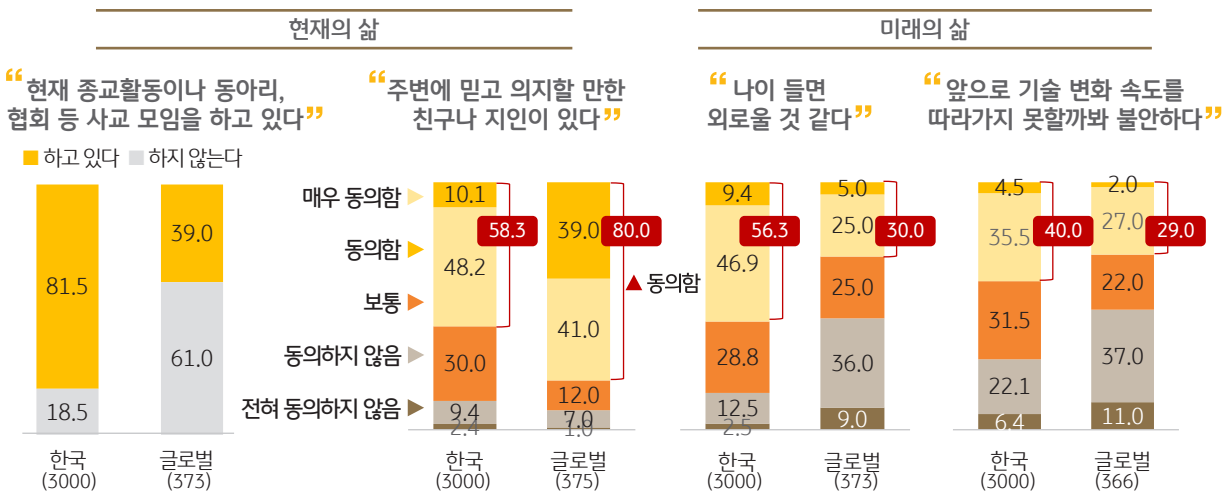
지금까지 나이와 은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한국과 글로벌 조사 참여자의 생각을 간략히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예상하는 노후생활을 사회적 관계와 가족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고, 길어진 미래에 대한 기대 요인과 걱정거리를 짚어봄으로써 한국과 글로벌의 전반적인 노후 인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현재의 삶을 진단하고 미래의 삶을 예측해 보았다. ‘현재 종교활동이나 동아리, 협회 등 사교 모임을 하고 있다’는 의견에 한국인은 10명 중 8명(81.5%)이 동의한 반면 글로벌은 절반 수준인 39.0%에 불과했다.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나 지인이 있다’는 의견에는 반대로 글로벌은 80.0%가 동의했으나 한국은 58.3%로 이보다 적었다.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나이 들면 외로울 것 같다’는 의견에 한국은 56.3%로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동의한 반면 글로벌 동의율은 이보다 26.3%p 낮은 30.0%에 불과했다. ‘앞으로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는 의견에도 한국(40.0%)이 글로벌(29.0%)보다 동의율이 높았다. 정서적 단절, 디지털 소외 등 사회적 고립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상당수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인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III-5 |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비교 (한국 vs. 글로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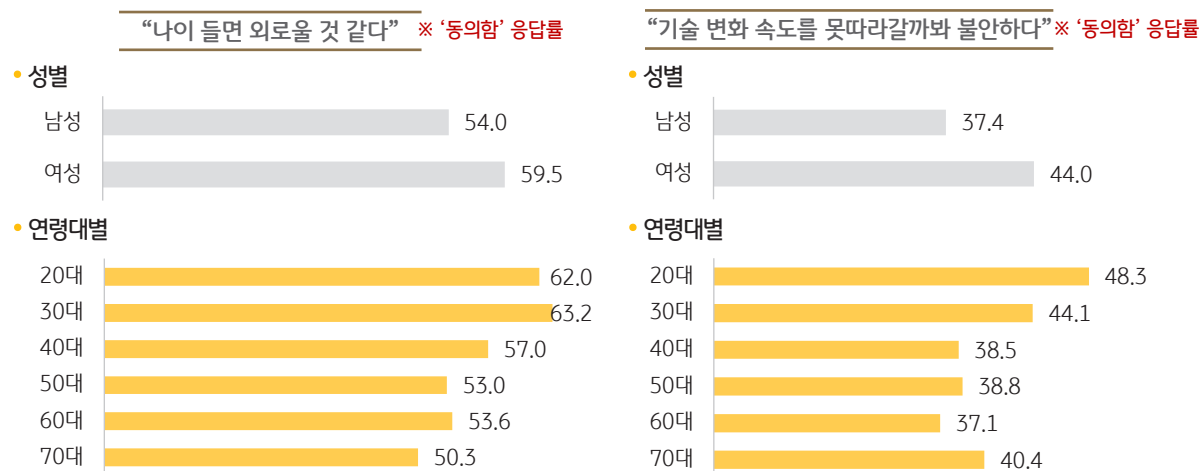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여성과 청년층에서 정서적 단절과 디지털 소외에 대한 불안이 두드러졌다

한국인이 가진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해 성별과 연령대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나 이 들면 외로울 것 같다’는 의견에 여성은 59.5%, 남성은 이보다 5.5%p 낮은 54.0%가 동의해, 정서적 단절에 대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해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63.2%로 동의율이 가장 높았고 ‘20대’(62.0%), ‘40대’(57.0%), ‘60대’(53.6%), ‘50대’(53.0%), ‘70대’(50.3%)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외로운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컸다.

‘앞으로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 역시 여성(44.0%)이 남성(37.4%)보다 6.6%p 높아, 디지털 소외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내비쳤다. 동의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48.3%)였고, ‘30대’(44.1%), ‘70대’(40.4%), ‘50대’(38.8%), ‘40대’(38.5%), ‘60대’(37.1%)가 그 뒤를 이었다. 흔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외 계층으로 고령층을 꼽으나, 젊은 층 역시 상당수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령층과는 다른 형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림III-6 | 미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

(단위: %)



주) 한국 성별 남성 n=1801, 여성 n=1199, 연령대별 20대 n=205, 30대 n=522, 40대 n=663, 50대 n=756, 60대 n=661, 70대 n=193



가족 부양에 대해 한국은 생활·금전 동시 지원을, 글로벌은 생활 지원 위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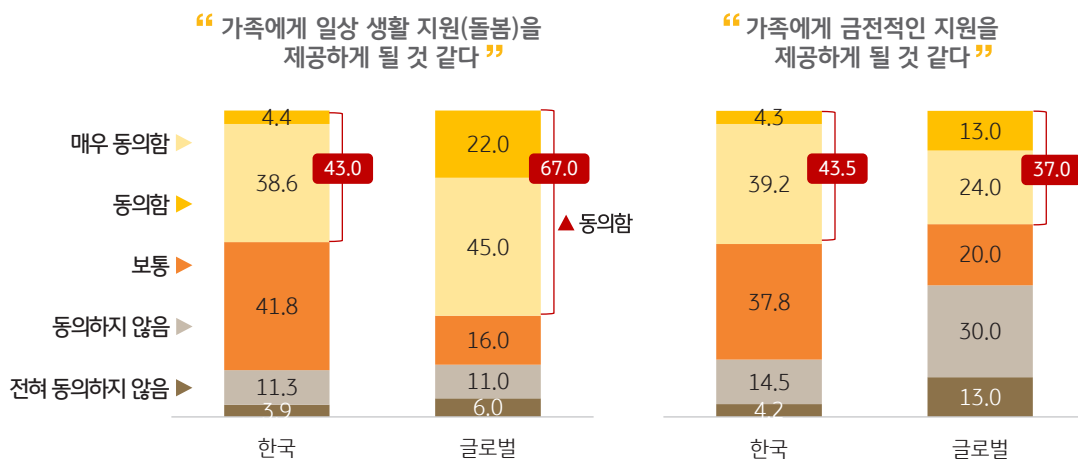
길어진 수명은 본인의 노후준비 외에도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금번에는 가족에 대한 생활 및 금전 지원을 둘러싼 한국과 글로벌의 생각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미래에 고령 혹은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에게 생활 보조, 식사 및 가사 수발, 병원 동행 등 일상 생활에서 돌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가족에게 일상 생활 지원(돌봄)을 제공하게 될 것 같다’)를 질문했다. 그 결과, 한국인의 경우 43.0%가 동의했고(‘매우 동의함’ 4.4%, ‘동의함’ 38.6%), 41.8%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며(‘보통’, ‘동의하지 않음’ 15.2%에 그쳤다(‘동의하지 않음’ 11.3%, ‘전혀 동의하지 않음’ 3.9%)). 글로벌의 경우 한국보다 많은 응답자 3분의 2(67.0%)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17.0% 수준에 그쳐, 한국과 글로벌 모두 가족 부양을 길어진 노후의 일부분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일상 생활 지원 외에 고령 혹은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에게 용돈·생활비·의료비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가족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 같다’)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은 앞선 일상생활 지원과 유사한 43.5%가 동의해 생활 지원과 금전 지원을 하나로 생각했다. 반면 글로벌은 ‘금전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가 각각 37.0%, 43.0%로 나타나, 의견이 양분된 모습이 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 부양 규범이 강한 한국과는 달리 글로벌은 경제적 자립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유럽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두터워 개인과 국가의 역할 분담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III-7 | 가족에 대한 생활·금전 지원 (한국 vs. 글로벌)

(단위: %)



주) 생활지원 응답자 한국 n=2716, 글로벌 n=369, 금전지원 응답자 한국 n=2716, 글로벌 n=368



한국인은 가족으로부터 부양 받을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 부양 부담을 크게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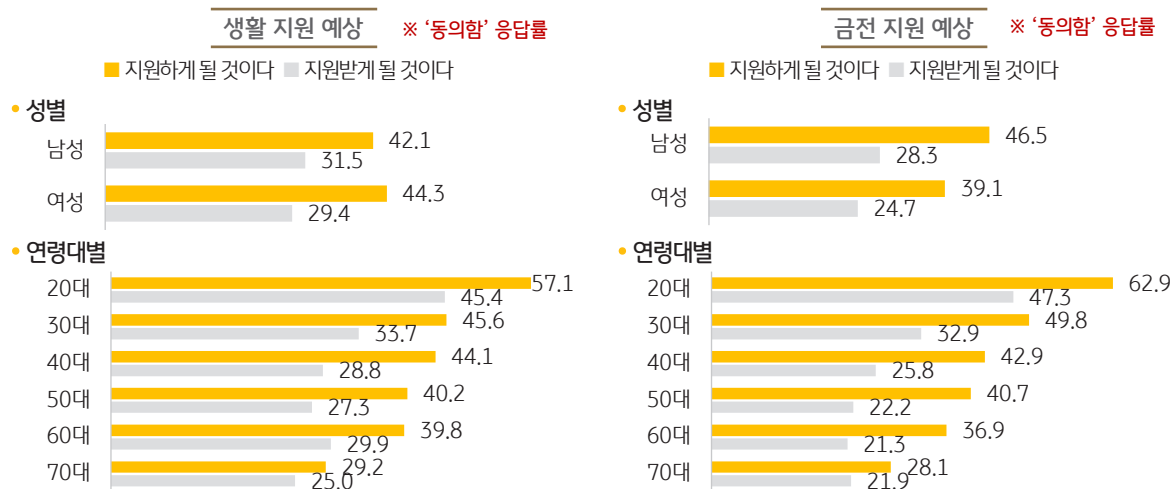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83.5년)과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을 의미하는 건강수명(65.8세)의 격차가 17.7년에 달했다. 이러한 격차는 개인적인 고통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의 책임과 고령 인구 부양과 같은 사회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앞선 조사 결과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한국인이 미래에 가족을 위한 생활 지원(돌봄)(43.0%)과 금전 지원(43.5%)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 같은 한국인이 느끼는 가족 부양 부담을 성별과 연령대별로 나눠 살펴보고, 반대로 노후에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도 질문해 보았다. 생활 지원의 경우 남녀 모두 ‘지원하게 될’ 가능성(여성 44.3%, 남성 42.1%)을 ‘지원받게 될’ 가능성(여성 29.4%, 남성 31.5%)보다 높다고 예상했고, 여성의 경우 두 항목 간 응답률 격차가 14.9%p에 달했다(남성 10.6%p). 연령대가 낮을수록 생활 지원 부담이 커서, 20대가 57.1%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률이 하락했다(30대 45.6%, 40대 44.1%, 50대 40.2%, 60대 39.8%, 70대 29.2%).

금전 지원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 남녀 모두 ‘지원하게 될’ 가능성을 ‘지원받게 될’ 가능성보다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경제 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이 여성보다 ‘지원하게 될’ 가능성(남성 46.5%, 여성 39.1%)과 ‘지원받게 될’ 가능성(남성 28.3%, 여성 24.7%) 모두 높게 내다봤다. 연령대별 인식 역시 젊은 층(20대 62.9%, 30대 49.8% vs. 60대 36.9%, 70대 28.1%)이 미래 가족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꼈다.

그림 8-8 | 가족 간 생활·금전 지원 예상 (한국)

(단위: %)



주) 한국 성별 남성 n=1614, 여성 n=1102, 연령대별 20대 n=205, 30대 n=520, 40대 n=660, 50대 n=733, 60대 n=502, 70대 n=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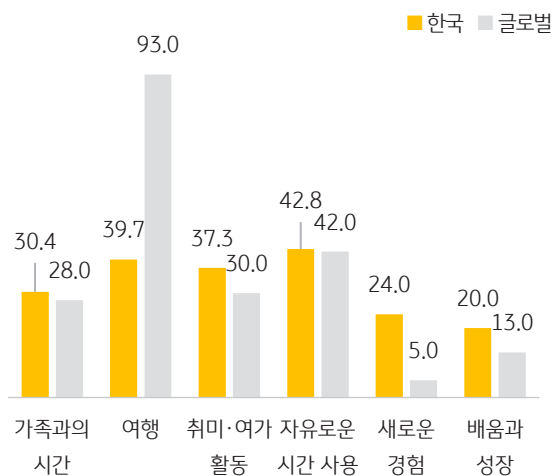
길어진 노후에 대해 ‘자유로운 시간’과 ‘여행’을 기대했고, 한국·글로벌 모두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글로벌의 조사 대상자들은 길어진 노후를 떠올릴 때 가장 기대되는 것과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지도 물어보았다.

길어진 노후에 대해 한국인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간 사용’(42.8%)이었고, ‘여행’(39.7%), ‘취미·여가 활동’(37.3%), ‘가족과의 시간’(30.4%), ‘새로운 경험’(24.0%), ‘배움과 성장’(20.0%)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은 이 중 ‘여행’(93.0%)에 대한 기대감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한국의 기대 요인 1위 ‘자유로운 시간 사용’(42.0%) 역시 2위를 차지해(이후 ‘취미·여가활동’(30.0%), ‘가족과의 시간’(28.0%), ‘배움과 성장’(13.0%), ‘새로운 경험’(5.0%)의 순), 한국과 글로벌 공통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다니는 노후를 기대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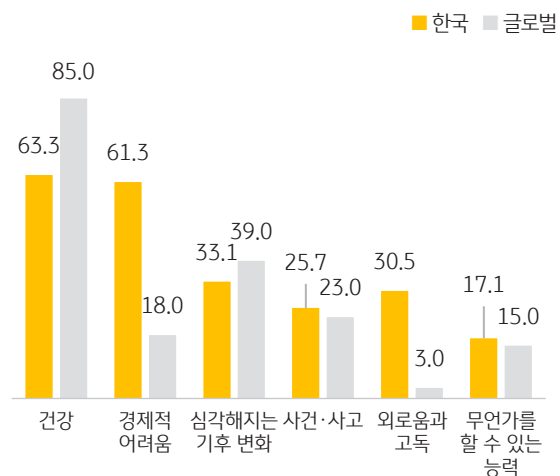
반대로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은 ‘건강’(63.3%)과 ‘경제적 어려움’(61.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33.1%), ‘외로움과 고독’(30.5%), 불안정한 정치·사회 상황을 포함한 각종 ‘사건·사고’(25.7%),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17.1%)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의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건강’(85.0%)으로 독보적 1위를 차지했고,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39.0%), ‘사건·사고’(23.0%)가 뒤를 이었다. ‘경제적 어려움’(18.0%)과 ‘외로움과 고독’(3.0%)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과 각각 43.3%p, 27.5%p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글로벌 공히 ‘건강’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으나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는 한국이 글로벌보다 더 크게 우려했다.

그림III-9 | ‘길어진 노후’ 기대 요인 Top6 (복수응답, 단위%)



주) 한국 n=3000, 글로벌 n=356

그림III-10 | ‘길어진 노후’ 걱정거리 Top6 (복수응답, 단위%)



주) 한국 n=3000, 글로벌 n=352



한국인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길어진 노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건강’과 ‘외로움·고독’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지금부터는 길어진 노후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와 우려를 성별과 연령대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기대 요인 1위 ‘자유로운 시간 사용’(성별 격차 3.3%p)부터 ‘여행’(3.7%p), ‘취미·여가활동’(8.4%p), ‘가족과의 시간’(5.6%p), ‘새로운 경험’(5.1%p)까지 상위 5개 요인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여성보다 남성, 20·30대보다 60·70대가 길어진 노후에 대해 더 큰 기대를 품고 있었다. 연령대별 인식 역시 차이가 뚜렷해,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각 요인에 대해 기대치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대가 1위로 꼽은 ‘자유로운 시간 사용’의 경우 60·70대의 응답률은 이보다 6.5%p 높았고(20·30대 39.9% vs. 60·70대 46.4%) 60·70대가 1위로 꼽은 ‘여행’의 경우 20·30대의 응답률은 이보다 9.9%p 낮았다(60·70대 47.2% vs. 20·30대 37.3%).

길어진 미래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힌 ‘건강’에 대해서는 여성(65.2%)이 남성(62.0%) 대비 소폭 더 걱정이 많았다.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남성(62.0%)이 ‘건강’과 함께 공동 1위로 지목하며 여성(60.3%)보다 더 크게 걱정했고,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반대로 여성(38.9%)이 남성(29.3%)보다 높은 우려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건강’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60·70대 72.5% vs. 20·30대 54.1%),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걱정이 많았다(20·30대 63.0% vs. 60·70대 54.4%).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60·70대(37.5%)에 이어 20·30대(31.8%) 역시 우려했고,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걱정은 60·70대(35.8%)에서 가장 크고 50대(30.3%), 20·30대(28.7%), 40대(25.8%)의 순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그림11-1 | 성별·연령대별 기대 요인 (한국) (복수응답, 단위%)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30대	40대	50대	60·70대
가족과의 시간	32.6	27.0	27.4	27.9	27.1	37.7
여행	41.2	37.5	37.3	37.3	35.8	47.2
취미·여가 활동	40.7	32.3	37.0	38.6	32.0	41.3
자유로운 시간 사용	44.1	40.8	39.9	41.3	42.9	46.4
새로운 경험	26.0	20.9	25.9	21.0	24.3	24.5
배움과 성장	19.8	20.4	19.4	20.1	19.8	20.7
	남성 (1801)	여성 (1199)	20·30대 (727)	40대 (663)	50대 (759)	60·70대 (854)

그림11-2 | 성별·연령대별 걱정거리 (한국) (복수응답, 단위%)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20·30대	40대	50대	60·70대
건강	62.0	65.2	54.1	58.7	65.7	72.5
경제적 어려움	62.0	60.3	63.0	66.5	62.8	54.4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29.3	38.9	31.8	31.5	31.0	37.5
사건, 사고	26.7	24.2	28.7	22.8	20.5	30.0
외로움과 고독	29.7	31.8	28.7	25.8	30.3	35.8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15.8	18.9	15.4	15.5	17.1	19.7
	남성 (1801)	여성 (1199)	20·30대 (727)	40대 (663)	50대 (759)	60·70대 (854)

美·韓 대표적 시니어 지원 단체

미국

은퇴자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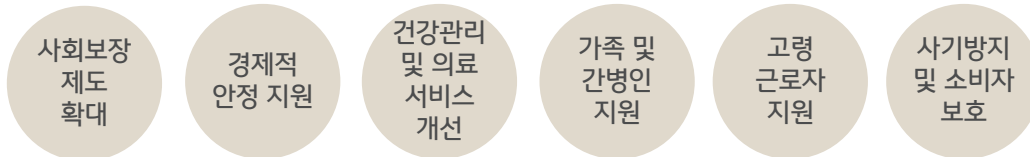


-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자를 위한 복지·권익 옹호 단체로 3천8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
- 미국 최대 비영리단체로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
- 가입비는 연간 15달러이며 회원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

■ 산하 기관



주요 활동



세부 내용

■ 시니어를 위한 정보·교육·할인 혜택 제공

- 시니어 정보: 잡지 등 AARP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을 통해 건강, 재무관리, 은퇴 준비, 노화, 여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 시니어 플랫넷: 미국 전역 6개 지역에서 시니어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 할인 혜택: 멤버십 고객에게 보험, 건강, 여행, 오락, 레스토랑, 쇼핑 등 다양한 분야 제휴사의 할인 혜택을 제공

■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지원 및 커뮤니티 조성

- Best Employer for Worker 50+: 2001년부터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령 근로자 교육, 지속 근무, 채용 등의 모범적 사례가 있는 기업과 단체를 인증
- Back to Work 50+: 지역사회 취업 지원 기관 및 기업을 연계하며 시니어에게 다양한 취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소개 등 취업 지원
- Age-Friendly Community: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기업과 협력하여 고령자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편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AARP 웹사이트



[AARP 홈페이지]

한국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서울시 거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 중장년층을 위한 경력설계, 직무훈련 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50플러스포털 (50plus.or.kr)’을 운영 중

■ 산하 기관

구분	대상	주요내용	권역
50플러스 캠퍼스	40~64세 서울시민	일자리 및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창업 지원	5개 권역(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
50플러스 센터	해당 자치구 중장년층 주민	취미, 여가, 생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	13개 지자체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 강동, 양천, 성동, 강북, 관악)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	60세 이상 서울시민	일자리상담, 매칭·알선, 직무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	동부캠퍼스 1층

주요 활동



[서울시50플러스포털 홈페이지]

일자리

사회공헌

40대
직업전환

경력설계

세부 내용

■ 중장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 기업 연계 일자리: 40~65세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박람회, 채용설명회, 직무훈련을 제공
- 경력 인재 지원: 중장년층이 관심 분야 직무 경험을 쌓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채용을 지원
- 직업훈련·채용설명회·일자리 박람회 개최: 중장년층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민간기업과 구직자를 연결

■ 40대 직업전환 및 경력설계

- 직업전환 사업: 온라인 학습(서울런 4050 평생학습포털)에서 중장년층 직업 역량 교육과 오프라인(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현장학습기관 71개)에서 직업 전환 교육을 제공
- 경력설계 취업 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역량 교육 프로그램과 1:1 상담, 취업 컨설팅 지원
- 디지털 전환 교육: AI·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스마트워크 등 수준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시간당 2천 원 부과)

출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웹사이트

‘은퇴는 아직 먼 얘기’인 한국, ‘은퇴가 기대’되는 글로벌 대비 은퇴 준비가 느리고 노후생활 기대가 낮았다



한국과 글로벌의 예상 수명은 유사하나, ‘나이 들었다’는 인식은 한국이 글로벌보다 빨랐다

- ☞ 자신의 예상 수명은 가장 많은 응답자가 ‘86세~90세’(한국 26.7%, 글로벌 25.0%)로 내다봄
- ☞ ‘나이 들었다’고 인식하는 나이로 글로벌은 ‘70대’(39.0%)와 ‘80대’(37.0%)를, 한국은 이보다 이른 ‘60대’(29.6%)와 ‘70대’(29.6%)를 꼽음. 한국은 ‘50대’(15.9%), ‘40대 이하’(15.3%) 응답률도 글로벌 대비 높아, 전반적으로 이른 나이부터 ‘나이 들었다’고 인식하는 성향이 강함



한국은 글로벌 대비 은퇴 준비가 늦고 노후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 ☞ 한국의 57.8%, 글로벌의 47.0%가 61세와 70세 사이 은퇴를 희망. 다만, 글로벌은 ‘76세 이상’(11.0%) 의견이 한국(3.5%)의 세 배에 달하며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함
- ☞ 은퇴 후 재정 설계는 한국과 글로벌 모두 높은 관심사로, 은퇴에 관한 인식 공동 1위 의견 ‘은퇴했을 때의 나의 재정 상황을 미리 알고 싶다’에 글로벌 41.0%, 한국 30.3%가 동의
- ☞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예상과 기대는 글로벌이 한국보다 높고(‘은퇴가 기대되며, 재정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의견에 글로벌 34.0%, 한국 11.0% 동의), 한국은 ‘지금 다른 걱정이 더 많고’(24.4% vs. 글로벌 12.0%), ‘은퇴는 먼 얘기’(20.0% vs. 글로벌 6.0%)라는 이유로 현재에 더 집중



한국은 노후 사회적 고립을 우려했고, 가족 부양 시 생활·금전 동시 지원을 예상했다

- ☞ 정서적 단절·디지털 소외 등 사회적 고립에 대한 우려는 한국과 글로벌 공통 현상이며, 한국인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나이 들면 외로울 것 같다’는 의견에는 한국 56.3%, 글로벌 30.0%,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는 의견에는 한국 40.0%, 글로벌 29.0%가 동의
- ☞ 한국과 글로벌 모두 가족을 부양하는 노후를 내다보며 ‘생활 지원’은 한국 43.0%, 글로벌 67.0%, ‘금전 지원’은 한국 43.5%, 글로벌 37.0%가 예상. 다만, 한국은 생활·금전 지원을 모두 예상하는 반면, 글로벌의 경우 금전 지원 비동의율(43.0%)이 동의율을 상회하며 생활 지원 위주의 가족 돌봄을 고려
- ☞ 길어진 노후에 대한 공통적인 기대 요인은 ‘자유로운 시간’과 ‘여행’,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

한국과 글로벌의 예상 수명은 ‘86세~90세’로 유사하나, ‘나이 들었다’는 인식은 한국이 더 빨랐고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글로벌이 더 많았다(‘76세 이상’ 은퇴 희망, 글로벌 11.0%, 한국 3.5%). 은퇴 후 재정 설계에 대한 관심은 공통적으로 높았으나(글로벌 41.0%, 한국 30.3%),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과 노후생활 기대는 글로벌이 한국보다 세 배가량 높았다(글로벌 34.0%, 한국 11.0%). 노후의 삶을 예상할 때 한국과 글로벌 모두 사회적 고립을 우려했고, 한국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외로울 것 같다’ 한국 56.3%, 글로벌 30.0%). 가족 부양 부담 역시 공통적이었고(‘생활 지원(돌봄)’ 한국 43.0%, 글로벌 67.0%, ‘금전 지원’ 한국 43.5%, 글로벌 37.0%가 예상), ‘자유로운 시간’과 ‘여행’을 길어진 노후의 기대 요인으로, ‘건강’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IV

[이슈2] 노후자금 준비에서 부동산의 의미

01 | 주택연금제도의 이해와 활용

02 | 주택 다운사이징 활용

참고

Key Findings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가계의 전체 자산(평균 5.4억 원) 중 부동산자산(평균 4.1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5.2%였다. 특히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심각해, 가구주 연령대가 39세 이하의 경우 부동산자산이 전체 자산의 58.6%인데 비해, 40대 72.6%, 50대 74.6%, 60세 이상 81.2%를 차지하며 유동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평균 83.5세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8년(82.7세)과 비교해 0.8세 연장됐다. 8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7.9%에서 2030년 10.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바야흐로 장수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동시에 길어진 노후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늘어난 노후기와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자산이 집중된 한국 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노후자금 준비에서 부동산자산의 역할과 이를 활용한 노후자금 준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노후자금 준비에 있어 부동산자산을 활용한 유동화 방법인 주택연금과 주택 다운사이징에 대한 인식과 행태, 활용 니즈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향후 제도적·인식적·사회적 측면에서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01 주택연금제도의 이해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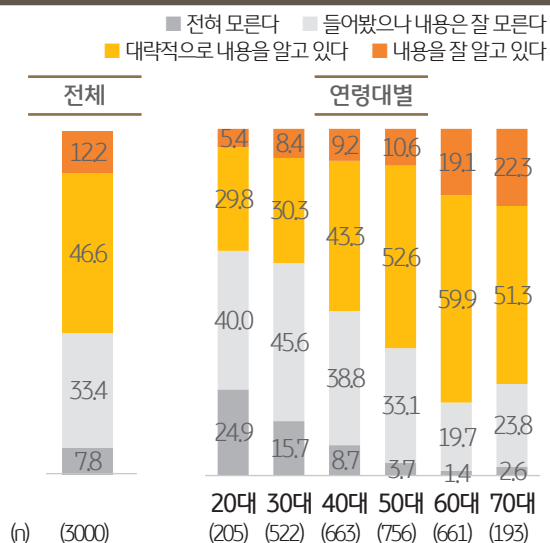
한국인 3명 중 1명만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을 활용해 노후자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유동화 방법 중 하나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부부 중 1명이라도 55세 이상인 경우, 거주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자 역모기지론을 의미한다. 부동산자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 가계에서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할 방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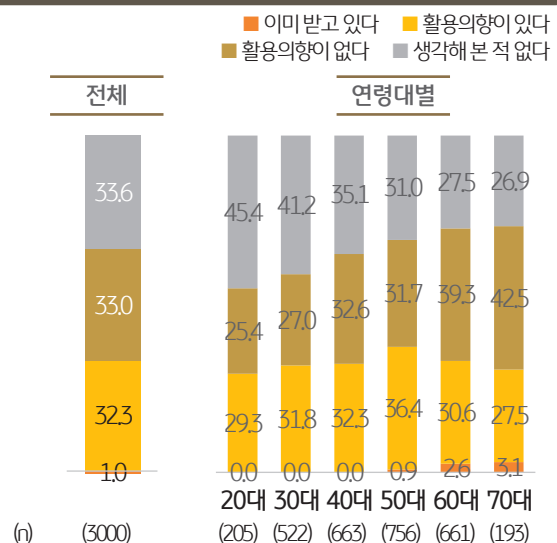
먼저 한국인이 주택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부터 질문해 보았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58.8%, ‘들어봤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자가 33.4%를 차지했다. ‘전혀 모른다’도 7.8%를 기록해 응답자의 92.2%가 ‘주택연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데 주택연금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활용할 의향이 있다’거나 ‘이미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33.3%를 차지했다. 응답자 연령대별로는 은퇴를 앞둔 ‘50대’가 37.3%로 활용 의향이 가장 높았고, ‘60대’(33.2%), ‘70대’(30.6%)로 노후기에 진입한 연령대에서 활용 의향은 오히려 감소했다. ‘활용의향이 없거나’(33.0%), ‘생각해 본 적 없다’(33.6%)는 응답자도 각각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

그림V-1 |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그림V-2 | 주택연금제도 활용 의향 (단위: %)





주택연금 활용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금융자산으로 충분해서’, 특히 주 대상자인 60·7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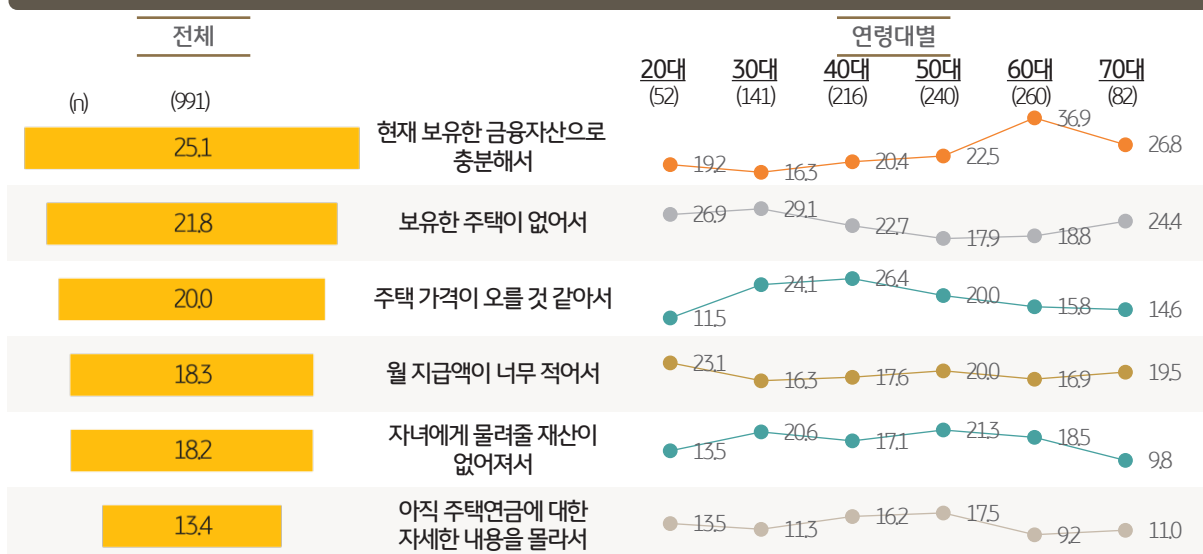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주택연금을 활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으로 충분해서’(25.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유한 주택이 없어서’(21.8%),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20.0%)가 20%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차순위로는 ‘월 지급액이 너무 적어서’(18.3%),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져서’(18.2%), ‘아직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13.4%) 등이 10%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서’, ‘자녀가 반대해서’, ‘근로소득이 있어서’ 등 다양한 소수 의견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거부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부모의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또는 자녀의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위해서’ 등은 점차 비중이 축소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주택연금을 활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20·30대는 ‘현재 집이 없어서’(20대 26.9%, 30대 29.1%)를, 40대는 향후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26.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장년기에 진입한 50·60대와 노후기에 접어든 70대는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으로 충분해서’(50대 22.5%, 60대 36.9%, 70대 26.8%)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아직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13.4%)의 경우 응답자 연령대별로 보면 ‘50대’(17.5%)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앞서 주택연금에 대한 활용 의향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50대임을 고려하면, 노후기 진입에 앞서 노후 자금 준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이들 대상으로 주택연금제도와 그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Ⅳ-3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Top6 (‘활용의향이 없다’의 경우만)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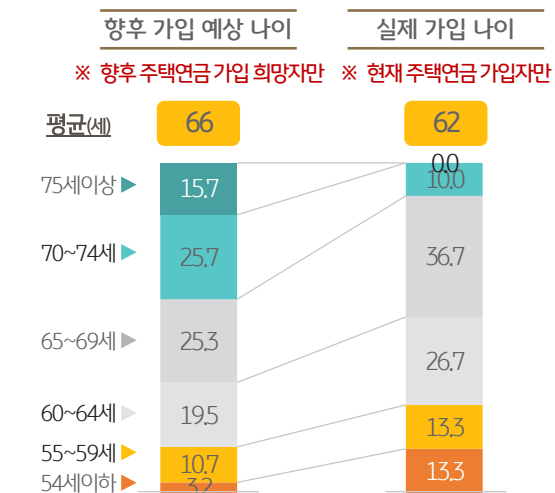
주택연금 가입을 예상하는 나이는 평균 66세, 실제 가입한 나이는 평균 62세로 4년 정도 빨랐다

향후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몇 세쯤 가입할 계획인지를 알아본 결과,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이 계획하는 시기는 평균 66세였다.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1.0%가 '65~74세'에 가입을 희망했고, 다음으로 '60~64세'가 19.5%, '75세 이상'이 15.7%를 차지했으며, '59세 이하'도 13.9%의 응답자가 고려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연금 가입시기를 늦추는 경향을 보였다. '20대' 응답자는 평균 59세에 가입할 계획인 반면, '30대'는 61세, '40대'는 64세, '50대'는 66세, '60대'는 71세, '70대'는 77세로 20대에 비해 18년이나 늦었다. 가입을 예상하는 연령대는 현재 20대(43.3%)와 30대(35.5%)는 '60~64세', 40대(27.1%)와 50대(39.6%)는 '65~69세'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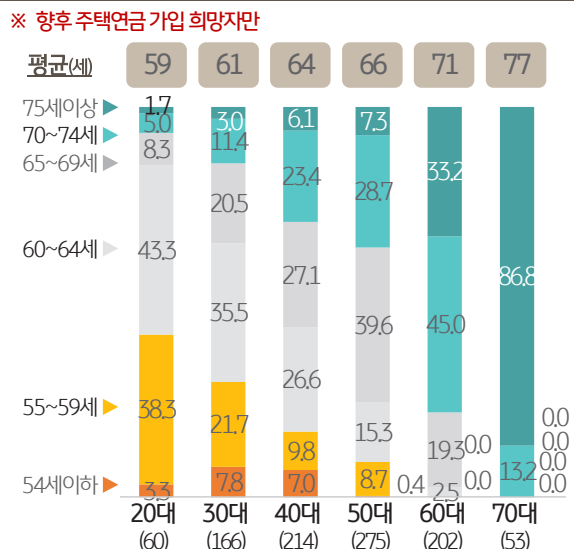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입 나이는 평균 62세로 미가입자의 가입 예상 나이인 66세보다 4세 빨랐다. 실제 가입 연령대는 '65~69세'가 36.7%로 가장 많았고, '60~64세'가 26.7%, '54세 이하'와 '55~59세'가 각각 13.3%였다.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 중 '54세 이하'와 '55세~59세'인 경우가 26.6%를 차지하는데 비해 향후 50대에 가입을 계획하는 응답자는 대부분 20대와 30대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의 경우 주택연금을 노후자금 준비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였다.

그림Ⅳ-4 | 주택연금 가입 연령 (희망 vs. 실제) (단위: 세, %)



주) 향후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만 n=970,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만 n=30

그림Ⅳ-5 | 연령대별 주택연금 예상 가입 연령 (단위: 세, %)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한 최대 이유는 ‘노후의 여유자금 마련’과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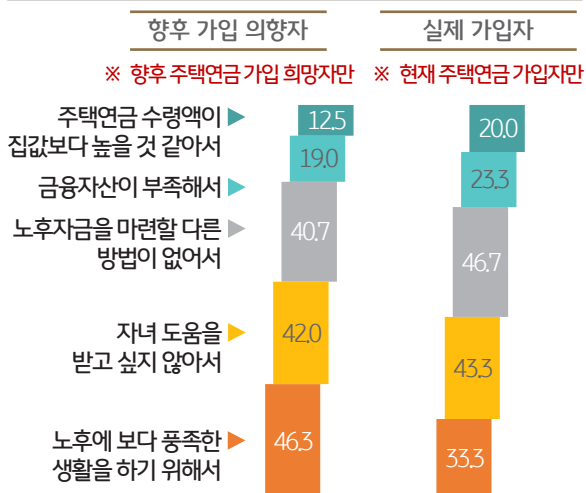
주택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거주용 주택을 활용해 자산을 유동화하는 데 있다. 주택연금 활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꼽은 주된 가입 이유로는 ‘노후에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46.3%), ‘자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42.0%)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 노후의 최소생활비보다 적정생활비 준비 목적이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가구의 응답과 차이를 보였는데,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가구는 ‘노후자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46.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자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43.3%), ‘노후에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33.3%)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노후에 보다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또는 ‘자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등 적정생활비 준비 목적이 강했다면, 실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는 최소생활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50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적집단심층면접(FGD)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주택연금 활용을 고려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알아보았다. 참석자들이 주택연금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계기는 ‘은퇴자 교육 시 주택연금에 대한 안내’나 ‘유튜브에서 접한 관련 정보’를 통해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언급했다. 자녀들이 풍족한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활용을 권유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주택연금 활용을 고려하게 된 이유로는 ‘자녀 출가 후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나,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등을 언급하며 대체로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그림Ⅳ-6 주택연금 가입 의향 이유

(복수응답, 단위%)



주) 향후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만 n=970,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만 n=30

그림Ⅳ-7 주택연금 가입 의향 이유 (FGD)

★자녀 기반 마련 후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활용

“저는 애들 집도 조그만한 거 하나씩 했거든요. 다 주고, 내가 번 것은 내가 다 쓸 거고요.” (50대 여성)

“굳이 그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소유로 해 봐야...내가 번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가면 되는 거고.” (70대 남성)

★은퇴자 교육의 주택연금 안내를 통해 긍정적으로 인식

“회사에서 은퇴자 교육을 시켜줬는데 추천하는 게 주택연금이었어요. 연금의 빈자리를 연금으로 채운다!” (50대 남성)

★자녀들이 권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 인식이 개선

“아이들이 먼저 우리한테 풍족하게 쓰라고... 나중에 여유가 없으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60대 여성)

★(생활비지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모아 (손)자녀에게 주려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수입으로 충당되면, 연금 받는 거 모았다가 현금(용돈)으로 주는 거예요.” (70대 남성)

주) 50대 이상 남녀 대상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

02 주택 다운사이징 활용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 59.7%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했고, 적절한 실행 시기는 70대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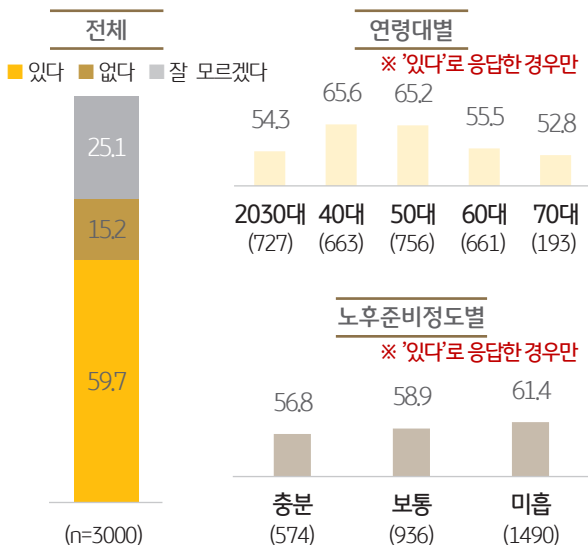
노후자금 준비에서 거주용 주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파악하고자 노후에 살던 집을 줄여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하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주택 다운사이징’은 가구주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주택 수요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택의 면적, 비용, 가격 등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 중 59.7%는 ‘향후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정도인 48.1%가 ‘70대’에 주택 다운사이징을 실행하겠다고 답했으며, ‘60대’와 ‘80대 이상’도 각각 25.1%, 23.2%를 차지했다. 주택 다운사이징을 실행하는 나이는 평균 71세로 나타나 70대 초반을 주택 다운사이징의 적기로 보았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다운사이징 시기를 늦추는 경향을 보였으며, 적절한 시기로는 20·30대는 평균 68세를 꼽은 데 비해 60대와 70대는 각각 평균 75세, 평균 81세를 고려하고 있었다. 한편 노후준비 정도에 따라서는 실행 시기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71~72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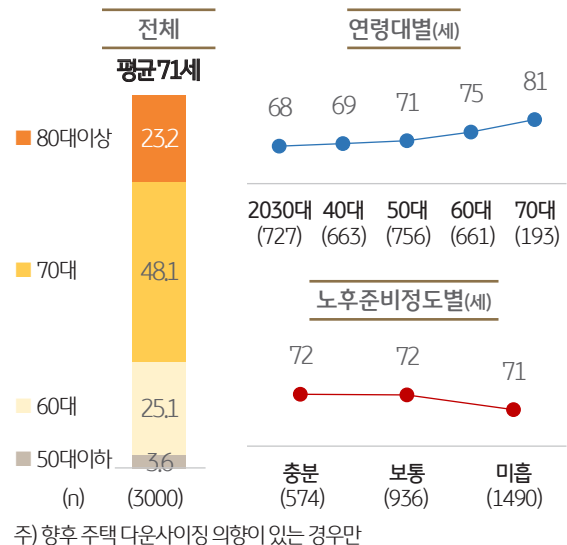
그림Ⅳ-8 | 향후 주택 다운사이징 의향

(단위: %)



그림Ⅳ-9 | 향후 주택 다운사이징 시기

(단위: 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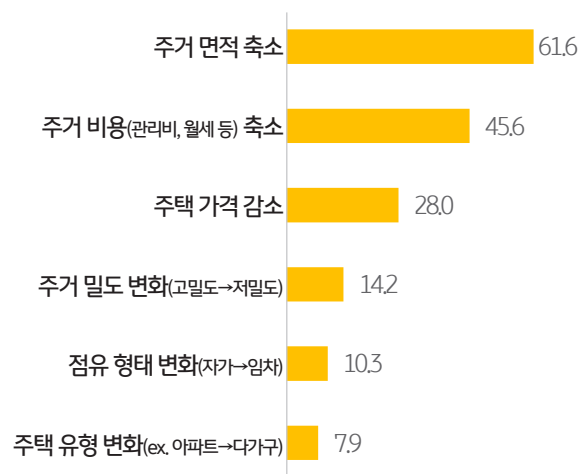


주택 다운사이징은 ‘주거 면적을 줄여가는 방식’을 가장 선호, 마련된 자금은 ‘입출금계좌에 넣고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다

향후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주택 다운사이징 방식으로 응답자 5명 중 3명인 61.6%는 ‘주거 면적 축소 방식’을, 45.6%는 ‘관리비나 월세 등 주거 비용 축소 방식’을 꼽았다. 이 외에 ‘주택 가격 감소’(28.0%),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주거 밀도 변화’(14.2%), ‘자가에서 임차로 점유 형태 변화’(10.3%), ‘주택 유형 변화’(7.9%) 등의 방식도 고려하고 있었다. 노후기 진입 직전으로 실제로 노후자금 준비에 주택 다운사이징을 활용할 50·60대의 경우 ‘주거 면적 축소’를 고려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50대 62.1%, 60대 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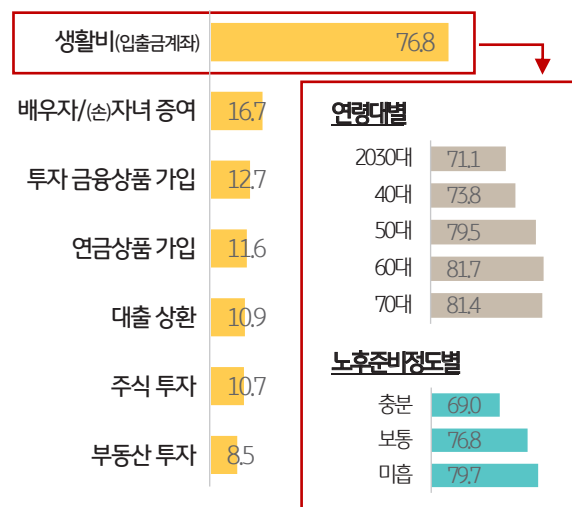
주택 다운사이징을 실행하는 경우 주택의 규모나 주거 비용을 줄이면 대부분 여유 자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자금을 어디에 활용할 계획인지 주택 다운사이징의 목적을 조사해 본 결과, ‘입출금계좌에 넣고 생활비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자가 76.8%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50대(79.5%), 60대(81.7%), 70대(81.4%)의 10명 중 8명이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발생한 여유 자금을 생활비로 입출금계좌에 넣어두고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응답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택 다운사이징 실행 의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후준비가 ‘보통’(76.8%)이거나 ‘미흡’(79.7%)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마련한 여유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외에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증여’(16.7%), ‘투자 금융상품 가입’(12.7%), ‘연금상품 가입’(11.6%), ‘대출 상환’(10.9%) 등의 활용처도 1순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Ⅳ-10 | 주택 다운사이징 방식 (복수응답, 단위: %)



주) 향후 주택 다운사이징 의향이 있는 경우만, 전체 n=1792

그림Ⅳ-11 | 주택 다운사이징 자금의 활용처 (복수응답, 단위: %)



주) 향후 주택 다운사이징 의향이 있는 경우만, 전체 n=1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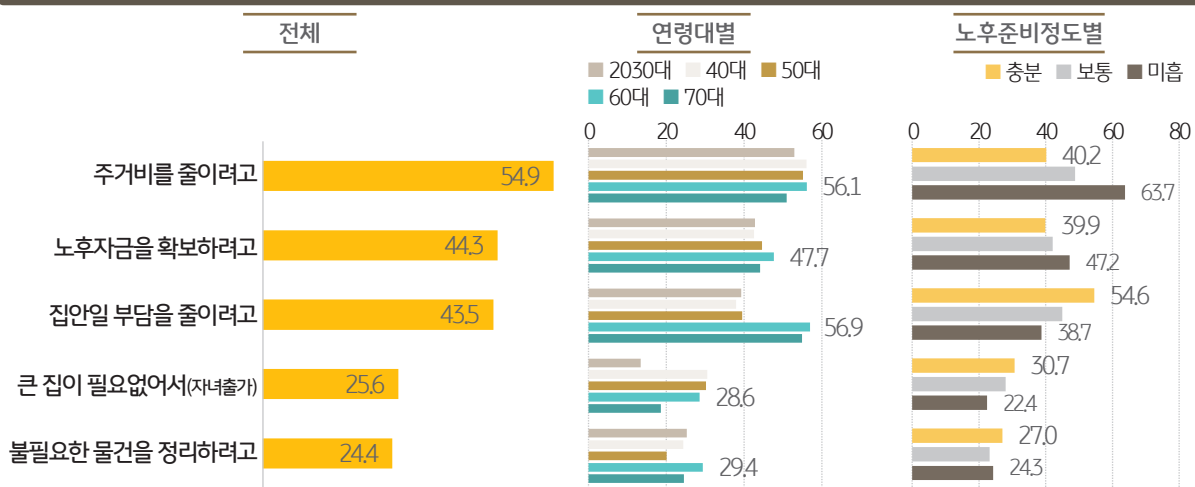
향후 주택 다운사이징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주거비 절감’, ‘노후자금 확보’, ‘집안일 부담 축소’ 때문이었다

향후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주거비를 줄이려고’(54.9%),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서’(44.3%), ‘집안일 부담을 줄이려고’(43.5%)가 상위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는 ‘주거비를 줄이려고’ 주택 다운사이징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고, 60대와 70대는 ‘집안일 부담을 줄이려고’ 다운사이징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표적집단심층면접(FGD)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50대 남성 참석자는 “딸 아이 시집 보내면 집 팔고 조금 (규모를) 줄여서 가고...이런 점을 고려해서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할 것 같아요”라며 자녀 독립 후 주택 규모를 축소해 관리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70대 남성 참석자는 “지금 50평대인데, 관리하기도 귀찮고 눈만 뜨면 월 해야 돼서 팔아버리고 조그만 집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집안일 부담에 대해 언급했다.

노후준비 정도별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주택 다운사이징의 주요 이유로 ‘집안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외 ‘자녀 분가 후 큰 집이 필요 없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후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주거비를 줄이려고’와 ‘노후자금을 확보하려고’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한 경우가 가장 많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자산을 활용하려는 니즈가 컸다. 노후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자(n=326)에 비해 미흡하다는 응답자(n=915)가 많은 가운데,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주택 다운사이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12 | 향후 주택 다운사이징을 계획하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주) 향후 주택 다운사이징 의향이 있는 경우만, 전체 n=1792, 2030대 n=395, 40대 n=435, 50대 n=493, 60대 n=367, 70대 n=102, 충분 n=326, 보통 n=551, 미흡 n=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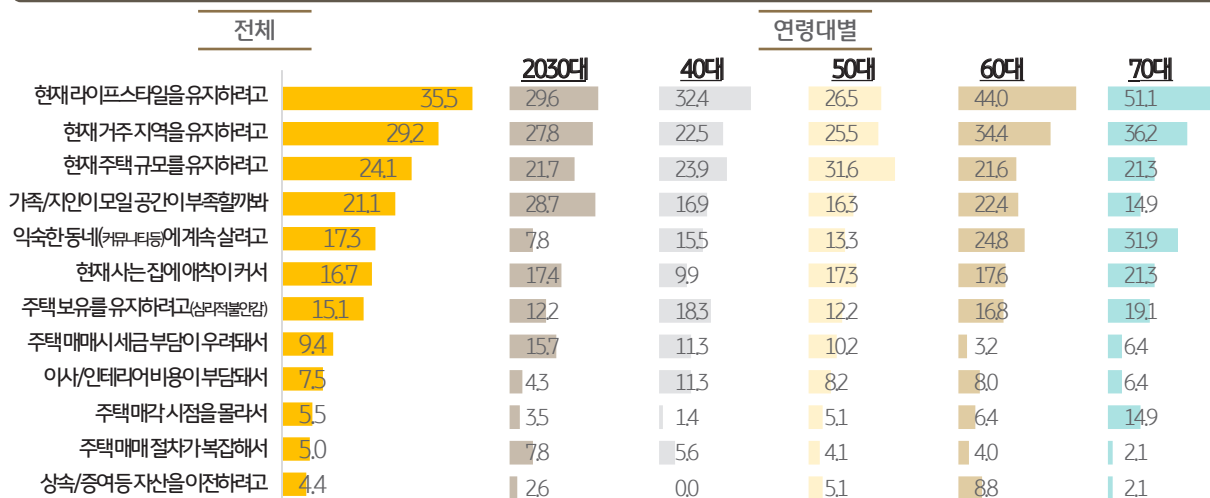
고연령층에서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살던 동네를 떠나기 싫어 하는 경향이 작용했다

앞서 응답자 중 15.2%가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이들이 주택 다운사이징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35.5%)였다. 차순위로는 ‘현재 거주 지역을 유지하려고’(29.2%), ‘현재 주택규모를 유지하려고’(24.1%), ‘가족/지인이 모일 공간이 부족할까 봐’(21.1%) 등이 올랐다. 5명 중 1명 이상이 선택한 상위 4가지 이유를 분석해보면, 주택 다운사이징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노후자금 준비보다는 현재 라이프스타일과 거주 지역 유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라이프스타일과 거주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다운사이징을 포기하겠다’는 응답률은 60·7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려고 다운사이징을 포기하겠다’의 경우는 20·30대(29.6%), 40대(32.4%), 50대(26.5%)에 비해 60대(44.0%), 70대(51.1%)에서 응답률이 높았고, ‘현재 거주지역을 유지하려고’ 역시 30% 미만을 기록한 20대~50대보다는 60대(34.4%)와 70대(36.2%)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60대(24.8%)와 70대(31.9%)의 경우 ‘익숙한 동네에 계속 살려고’도 20·30대(7.8%), 40대(15.5%), 50대(13.3%)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여, 60·70대가 전반적으로 현재 거주 지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20·30대와 40대 등 젊은 세대는 ‘주택매매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우려돼서’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이에 대해 높은 우려감을 알 수 있었다.

그래프 13 | 향후 주택 다운사이징을 꺼리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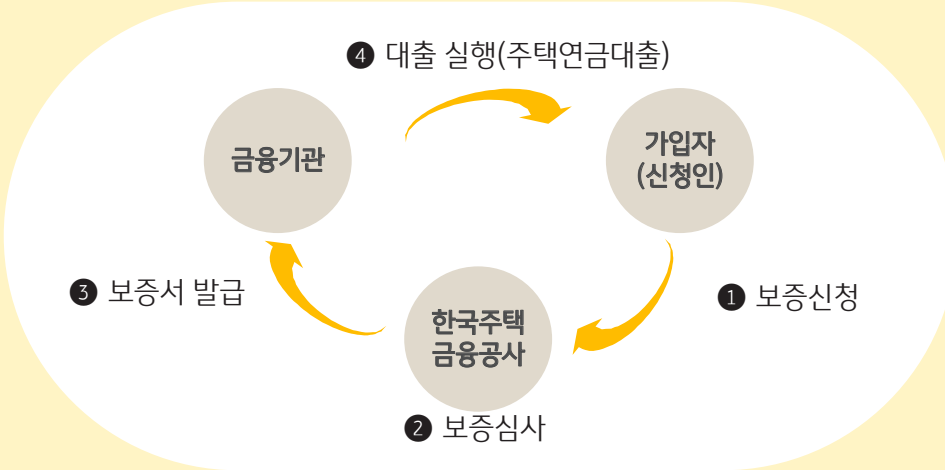
주) 주택 다운사이징 의향이 없는 경우만, 전체 n=456, 2030대 n=115, 40대 n=71, 50대 n=98, 60대 n=125, 70대 n=47

주택연금 개요 및 글로벌 비교



주택연금제도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가입조건	- 가입대상: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합산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조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함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우대)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보증기한	연금지급기한(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취급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한국과 미국의 주택연금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주택연금	공공 주택연금(HECM)	민간주택연금(Proprietary/ Jumbo Reverse Mortgage)
도입취지	노인복지(생활비 지원)	금융상품(목돈 인출)	금융상품(목돈 인출)
가입연령	55세 이상	62세 이상	55~60세 이상
자금용도	노후 생활비마련, 종신연금방식 99%	주택구입 및 담보대출 상환, 수시인출방식 94%	주택구입 및 담보대출 상환
대출한도	6억원	약 115만 달러(2024년 기준)	최대 400만 달러(2024년 기준)
대상주택	공시가격등합산가격12억원이하	주택가격제한없음, 중·저가주택대상	주택가격제한없음, 중·고가주택대상
가입현황 <65+인구대비, %>	14,670 건(2024년 기준) <0.157>	2024년 26,521건(2024년 기준) <0.057>	-
시장점유율	대출잔액의 99.9% (2024년 10월 기준)	취급건수의 93%(2023년 기준)	취급건수의 7% (2023년 기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은행

주택개조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사례

미국 주택담보신용대출 '히락'(HELOC, Home Equity Line of Credit)

도입 배경	-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온 대출상품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세제개혁으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1980년대 후반 크게 성장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택시장 붕괴로 주택가치가 하락하면서 일부 은행이 신용한도를 동결하거나 채무상환을 요구하기도 함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 제정으로 주택 구매, 수리, 리모델링 시에만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특징	주택에 축적된 자산(주택의 현재 가치-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이용해 필요시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대출상품. 현재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면서 신규 대출을 통해 인출 기간 현금을 이용할 수 있음
대출 및 상환기간	일반적으로 10년 내 한도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음. 이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20년 동안 현금 인출이 중지되고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짐
이자율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개인 신용대출과 같은 무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정금리상품에 비해 초기 금리가 낮지만 대출기간 후반에 상환 부담이 증가
규모	대부분의 미국 시중은행에서 제공 중으로, 대출잔액은 2009년 7,100억 달러에서 2022년 초 3,170억 달러로 하락했다 최근 반등하여 2024년 3,960억 달러를 기록

구분	주택담보신용대출(HELOC)	주택담보대출(Home Equity Loan)
공통점	주택을 담보로 한 2차 모기지대출	
대출금 지급방법	필요시한도내인출	목돈인출
이자율	주택담보대출보다낮은금리적용	모기지보다 높지만 신용대출보다낮은금리적용

독일 노인친화적 리모델링 대출(Altersgerecht Umbauen - Kredit)

개요	독일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인 KfW(Credit Institute for Reconstruction)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 친화적인 저금리 주택 개조 자금 대출상품
대출용도	문턱 제거, 넓은 출입문 설치, 욕실 개조, 엘리베이터 설치 등 전반적인 배리어프리 리모델링 목적 자금 대출
대출한도	최대 5만 유로

구분	거치형 원리금 상환 방식	만기일시 상환 방식
특징	처음 5년은 동안 이자만 내고 이후 일정 금액을 매월상환	대출 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 전액상환
대출기간	4~30년	4~10년
이자율	연최소 2.19%에서 최대 3.20%	연 3.26%

가계 자산의 75%에 이르는 부동산을 활용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향은 아직 강하지 않았다



32.3%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었고, 가입 시기는 65~74세로 생각했다

- ☞ 92.2%의 응답자가 '주택연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내용을 알고 있음' 58.8%, '들어봤다' 33.4%)
- ☞ 응답자 중 32.3%가 '향후 주택연금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 ☞ 주택연금 가입 시기는 51.0%가 65~74세를 꼽은 반면 실제 가입자의 63.4%가 60~69세에 가입



주택연금 활용의 주된 이유는 '최소생활비'보다 '적정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인식했다

- ☞ 주택연금을 활용하려는 주된 이유는 '노후에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46.3%로 가장 컸고, '자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42.0%), '노후자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40.7%) 등의 순
- ☞ 주택연금 활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현재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충분'(25.1%)하거나 '보유한 주택이 없어서'(21.8%)라는 상반된 응답이 많았고,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20.0%)도 높은 비중을 차지



노후에 거주용 주택의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는 59.7%로 절반이 넘었다

- ☞ 노후에 살던 집을 줄여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59.7%가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
- ☞ 다운사이징 고려의 주된 이유는 '주거비 절감'(54.9%), '노후자금 확보'(44.3%), '집안일 부담 축소'(43.5%)
- ☞ 다운사이징 비고려의 주된 이유는 '현재 라이프스타일 유지'(35.5%), '현재 거주 지역 유지'(29.2%), '현재 주택규모 유지'(24.1%)로 자금보다는 현재 거주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함



주택 다운사이징 실행 시기는 70대를 선호하고, 마련된 자금은 '생활비로 입출금계좌에 넣겠다'

- ☞ 향후 주택 다운사이징 실행 시기로 48.1%가 '70대'를 꼽음('60대' 25.1%, '80대 이상' 23.2%)
- ☞ 마련된 자금은 76.8%가 '생활비로 입출금계좌에 넣겠다'고 응답. '배우자/(손)자녀 증여'(16.7%), '투자 금융상품 가입'(12.7%), '연금상품 가입'(11.6%), '대출 상환'(10.9%) 등도 1순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포함

2024년 기준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2%에 이르며,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의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할 방안으로 부동산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향이 높지 않았다. 노후자금 마련 방법의 하나로 '주택연금'의 활용의향을 진단해 보았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32.3%였으며, '최소생활비'보다 '적정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한 노후자금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7%가 활용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실행 시기는 70대를 선호했고 마련된 자금은 입출금계좌에 넣고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평균 83.5세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더 많은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퇴를 앞둔 세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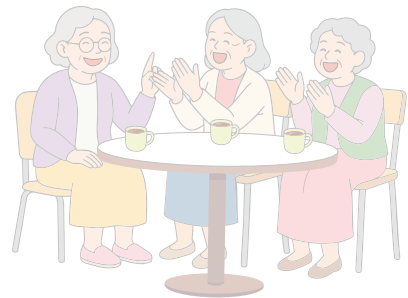
[이슈3] 노후 거주지 인식과 선택

01 | 노후 돌봄 및 거주 관련 인식

02 | 시니어전용주택의 선택 니즈

참고

Key Findings



한국은 올해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년 뒤인 2045년에는 그 비율이 37%까지 높아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기존의 주거 및 돌봄 체계만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고령 인구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우고,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금융권, 비금융권 등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여 시니어전용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시니어전용주택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활용도가 낮으며, 시니어전용주택을 현실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이용할 뿐 자발적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본 장에서는 노후 돌봄 관련 자립 인식과 노후 거주 관련 지원 인식, 노후 거주지 선택 요건, 그리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전용주택의 인지도 및 향후 거주 의향 등을 알아본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거주지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관련 니즈를 파악하여 제도적·사회적·금융적 측면에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01 노후 돌봄 및 거주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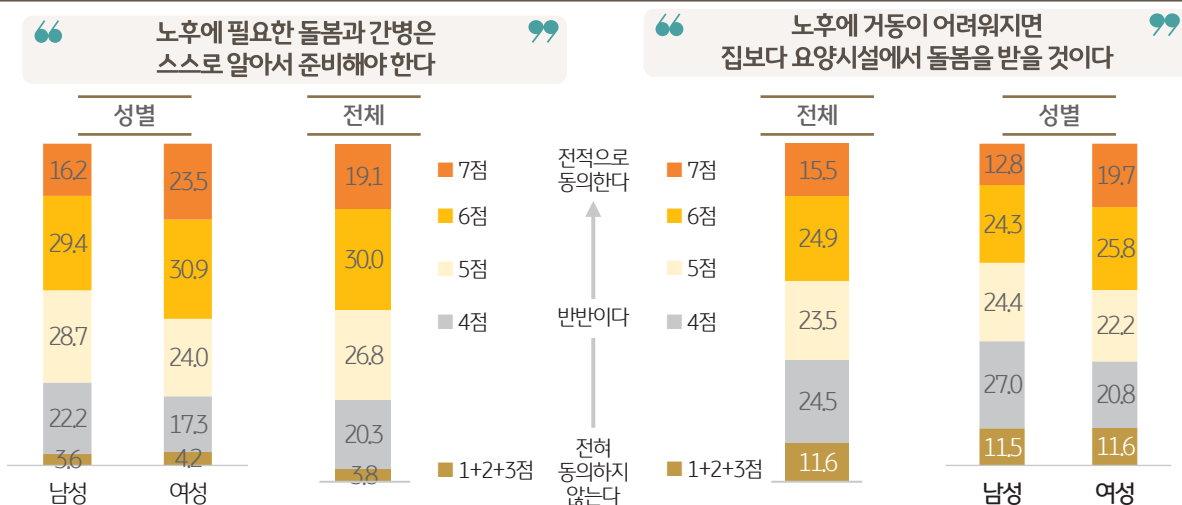
4명 중 3명은 노후 돌봄과 간병은 스스로 준비하고, 거동이 어려워지면 요양시설의 지원을 받고자 했다

먼저 노후의 돌봄 준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노후에 필요한 돌봄과 간병을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지, 거동이 어려워지면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7점 리커트척도로 조사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1점부터, 전적으로 동의하면 7점으로 1점씩 증가하는 방식이다.

‘노후에 필요한 돌봄과 간병은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노후 돌봄 자립도(5~7점)에 대해서는 75.9%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다’(1~3점)는 응답자는 3.8%에 불과했다. 노후 돌봄 자립도가 높은 의견에서는 남성이 74.3%, 여성이 78.4%로 응답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의 자립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자립생활이 어려워질 때 집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돌봄을 받기보다는 요양시설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노후에 거동이 어려워지면 집보다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의견에 대해 63.9%의 응답자가 동의했으며, 여성(67.7%)이 남성(61.5%)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요양시설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1~3점)는 응답자는 11.6%를 차지했고, 남성과 여성의 응답률이 각각 11.5%, 11.6%로 비슷했다.

그림V-1 | 노후의 돌봄 관련 준비 인식

(단위: %)



주) 전체 n=3000, 남성 n=1801, 여성 n=1199



5명 중 3명이 노후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자녀와 동거하며 돌봄 지원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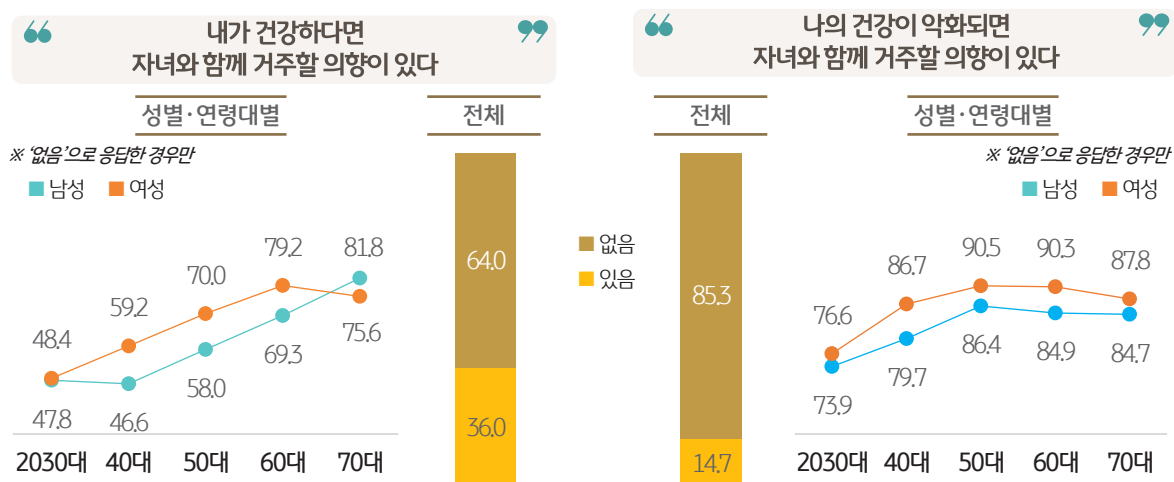
노후 생활 자립도와 관련해 ‘내 건강상태에 따른 자녀의 돌봄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내가 건강하다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64%의 응답자가 ‘자녀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성별·연령대별로도 의견 차이를 나타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허락한다면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해서 보면, 2030대~60대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겠다는 비거주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7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교차되어, 남성은 81.8%가 자녀와 동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데 비해, 여성은 75.6%가 동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며 그 외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드러냈다.

‘나의 건강이 악화되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의 건강할 때보다 높은 85.3%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강할 때(64.0%)보다 21.3%p나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노후 생활 및 돌봄에 대한 높은 자립도와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의지를 나타냈다.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비거주 의향이 확고했다. 특히 상당수 응답자가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지원을 받을 의향이 없다고 밝혀, 스스로 노후 돌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V-2 | 자녀 돌봄 지원 여부에 따른 노후 돌봄 자립도 진단

(단위: %)



주) 전체 n=1948, 남성 2030대 n=90, 남성 40대 n=236, 남성 50대 n=338, 남성 60대 n=384, 남성 70대 n=137, 여성 2030대 n=63, 여성 40대 n=196, 여성 50대 n=253, 여성 60대 n=207, 여성 70대 n=41



노후에 살던 집에서 평균 78세까지, 살던 동네에서는 평균 79세까지 살고 싶어 했다

앞서 노후 생활과 돌봄에 대한 자립 의지가 매우 크고,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어려워지면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후에 언제까지 살던 집과 동네에서 살고 싶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다. 응답자들은 살던 집에서는 평균 78.3세까지, 동네에서는 평균 79.2세까지 살고 싶다고 밝혔다. 살던 집보다 살던 동네에서 평균 1년 정도 더 길게 거주하고 싶어 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를 제외하고 4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늦은 나이까지 살던 집과 동네에서 살고자 하는 니즈가 컸고, 특히 ‘70대’의 경우 이하 연령대보다 살던 집과 동네에서 좀 더 오래 거주하려는 니즈가 커 80대 중반까지 거주하고 싶어 했다. 70대 남성은 살던 집에서 평균 85세까지, 살던 동네에서는 평균 86세까지 거주하고 싶어 했으며, 여성은 살던 집에서 평균 84.5세까지, 살던 동네에서는 평균 86.1세까지 거주하고 싶어 했다. 특히 ‘70대 여성’은 살던 동네에 거주하려는 기간이 살던 집에서 거주하려는 기간이 1.6년이 길며 ‘70대 남성’(1년)에 비해 0.6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살던 동네에 대한 계속 거주 니즈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V-3 | 은퇴 시점의 집과 동네에서 거주하고 싶은 나이

(단위:세)



주) 전체 n=2685, 남성_2030대 n=430, 남성_40대 n=364, 남성_50대 n=426, 남성_60대 n=398, 남성_70대 n=133, 여성_2030대 n=257, 여성_40대 n=235, 여성_50대 n=236, 여성_60대 n=167, 여성_70대 n=39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거주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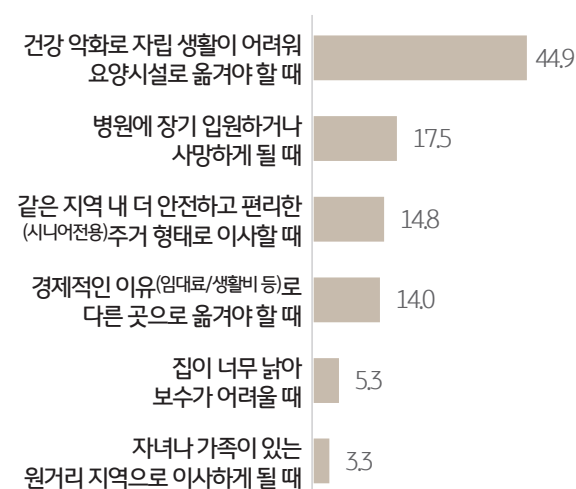
앞서 노후에 거동이 어려우면 63.9%의 응답자가 요양시설로 옮겨 돌봄 지원을 받고, 살던 집에서는 평균 78.3세 까지, 살던 동네에서는 평균 79.2세까지 살고 싶다고 했다.

건강 상태가 좋을 경우 되도록 오랫동안 살던 집과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면 그 시기로는 ‘건강 악화로 자립생활이 어려워져서 요양시설로 옮겨야 할 때’(44.9%)를 가장 많이 꼽았고,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사망하게 될 때’(17.5%)를 차순위로 선택해, 건강 악화라는 비자의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거주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니즈를 건강 상태에 따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여 질문해 보았다. 이때 주택 유형은 ‘살던 집’과 주택 내에서 독립 생활이 가능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노인주택’과 시설의 의료나 돌봄 지원이 필요한 시니어를 위한 ‘돌봄지원형 노인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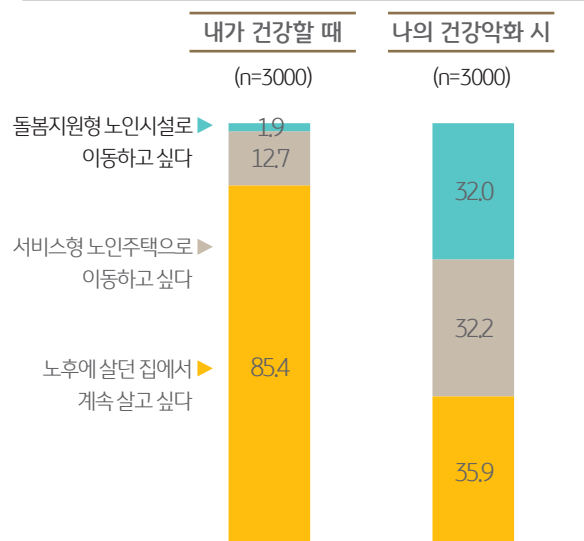
먼저 건강할 때는 ‘살던 집’에서 살겠다는 응답율이 85.4%로 앞서 높은 노후 생활 자립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 되는 결과였다. 다음으로 내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어떤 주택을 선택할지를 질문한 결과,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35.9%)와 ‘서비스형 노인주택으로 이동하고 싶다’(32.2%), ‘돌봄지원형 노인시설로 이동하고 싶다’(32.0%)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건강이 악화되어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적절한 거주지로는 돌봄지원형 노인 주택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했다.

그림V-4| 노후에 살던 집을 떠나는 계기 (단위: %)



주) n=3000

그림V-5| 건강상태에 따른 주택 선택 (단위: %)



02 시니어전용주택의 선택 니즈



시니어전용주택을 선택할 때 주된 고려사항은 '가격 및 비용 부담'과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였다

노후에 시니어전용주택으로 옮기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선택 요건은 '가격 및 비용 부담'(60.4%)과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50.6%) 2가지에 집중됐다. 은퇴 여부를 불문하고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주된 고려사항으로 이 2가지 요건을 꼽았다. 다만 '생활 편의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은퇴 여부에 따라 의견에 차이를 보여, 은퇴후가구가 은퇴전가구보다 중요 선택요건으로 꼽았다.

시니어전용주택으로 이주한다면 가장 큰 우려사항은 '비용 부담이 클 것 같아서'가 68.1%로 압도적으로 높아 선택 요건과 맥을 같이했다. 차순위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신'(39.2%)과 '낮선 환경에 대한 거부감'(38.6%)이 포함됐으며, 이 2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은퇴전가구보다 은퇴후가구가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 외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점'과 '직전 거주지와 멀어서'에 대해서는 은퇴후가구에 비해 은퇴전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V-6 | 시니어전용주택의 선택요건 (1+2+3순위, 단위: %)

	전체 (n=3000)	은퇴여부별	
		은퇴전 (n=2715)	은퇴후 (n=284)
가격 및 비용 부담	60.4	60.6	58.5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50.6	50.6	50.4
독립된 생활 공간 보장	32.4	32.3	33.5
생활 편의 서비스	30.7	29.7	40.5
건강관리 서비스(운동 등)	29.6	29.2	34.2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도	24.5	24.2	28.2
가족과의 거리/접근성	23.0	23.2	20.4
취미·커뮤니티 프로그램	15.0	15.4	11.6
직전 거주지와 거리	9.9	10.1	8.5

그림V-7 | 시니어전용주택선택시 우려사항 (복수응답, 단위: %)

	전체 (n=3000)	은퇴여부별	
		은퇴전 (n=2715)	은퇴후 (n=284)
가격·비용 부담	68.1	67.5	73.6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신	39.2	38.0	51.4
낮선 환경에 대한 거부감	38.6	38.1	43.0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점	28.1	28.2	26.8
건강이 양호해서 불필요	19.5	19.4	20.4
직전 거주지와 거리	13.6	14.1	9.2



시니어전용주택의 예상 거주 기간은 평균 8.6년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짧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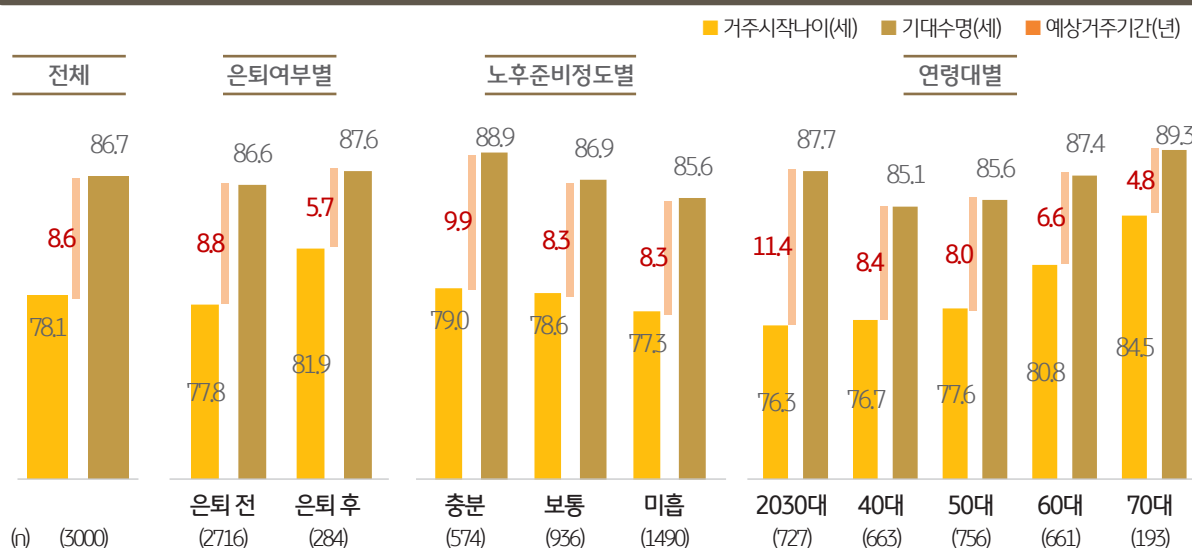
노후에 살던 집을 떠나 시니어전용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평균 8.6년으로 예상했다. 시니어전용주택의 거주기간은 노후에 살던 집을 떠나 시니어전용주택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하는 나이와 기대수명의 차이로 산출했다. 앞서 노후에 살던 집을 떠나는 시기는 건강 악화로 거동이 힘들어 돌봄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평균 78.1세, 예상 기대수명은 평균 86.7세로 조사됐다. ‘노후에 살던 집을 떠나는 시기’와 ‘예상 기대수명’은 응답자들이 스스로 예상한 나이로 판단했다.

시니어전용주택의 예상 거주 기간은 은퇴 여부와 노후준비 정도, 응답자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은퇴 여부별로는 은퇴전가구(평균 8.8년)가 은퇴후가구(평균 5.7년)에 비해 예상 거주 기간이 3.1년 더 길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시니어전용주택의 예상 거주 기간을 더 짧았다. 20·30대의 경우 평균 11.4년 거주할 것으로 예상한 데 비해 40대는 평균 8.4년, 50대는 평균 8년, 60대는 평균 6.6년, 70대는 평균 4.8년으로 20·30대의 절반 이하 기간을 예상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시니어전용주택으로의 이동 시기를 늦추려는 경향이 강했다.

노후준비 정도별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에 비해 예상 거주 기간을 길게 예상했다. 시니어전용주택의 예상 거주 기간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자는 평균 9.9년을 고려했다면, ‘보통이다’와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각각 평균 8.3년으로 1.6년의 차이를 보였다. 노후준비 정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할수록 예상 기대수명이 짧고 시니어전용주택으로의 이동 시기도 빨라 시니어전용주택에서의 거주 기간도 짧았다.

그림V-8 | 시니어전용주거의 예상 거주 기간

(단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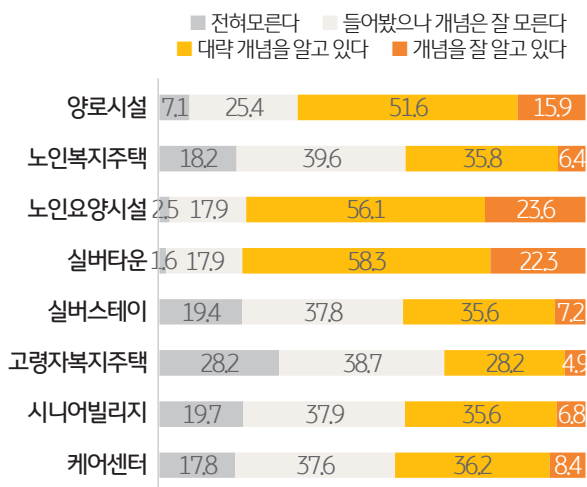
시니어전용주택 중 ‘실버타운’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80%로 가장 높았다

한국 시니어전용주택은 공급 주체, 관리 주체, 입소 조건, 요양보험 적용 요건 등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최근 공급이 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등 8개 유형에 대해 명칭만 제시한 후 인지도를 파악해 보았다.

각 유형에 대한 개념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경우’를 ‘인지하고 있다’로 간주할 경우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시니어전용주택은 ‘실버타운’(80.6%)과 ‘노인요양시설’(79.7%)과 ‘양로시설’(67.5%)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케어센터’(44.6%), ‘실버스테이’(42.8%), ‘시니어빌리지’(42.4%), ‘노인복지주택’(42.2%)이 40% 초반대 응답률을 기록했고, ‘고령자복지주택’(33.1%)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실버타운’은 거의 전 연령대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 ‘고령자복지주택’, ‘시니어빌리지’, ‘케어센터’의 경우 60·7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건강상태의 변화를 느끼고 시니어전용주택 이동 시기가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시니어전용주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양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인지도가 낮아 50대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맞춤형 주거지 선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공급 주체와 관리 주체, 서비스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시니어전용주택에 대해 공급 주체, 입소조건, 서비스의 차이점 등을 반영하여 명칭과 특징을 정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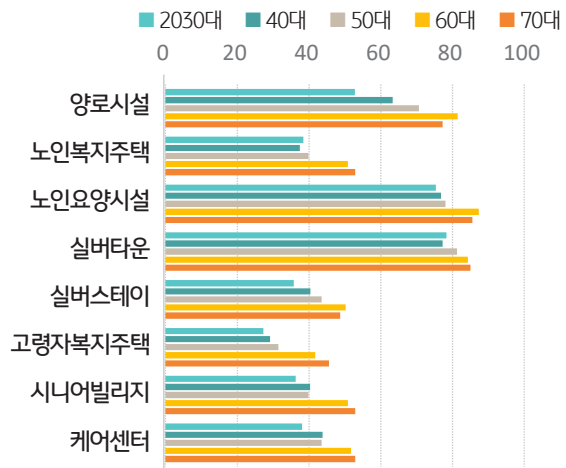
그림V-9] 시니어전용주택 유형별 인지도 (단위:%)



주) 노인주택유형별 각각 n=3000

그림V-10] 연령대별 시니어전용주택 유형별 인지도(단위:%)

※ '개념을 인지하거나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만



주) 2030대 n=727, 40대 n=663, 50대 n=756, 60대 n=661, 70대 n=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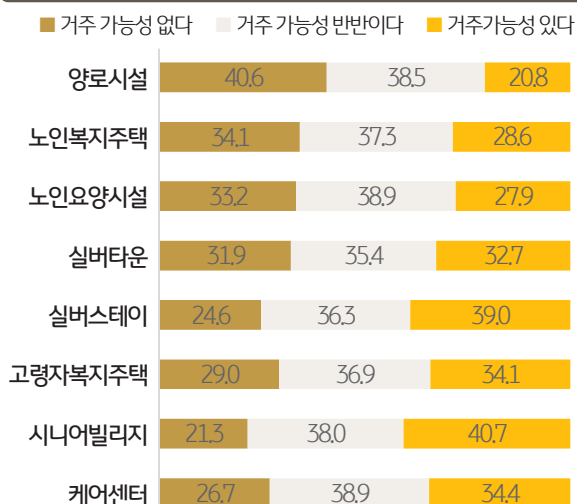
향후 시니어전용주택의 거주 가능성은 40% 이하로 낮게, ‘시니어빌리지’와 ‘실버스테이’는 비교적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시니어전용주택의 수요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용어와 개념을 설명한 후 향후 거주 가능성을 질문해 보았다. 8개의 시니어전용주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40%를 밑도는 거주 가능성을 응답했다. 그중 상대적으로 향후 거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시니어주택유형은 ‘시니어빌리지’(40.7%)와 ‘실버스테이’(39.0%)로 40%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 ‘케어센터’(34.4%)와 ‘고령자복지주택’(34.1%), ‘실버타운’(32.7%)이 30% 초반대, ‘노인복지주택’(28.6%)과 ‘노인요양시설’(27.9%), ‘양로시설’(20.8%)이 20%대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앞서 확인한 ‘실버타운’(80.6%), ‘노인요양시설’(79.7%), ‘양로시설’(67.5%)의 높은 인지도 대비 전반적으로 거주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개 시니어전용주택 모두에서 20·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거주 가능성을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해, 앞서 20·30대의 시니어전용주택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20·30대 젊은 층에게 노후는 아직 먼 일이라는 인식이 있어 노후 주거지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고급형 시니어전용주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부분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나이가 많을수록 시니어전용주택의 거주 가능성을 낮게 예상했으며, 특히 60대와 70대에서는 시니어전용주택 유형별로 거주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해 살던 집에서 되도록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의향을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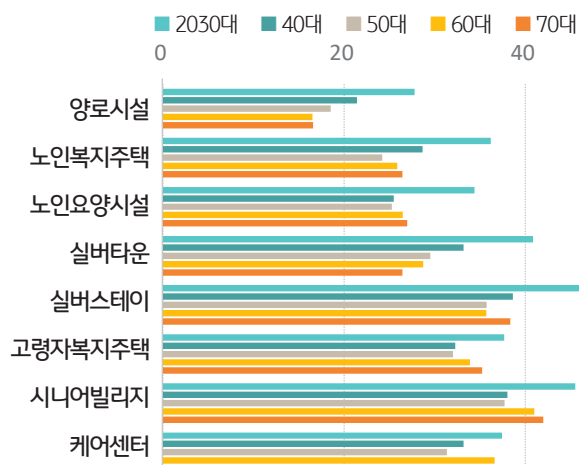
그림V-11 | 시니어전용주택 거주 가능성 (단위: %)



주) 노인주택유형별 각각 n=3000

그림V-12 | 연령대별 시니어전용주택 거주 가능성 (단위: %)

※ '거주 가능성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만



주) 2030대 n=727, 40대 n=663, 50대 n=756, 60대 n=661, 70대 n=193

시니어전용주택의 개요 및 현황

공공 시니어전용주택 개요 및 현황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케어안심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 주택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양로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 주택			
연령	65세 혹은 60세 이상	65세 혹은 60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혹은 60세 이상	65세 혹은 60세 이상	65세 혹은 60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시설현황 (2024년 기준)	시설 수: 4,640개 정원: 23만 6,365세대	시설 수: 1,555개 정원: 1만 4,533세대	시설 수: 166개 정원: 9,567세대	시설 수: 72개 정원: 614세대	시설 수: 43개 정원: 9,231세대		정원: 3,956세대	
소득수준	장기요양·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층	장기요양·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층 1인당 월평균소득 액 이하 소득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지자체별 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정수준 이하 소득 무주택자
건강상태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요양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	요양, 방문의료 등의 도움이나 자립생활이 어려워 돌봄 등이 필요한 상태	독립적인 일상생활 불가능하여 도움 필요시 우선 순위	독립적인 주거생활 가능,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		

금융사의 노인주택·요양서비스 진출 현황

	KB라이프생명 골든라이프케어			하나금융 공익재단	삼성생명 공익재단	신한라이프
브랜드명	평창카운티	빌리지	케어센터	하나 케어센터	노블카운티	데이케어센터
주택유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재가노인복지시설
	도심형 시니어 타운	도심형요양시설 너싱홈	도심형 재가요양	전원휴양형 요양원	도심근교형 실버타운, 너싱홈	도심형 재가요양
설립연도	2023년	2019년	2017년	2008년	2001년	2024년
위치	종로	위례, 서초, 은평, 광교, 강동	강동, 위례, 은평, 광교	남양주	용인	분당
규모	164세대	132명, 80명, 144명, 180명, 144명	49명, 21명, 21명, 21명	99명	555세대	54명
입소대상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시설등급 판정 고령자 및 일상생활 수행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자	60세 이상	장기요양인정등급자 및 등급외자
주요 특징 및 서비스	건강가사·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1,2,4인실 및 치매 전담실 제공	자립 생활 지원, 신체 기능 향상 프로그램 제공	게스트하우스 제공	자립생활이 가능한 일반세대, 도움이 필요한 프리미엄 세대, 요양센터로 구분	인지훈련 교육,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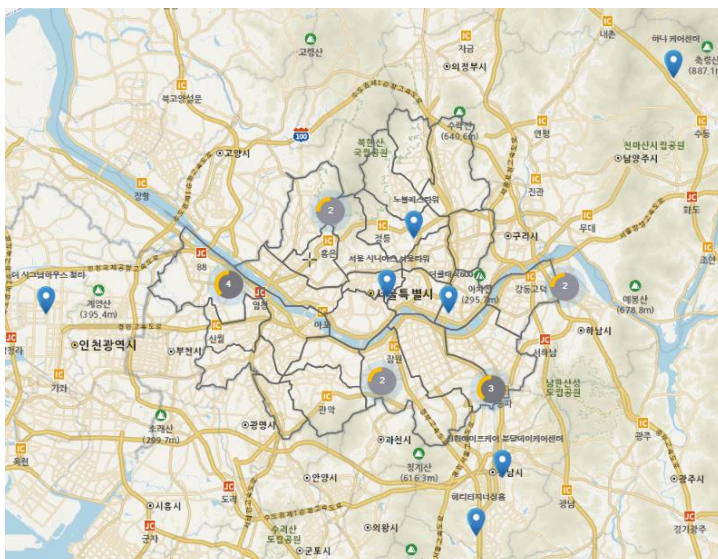
출처: 슬기로운 시니어 주거생활, 삼일PWC경영연구소

민간기업의 노인주택 진출 현황

	건국대 건국AMC	LTS그룹 도타이	롯데건설 롯데호텔앤리조트	백마C&L	서울송도병원 서울 시니어스 타워		
브랜드명	더클래식 500	더시그널하우스	VL라우어	노블레스타워	서울타워	서울시니어스강남타워	시니어스요양원
주택유형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도심형 프라이빗 시니어타운	도심형 실버타운, 너싱홈	도심형 실버타운	도심형 시니어타운	도심형 시니어타운	도심형 시니어타운	도심형 요양원
설립연도	2009년	2017년	2024년	2007년	1998년	2015년	2007년
위치	서울 광진구	서울 강남구	부산	서울 성북구	서울 중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서구
규모	380세대	230세대	526세대	239세대	144세대	95세대	56명
입소대상	독립적인 일상 생활 가능한 60세 이상 (부부 중 한 명 이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독립적인 일상 생활 가능한 60세 이상	독립적인 일상 생활 가능한 60세 이상	독립적인 일상 생활 가능한 60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배우자
주요특징 및 서비스	- 모두 56평형으로 상위 소득층 대상 - 메디컬 서비스, 컬처 및 커뮤니티 서비스, 호텔식 서비스 제공	- 건강등급에 따라 입주 공간 차등(11.8~25.6평) - 강남 도심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제공	- 상위 소득층 타겟으로 롯데호텔앤리조트 최고급 컨시어지 서비스 및 부대시설 제공 - 전용면적 47~180m²	- 피트니스·수영장/마트 등 부대시설 보유 - 여가 프로그램, 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서울송도병원 연계 건강관리 및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 도합 1개 운영 - 강남권역 접근성 우수	서울 송도병원과 연계한 의료간호 서비스

출처: 슬기로운 시니어 주거생활, 삼일PWC경영연구원

금융사 및 민간기업의 노인주택 시설 위치



“건설예정 시설 포함
약 96%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서울	8곳	5곳
경기	3곳	3곳
인천	1곳	-
부산	1곳	-



고령자 돌봄 주거복합단지(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고령자가 살던 곳을 떠나 여생을 보내기 위해 커뮤니티를 이루는 노인주택단지

자립생활
주거 (IL)

일상생활
지원 (AL)

고도
의료요양
케어 (NH)

미국

선 시티(Sun City, Arizona)



개요

- 계획: 1960년 / 조성기간: 1960~1970년대
- 규모: 약 38만 km², 주택: 2만 7,772호, 입주자: 3만 9,931명 (2020년 기준)
- 단지형태: 도심근교/전원분산형
- 운영관리: DEVCO(Del Webb Development)

시설

- 주거시설: 독립주거(IL), 생활지원 주거(AL) (주택가격: 3만 5천~ 35만 달러, 재산세: 300~1300 달러)
- 보건의료시설: 메디컬센터, 재활병원
- 복지·편의시설: 쇼핑센터(19개), 종합레크리에이션센터(레스토랑, 수영장, 공방 등 8개)
- 여가활동시설: 미술관, 골프장(11개), 도서관(2개), 공원 등
- 입주자격: 55세 이상 노인 최소 1인, 19세 이상 가족 동거 가능, 어린아이도 1년 중 3개월 내 단기체류 가능

출처: 초고령사회 대응 K-CCRC(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의 정책추진과 계획모형에 관한 연구

(인터뷰) 선시티에서 은퇴생활을 즐기는 세 자매



Sun City comes of age, CBS News(2015.5.17)

“여기에 정착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어요. 남편이 선시티에 처음 왔을 때 ‘여긴 죽기 위해 오는 곳이라고 생각했어’라고 말하더군요.”

“생각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해당하는 동호회가 있어요. 제가 선택한 동호회는 ‘우쿨렐레 동호회’예요.”

“저는 1968년 부모님이 은퇴 후 선시티에서 정착했던 바로 그 집에 살고 있어요. 20대 때 선시티에 와서 ‘여기가 노인들이 사는 곳이잖아’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요. 그런데 제가 그 노인 중 하나가 되었죠!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장소라는 걸 깨달았어요.”

출처: “Sun City comes of age”, CBS News(May 17, 2015).

호주

몬테피오레 랜드윅(Montefiore Randwick Residential Care)



개요

- 최초 개관: 1889년/ 현 개원 연도 및 확장: 2006년, 2018년
- 규모: 355호
- 단지형태: 도심/집약형
- 운영관리: 몬테피오레 재단(Montefiore JCA)

시설

- 주거시설: 독립주거, 돌봄 주거 [기존: 276호(침실1개), 프리미엄:79호(침실1개는 11호, 침실 2개는 61호, 침실 3개는 7호)]
- 보건의료시설: -
- 복지·편의시설: 미용실,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등
- 여가활동시설: 커뮤니티센터, 영화관, 헬스장, 도서관 및 문화센터, 수영장 등
- 프로그램: 미술치료, 공예/요리/노래교실, 물리치료, 음악치료 등
- 입주자격: 65세 이상 노인

영국

라이필즈 빌리지(Ryfields Village)



개요

- 완공: 2002년
- 규모: 243호
- 단지형태: 도심근교 집약형
- 운영관리: Radis Community Care

시설

- 주거시설: 독립주거 163호, 돌봄주거 80호
- 보건의료시설: -
- 복지·편의시설: 상가, 레스토랑, 카페, 바, 휴게실, 세탁소, 미용실, 온실 등
- 여가활동시설: 공예실, 체육관, IT시설, 도서관, 마을회관, 축구장 등
- 입주자격: 55세 이상 노인

출처: 초고령사회 대응 K-CCRC(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의 정책추진과 계획모형에 관한 연구



(인터뷰) 90세 생일을 앞두고 피아노 등급 시험에 합격

“합격해서 정말 기쁘고 불과몇 주전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동생을 기리며 시험을 치렀어요.”

“오빠가 라이필즈에 거주하면서 이런 취미를 가져서 정말 좋고 일상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출처: Maddy Shaw Roberts(April 24, 2019) “An 89-year-old pianist just passed his Grade 3 exam – proof you’re never too old to learn”, *Warrington Guardian*.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하여 자립생활이 어려울 때가 되어서야 시니어전용주택 이동을 고려했다



4명 중 3명은 스스로 노후 돌봄 준비를, 거동이 어려워지면 요양시설 지원을 받으려 했다

- ☞ ‘노후 돌봄과 간병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75.9%가 동의하며 높은 돌봄 자립 의지를 보임
- ☞ ‘노후에 거동이 어려워지면 집보다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의견에 응답자 63.9%가 동의.
남성(61.5%) 보다는 여성(67.7%)이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더 긍정적으로 생각



노후에 살던 집을 떠나는 시기는 ‘건강 악화로 자립생활이 어려울 때’로 평균 78세를 예상했다

- ☞ 노후에 살던 집에서는 평균 78.3세까지, 살던 동네에서는 평균 79.2세까지 거주 희망(동네가 1년 정도 김)
- ☞ 나이가 많을수록 살던 집에서 늦게까지 살고 싶어 함(‘70대 남성’은 평균 85세, ‘70대 여성’은 평균 84.5세)
- ☞ 살던 집을 떠나는 경우는 ‘건강 악화로 자립생활이 어려워 요양시설로 옮겨야 할 때’(44.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차순위로는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사망하게 될 때’(17.5%)로 불가피한 상황을 선택



시니어전용주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요건은 ‘가격 및 비용 부담’과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였다

- ☞ 시니어전용주택의 주된 선택 요건은 ‘가격 및 비용 부담’(60.4%)과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50.6%)
- ☞ ‘생활 편의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도’는 은퇴후가구가 더 중요하게 꼽음
- ☞ 시니어전용주택에서는 평균 8.6년 정도 거주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은퇴전가구(평균 8.8년)가 은퇴후가구(평균 5.7년)보다 거주 기간을 3.1년 더 길게 내다봄



시니어전용주택의 유형을 선택할 때 인지도와 향후 거주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였다

- ☞ 유형별 개념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응답자는 ‘실버타운’(80.6%)과 ‘노인요양시설’(79.7%)과 ‘양로시설’(67.5%)의 순으로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인지하고 있음
- ☞ 향후 시니어전용주택의 향후 거주 가능성은 ‘시니어빌리지’(40.7%)와 ‘실버스테이’(39.0%)가 높게 평가되고, 인지도가 높은 ‘실버타운’,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은 낮게 평가(순서대로 32.7%, 27.9%, 20.8%)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하여 자립생활이 어려울 때가 되어서야 시니어전용주택 이동을 고려했다. ‘노후에 필요한 돌봄과 간병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75.9%가 동의하며 높은 돌봄 자립 의지를 보였고, 노후에 거동이 어려워지면 시니어전용주택의 한 유형인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의견에는 63.9%가 동의했다. 언젠가는 시니어전용주택으로 옮길 것이라는 의견에는 남성(61.5%)보다 여성(67.6%)이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더 긍정적으로 고려했다. 시니어전용주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요건은 ‘가격·비용 부담’과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였다. 최근 금융권을 포함해 비금융권에서도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시설 등 시니어전용주택 사업에 뛰어들며 점차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주택을 고르는 방법이나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

[이슈4] 한국인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 (AIP, Aging In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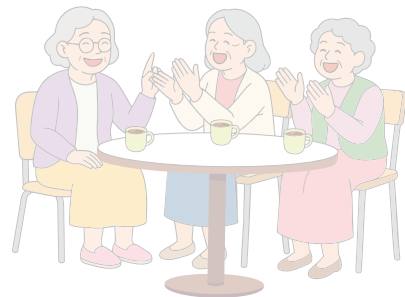
01 | AIP 경향 진단

02 | AIP 지원 체계 조건

03 | AIP 첫걸음, 주택 개조 진단

참고

Key Findings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 Aging In Place)’는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노인요양 시설 위주 돌봄이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재가복지(home and community based care)의 개념이 발전하면서 1980년대 미국 미국퇴직자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의 <고령자 조사·보고서>에서 처음 거론됐다. 이후 1990년대 북유럽 복지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등과 일본에서 ‘지역사회 돌봄’ 정책으로 도입됐고, 한국도 2000년대 들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AIP는 고령자가 원하는 편안한 삶과 존엄을 지켜주는 지원 체계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시설 중심의 고비용 돌봄 대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나아가는 사회복지적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올해 65세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웰빙(Well-being)’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웰다잉(Well-dying)’을 논하는 가운데, 고령자가 좀 더 친숙하고 편안한 생애를 위해 AIP 지원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AIP 경향 진단과 AIP 실현의 필요조건, 저해요인 등을 분석하여 니즈를 파악하고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도적·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친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시니어 주택개조에 대한 현황과 니즈도 알아보았다.

01 AIP 경향 진단



살던 집과 동네에서 나이들고 싶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이전 조사에 비해 14.3%p 늘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 Aging In Place)’는 노후에 살던 집과 동네(마을,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며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친숙한 곳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노인 복지 측면에서 지향점으로 제시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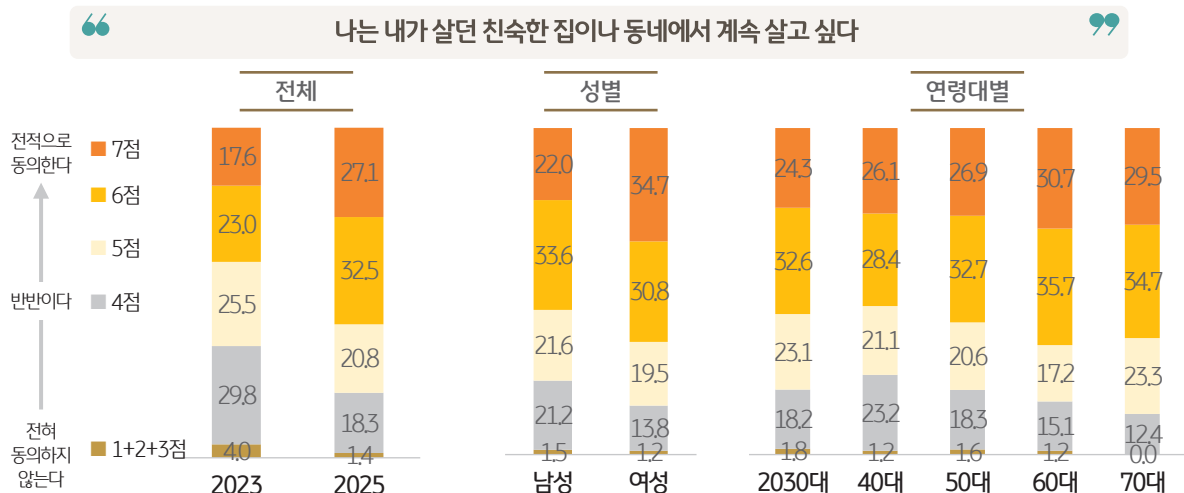
먼저 AIP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내가 살던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올해 이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80.4%로 지난 2023년(66.1%) 대비 14.3%p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한국 사회에서도 AIP에 대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77.2%)보다 ‘여성’(85.0%)이 7.8%p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 기반의 인적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AIP에 대한 동의율은 높았으며, 특히 60대와 7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나이가 많을수록 현재 살던 집과 동네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시니어전용주택으로 이동하겠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림V-1 | Aging In Place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주) 전체 2023 n=3000, 2025 n=3000, 남성 n=1801, 여성 n=1199, 2030대 n=727, 40대 n=663, 50대 n=756, 60대 n=661, 70대 n=193



AIP에서 ‘동네’의 물리적 범위는 ‘도보 30분 이내’ 거리였고, 심리적 범위는 주변 시설 인지와 인적 네트워크 반경 이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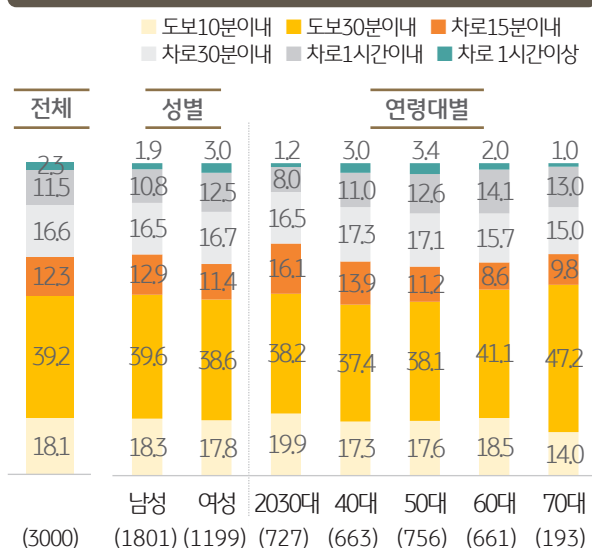
AIP에서는 ‘친숙한 집과 동네(마을,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소개되며 지역사회가 기본 단위를 이룬다. 개인이 갖는 동네의 기준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졌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동네의 물리적 범위와 심리적 범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먼저 ‘동네’의 물리적 범위로 10명 중 4명(39.2%)이 ‘도보 30분 이내’ 거리라고 응답했다. 성별이나 연령대별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동네의 물리적 범위로 ‘도보 30분 이내’ 거리를 꼽았으며, 특히 60대와 70대에서 각각 41.1%, 47.2%로 그 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이는 50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표적집단심층면접(FGD)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네에 대한 물리적 거리로 “전철역 한 두 정거장 정도 거리요”(50대 여성), “자전거 타고 1.5킬로까지 가는데, 거기까지가 우리 동네인가 보다”(70대 남성), “그냥 무조건 저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동네 한 바퀴로 생각해요”(60대 여성), “저는 지인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술 한잔 할 수 있는 데를 걸어갈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요”(70대 남성)라고 도보 거리를 생각했다.

‘동네’의 심리적 범위는 어디에 편의점이 있고 카페가 있는지 등 가게 위치를 알고, 친구가 근처에 살고, 책임감이 나 소속감이 느껴지는 범위를 꼽았다. 표적집단심층면접(FGD) 참석자들은 “골목에 무슨 편의점이 어디에 있고 카페에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50대 남성), “저는 이 아파트에만 20년을 사는데 여기에 있는 선후배가 재미있고 동네에서 있는 친구들이 재밌어요”(70대 남성) 등 익숙한 곳에서 느끼는 안정감, 소속감, 관계 유지 용이성 등을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림Ⅵ-2 | ‘동네’의 물리적 범위

(단위: %)



그림Ⅵ-3 | 한국인이 생각하는 ‘동네’의 의미

★ 전철역한두 정거장, 도보 10~15분내의 익숙한 생활반경

“전철역한두 정거장정도 거리요.”(50대 여성)
 “자전거타고 1.5킬로까지가는 데가우리 동네인가 보다...”(70대 남성)
 “그냥무조건저는 걸어서다닐 수 있는 동네 한바퀴로 생각해요.”(60대 여성)
 “저는 지인과 맛있는 음식과 술 한잔할 수 있는 데를 걸어갈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요.”(70대 남성)

★ 단골 가게, 지역 편의시설,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생활반경

“골목에 무슨 편의점이 어디에 있고 카페에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50대 남성)
 “저는 이 아파트에만 20년을 사는데 여기에 있는 선후배가 재미있고 동네에서 있는 친구들이 재밌고.”(70대 남성)
 “책임감이 느껴지고 소속감이 드는 그런 곳이 동네 같아요.”(60대 여성)

주) 50대 이상 남녀 대상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

02 AIP 지원 체계 조건



노후에 사는 동네의 인프라 조건으로 의료시설, 교통, 공원, 쇼핑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선호했다

도보 30분 이내의 동네에 구비를 원하는 인프라로는 의료시설, 교통, 공원 등 자연환경 조성, 마트 등 쇼핑시설의 4개에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 외 소수 의견으로 운동시설이나 일·자원봉사 가능한 곳, 친척이나 지인이 사는 곳 등이 있었다.

상위 4개 인프라의 우선순위는 은퇴 전후 가구에서 차이를 보였다. 은퇴전가구는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1순위로 꼽았고, ‘교통이 우수한 곳’, ‘공원 등 자연환경 조성이 우수한 곳’, ‘마트 등 쇼핑시설이 잘 갖춰진 곳’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은퇴후가구의 경우 ‘교통이 우수한 곳’을 1순위로 꼽았고, ‘공원 등 자연환경 조성이 우수한 곳’, ‘의료시설’, ‘마트 등 쇼핑시설’의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은퇴전가구는 남성과 여성 모두 1순위는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동일했으나 2순위와 3순위가 서로 역전되어 남성은 여성보다 ‘교통이 우수한 곳’을, 여성은 ‘공원 등 자연환경 조성이 우수한 곳’을 더 중시했다. 한편 은퇴후가구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커, 남성은 ‘교통이 우수한 곳’을 1순위로 꼽은 데 비해 여성이 1순위로 꼽은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은 3순위를 기록했고, ‘공원 등 자연환경 조성’의 경우 남성은 2순위로 꼽았으나 여성은 3순위를 차지해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Ⅵ-4 | 은퇴 전후 가구의 노후 거주지 인프라 조건 Top10

(1+2+3순위)

은퇴전가구				은퇴후가구		
남성	여성	전체		전체	남성	여성
1	1	1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	3	3	1
2	3	2	교통이 우수한 곳	1	1	2
3	2	3	공원 등 자연환경 조성이 우수한 곳	2	2	3
4	4	4	마트 등 쇼핑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	4	4	4
6	5	5	운동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	5	5	5
5	7	6	일·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곳	7	7	9
7	6	7	형제, 친인척, 친구 등이 사는 곳	6	7	6
8	10	8	외식할 만한 식당이 주변에 있는 곳	10	11	9
10	8	9	이웃 주민 커뮤니티가 잘 된 곳	9	10	9
9	9	10	도서관이 주변에 있는 곳	8	9	8

※6위자녀가사는곳 ※7위종교시설근접

주) 은퇴전가구 전체 n=2716, 남성 n=1614, 여성 n=1102, 은퇴후가구 전체 n=284, 남성 n=187, 여성 n=97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나와 가족의 건강 악화’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앞서 한국 사회에서도 AIP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점은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니즈를 실제 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34.8%의 응답자가 AIP를 구현하는데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나를 포함하여 배우자나 가족의 건강 악화로 간병’해야 하는 상황을 꼽았다. 1순위와 응답률 격차를 두고 ‘근거리 외출’(21.4%)과 ‘집안일’(21.1%), ‘집수리’(17.9%), ‘무거운 짐 나르기’(15.7%), ‘가족·친구와의 교류’(15.5%) 등의 순으로 집안에서의 자립 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과 지역사회에서의 인적 네트워크의 붕괴를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2023년과 비교해 1순위(간병에 대한 우려감)는 변함이 없으나 이 외 ‘집수리’와 ‘가족·친구와의 교류’, ‘음식·요리’, ‘장거리 여행’은 2023년과 비교해 중요도가 하락한 반면, ‘근거리 외출’이나 ‘집안일’, ‘운전’, ‘자산관리’ 등은 중요도가 상승했다. 특히 ‘운전’, ‘자산관리’, ‘무거운 짐 나르기’에 대해서는 2023년에 비해 각각 4단계, 2단계, 2단계 상승하며 AIP 구현을 위한 중요 요건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AIP 구현의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60대와 70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의견 차이가 보였다. 특히 ‘70대 남성’의 경우 ‘배우자나 가족의 간병’(41.4%)과 ‘가족·친구와의 교류’(20.0%), ‘음식·요리’(28.3%), ‘운전’(17.9%), ‘장거리 여행’(20.7%)에 대해 우려한다는 응답률이 그 외 60대 남성이나 60대 여성, 70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Ⅴ-5 |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구현하는데 우려사항 Top10

(1+2+3순위, 단위:%)

2023년 순위	2025년 순위	전체	성별·연령대별			
			60대 남성	60대 여성	70대 남성	70대 여성
1	1	본인·배우자·가족 간병 34.8	38.7	37.1	41.4	> 31.3
4	2	근거리 외출(은행, 병원 등) 21.4	18.9	< 23.7	20.0	18.8
2	3	집안일 21.1	21.9	< 28.0	22.1	< 35.4
3	4	집수리 17.9	16.8	< 20.3	13.1	< 25.0
7	5	무거운 짐 나르기 15.7	17.0	18.1	18.6	18.8
5	6	가족·친구와의 교류 15.5	16.8	> 12.5	20.0	> 14.6
6	7	음식·요리 14.2	19.8	19.8	28.3	> 22.9
12	8	운전 13.2	15.4	> 11.2	17.9	> 14.6
11	9	자산관리(투자, 운용 등) 12.6	7.5	7.8	4.8	6.3
9	10	장거리 여행 11.9	17.5	15.5	20.7	> 14.6

주) 전체 2023 n=3000, 2025 n=3000, 남성 60대 n=429, 남성 70대 n=145, 여성 60대 n=232, 여성 70대 n=48

03 AIP 첫걸음, 주택 개조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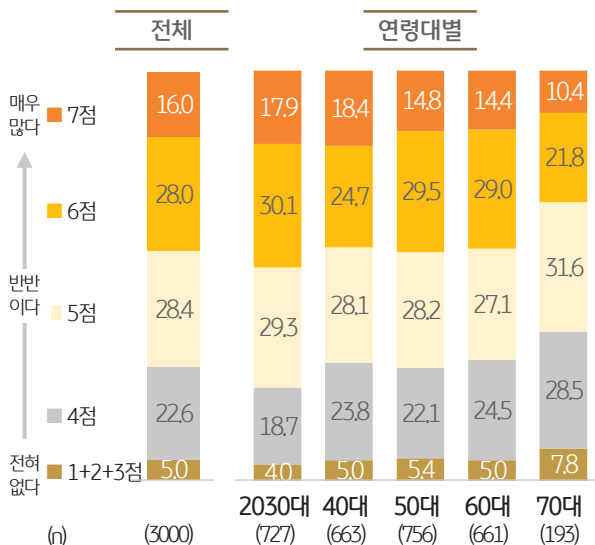
주택 개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2.4%가 동의했고,
70.1%가 개조 의향을 보였다

앞서 한국인의 AIP 구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본인과 가족이 건강하여 집안에서 거동이 가능하고 독립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통계청은 ‘노인가구를 고령화로 인한 건강 특성과 더불어 노후주택 거주비용이 높기 때문에 주택의 개조 역시 필요하다’며 노후에 거주하는 주택 개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AIP를 위해 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장기 거주 여건을 조성하는 주택 개조의 필요성과 개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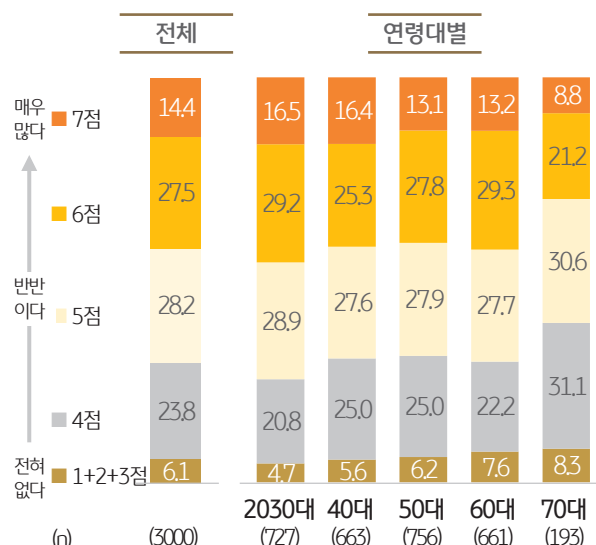
먼저 노후 거주 주택의 개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2.4%가 ‘필요하다(5+6+7점)’고 밝혀 상당수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77.3%가 노후에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데 비해 40대(71.2%), 50대(72.5%), 60대(70.5%), 70대(63.8%)는 갈수록 응답률이 떨어졌다. 고령자의 경우 주택개조가 다른 연령대보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율이 가장 낮은 점은 주택 개조 방법이나 개조에 따른 편익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나타냈다.

주택개조 의향에 대해서도 70.1%가 개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필요성(72.4%)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과 실행의 일치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림Ⅵ-6 | 주택 개조 필요성 인지도 (단위: %)



그림Ⅵ-7 | 주택 개조 시행 의향 (단위: %)





주택 개조가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와 ‘욕실 난간·손잡이 설치’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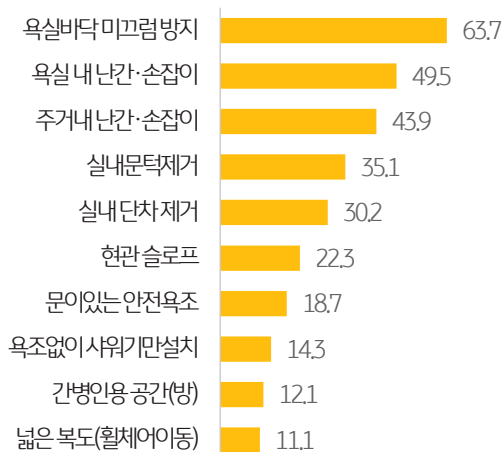
노후에 살던 집에서 오래 살고 싶은 니즈를 반영하여 주택을 개조한다면 어느 부분을 개조할 것인지도 질문해 보았다.

주택개조 시 가장 먼저 개조해야 할 부분은 ‘욕실바닥 미끄럼 방지’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63.7%를 기록했다. 두 번째 역시 욕실 공간으로 ‘욕실 내 난간·손잡이 설치’(49.5%)로 물을 사용하여 미끄럼 사고가 잦은 욕실 개조를 꼽았다. 그 외 ‘주거 공간 내 난간·손잡이 설치’(43.9%), ‘실내 문턱 제거’(35.1%)와 ‘실내 단차 제거’(30.2%), ‘현관 슬로프 설치’(22.3%)에 대해 5명 중 1명 이상이 개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택 개조의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질문한 결과, 56.3%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 응답자는 45.9%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40대(54.2%), 50대(55.9%), 60대(62.9%), 70대(71.1%) 등 실질적으로 주택 개조가 필요한 고연령대에서 오히려 주택 개조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했으며, 이에 고령층에 대한 주택 개조 관련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 외 ‘개조 과정의 복잡성’(29.8%), ‘비용 마련 방법이 없음’(24.2%), ‘개조관련 정보 부족’(12.7%), ‘매매 시 주택 가격 하락’(5.9%), ‘자녀나 가족의 반대’(3.9%) 등이 주택 개조 의향이 없는 이유로 거론됐다. 앞서 AIP를 위한 주택 개조의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72.4%가 공감했으나 주택 개조 과정의 복잡성이나 관련 정보 부족, 비용 부족, 자녀 반대 등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였다.

그림Ⅷ-8 | 희망하는 주택 개조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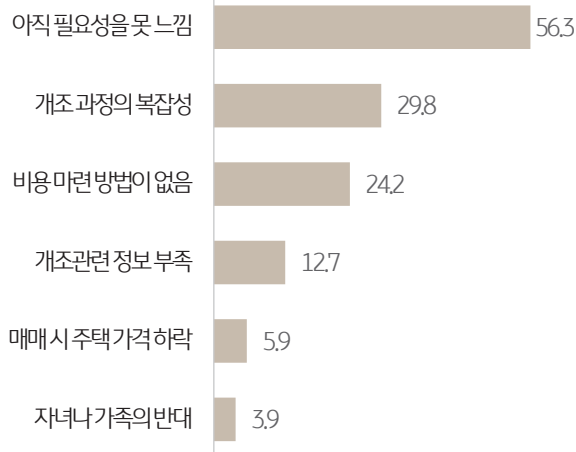
(복수응답, 단위:%)



주) AIP 의향자만 n=2103

그림Ⅷ-9 | 주택 개조 의향이 없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주) AIP 미의향자만 n=897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노후에 내가 살던 친숙한 집과 동네에서 나이 들고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경향을 의미

■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개념

- 시간적 개념: 가능한 오래(현실적 관점) vs 사망 시기까지 가능하도록(최대 지향점)
- 공간적 개념: 집(초기) → 커뮤니티, 동네(최근 확대)
- 관계적 개념: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 → 노인돌봄기관과 서비스로 확장

■ (국내 사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1차, 2차)

구분	기간	시범지역	대상자	주요내용
1차	2023.9~2024.3	15개 시범지역, 200여명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의 집에 거주하는 자	100만원한도 내 품목 시공 ○ 낙상 예방(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등), 화재 예방, 위생, 편의 개선 필요 품목
2차	2024.7~2024.12	226개 지역, 5400여명		

출처: 국토연구원(2024.5.13),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국토정책 Brief

일본

토요시키다이(豊四季台)



출처: UIR도시기구

개요

- 입주연도: 1964년
- 위치: 도쿄에 인접한 치바현의 카시와시 중심부
- 동수 및 세대수: 103동, 4,850세대(최초)
- 리모델링 및 재건축 시기: 2004년~ 진행중
- 2009년 동경대, 카시와시, UR도시기구가 삼자협정을 체결해 <초고령·장수사회를 위한 마을조성사업>을 진행

세부 내용

- 의료/개호 서비스: 다수의 주치의/부주치의가 여러명의 환자를 공동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 '카시와 지역의료 연계센터', 및 방문간호시설, 재택 의료지원 진료소, 약국 등을 운영
- 일자리 제공: 고령자들이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는 '가시와농원 유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건강한 노인들이 다른 고령자의 생활을 돕는 일자리 모델도 조성
- 커뮤니티 지원: 공동화단 조경관리 커뮤니티를 조성해 나무심기 등 행사 운영, 재난 시 비상대처상황 교육, 모록쿠(핀란드식 던지기 게임) 대회를 개최

미국 비컨힐 마을 (Beacon Hill Village)



출처: Beacon Hill Village



개요

- **설립연도** : 2022년 보스턴 비컨힐 지역에서 설립된 이후 미국 전역 280개지역으로 확대
- **미션** : 정보·서비스 및 여가·교육 활동을 주관하며, 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최대한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 **운영 관리** : 마을은 자원봉사자(유급 직원 1~2명 포함)가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권은 무료이거나 최대 1,200 달러 청구

제공 서비스

- **생활지원 서비스** : 교통편 지원, 심부름 서비스, 가정 내 수리, 기술 지원, 검증된 서비스 및 공급업체 소개
- **프로그램** : 웰니스 및 피트니스 운동, 연극 관람,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교모임** : 독서 등 다양한 모임, 칵테일 파티, 명절 축하 행사 등 개최
- **기타 서비스** : 방문 및 전화 안부 확인, 마을 전용 도움 핫라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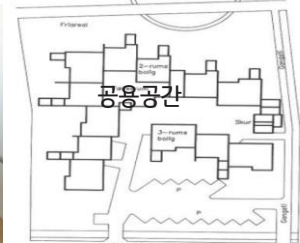
덴마크 크레아티브 시니어보(Det Kreative Seniorbo)



출처: bofællesskab



출처: Kristeligt Dagblad



개요

- **입주연도** : 1992년
- **위치** : 덴마크 오덴세
- **건물 유형** : 단층 연립주택
- **주택 수** : 12개
- **주민 수** : 18명

유형

- **특징** : 넓은 공동생활시설과 소규모 개인주택(개인 뒷베란다나 안뜰 포함)으로 구성되어 커뮤니티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음
- **최소 입주연령 및 조건** : 독립생활 가능한 55세 이상, 주민들이 건축비용의 약 1/4을 부담
- **공용공간** : 주방, 식사공간, 공예활동을 위한 작업공간, 게스트룸(크리스마스, 여름, 부활절에 사용)
- **생활 규칙** : 목요일 오후에는 '홈 애프터눈'으로 주민들이 가능한 참석하여 함께 커피를 마시, 매달 공동실에서 식사를 하며 회의를 개최, 여름에는 버스여행 같은 소풍에 함께 참여하기도 함

출처: Greg Bamford(2005), "Cohousing for older people: housing innovation in the Netherlands and Denmark", University of Queensland.

Key Findings

노후에 이전부터 살던 집과 동네에서 계속 살며 나이들고 싶은 ‘AIP’ 경향은 한국에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AIP 동의율은 올해 80.4%로 2023년보다 14.3%p 증가했다

- ☞ AIP에 대해 응답자의 80.4%가 동의하여 2023년 66.1%에 비해 14.3%p 증가
- ☞ ‘남성’(77.2%)보다 ‘여성’(85.0%)의 동의율이 높았고, 이는 여성이 지역과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결과



AIP의 동네에 대한 물리적 범위는 ‘도보 30분 이내’였다

- ☞ AIP의 동네(마을)은 물리적 기준으로 10명 중 4명(39.2%)이 ‘도보 30분 이내’라고 응답
- ☞ 심리적 기준은 편의시설 위치까지 알고, 친구가 근처에 살고, 책임감이나 소속감이 느껴지는 범위



노후에 사는 동네에는 잘 갖춰진 ‘의료시설’, ‘교통’, ‘공원 등 자연환경’, ‘쇼핑시설’을 선호했다

- ☞ 도보 30분 이내의 동네가 갖춰야 할 중요 4대 인프라는 ‘의료시설’, ‘교통’, ‘공원 등 자연환경’, ‘쇼핑 시설’
- ☞ 은퇴전가구는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은퇴후가구는 ‘교통이 우수한 곳’을 최우선 조건으로 꼽음
(은퇴전가구는 ‘의료시설’ → ‘교통’ → ‘공원 등 자연환경’, 은퇴후가구는 ‘교통’ → ‘공원 등 자연환경’ → ‘의료시설’)



AIP 실현의 최대 우려사항은 ‘본인, 배우자, 가족의 건강 악화’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경우였다

- ☞ AIP 구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본인이나 배우자나 가족의 건강 악화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34.8%가 최대 걱정거리로 꼽았고, 그 외 ‘근거리 외출’(21.4%), ‘집안일’(21.1%)을 걱정
- ☞ 1순위를 제외하고 2023년보다 ‘근거리 외출’, ‘집안일’, ‘운전’, ‘자산관리’ 등에 대한 우려감은 상승



노후 거주 지속을 위한 주택개조 필요성에 대해서는 72.4%, 개조 의향은 70.1%가 동의했다

- ☞ 주택 개조가 가장 필요한 60·70대에서 오히려 ‘주택 개조가 필요 없다’는 응답률이 젊은 층보다 높았음
- ☞ 개조 부분은 ‘욕실바닥 미끄럼 방지’(63.7%), ‘욕실 내 난간·손잡이 설치’(49.5%)로 욕실 개조를 필요
- ☞ 주택 개조 과정의 복잡성이나 관련 정보 부족, 비용 부족, 자녀 반대 등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았음

한국 사회도 노후에 이전부터 살던 친숙한 집과 동네에서 나이 들고 싶어 하는 ‘AIP’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AIP에 대한 의향은 응답자의 80.4%가 동의하며 2023년(66.1%)에 비해 1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P의 기준인 ‘살던 동네’의 물리적 범위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도보 30분 이내’(39.2%)의 거리로, 심리적 기준으로는 편의시설 위치를 알고, 친구가 살고, 책임감이나 소속감이 느껴지는 범위를 꼽았다. ‘동네’가 갖추어야 할 인프라는 의료시설, 교통, 공원 등 자연환경, 쇼핑시설이 핵심이었다. 이는 AIP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건강 악화’와 ‘외출의 어려움’과도 연관성이 높았다.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층 돌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AIP 실현은 이를 해결할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으며, 살던 집과 동네에서 장기 거주 실현을 위해 개인의 건강, 재무 등 노후준비 노력 뿐만 아니라 제도적·사회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록]

01 | 연구 방법

02 | 용어 정의

03 | 참고 자료

● 부록1 : 연구 방법

[정량조사 :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기간

표본추출 방법

표본 구성

25~74세 남·여

기혼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미혼인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자

기혼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 및 가구주

금융 의사결정을 본인이 전담하거나 배우자 등과 함께하는 자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5년 5월 30일 ~ 6월 18일 (20일간)

지역X연령의 유의 할당 추출 (Quota Sampling)

총 3천 명

지역과 가구주연령을 고려한 샘플링 3천 명

지역: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세종	울산	계
25~29세	78	61	14	16	11	8	13	4	205
30대	157	193	42	39	28	20	29	14	522
40대	160	265	57	55	41	28	36	21	663
50대	182	292	65	67	54	32	38	26	756
60대	167	234	57	74	49	26	31	23	661
70~74세	54	61	15	25	16	8	9	5	193
계	798	1,106	250	276	199	122	156	93	3,000

[정성조사 :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조사표본 구성

50세~74세 이하 남·여

은퇴 전 가구와 은퇴 후 가구 조건 포함

금융 의사 결정을 본인 전담 또는 배우자·다른 가족이 함께하는 자

표적집단심층면접 (FGD, Focused Group Discussion)

2025년 7월 2일 ~ 7월 3일 (2일간)

총 4그룹

50세~74세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녀로 가구의 금융 의사 결정자

60대 이상 그룹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를 포함하여 구성

50대 그룹은 세컨드 베이비부머 (1968~1974년생)를 포함하여 구성

은퇴 전 가구는 기혼인 경우 부부 중 1명 이상이 현직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 본인이 현직인 경우가 포함

은퇴 후 가구는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 둘다 은퇴한 경우가, 미혼인 경우 본인이 은퇴한 경우가 포함

	특성				샘플(명)
G1	50대	은퇴 전 가구	세컨드 베이비부머 (1968~1974년생, 만52~58세)	여성	8
G2				남성	8
G3	60대 이상	은퇴 후 가구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 만63~71세)	여성	8
G4				남성	8

● 부록2 : 용어 정의

• 가구유형 분류

1인가구	현재 1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부부가구	현재 부부로 구성된 가구(같이 살고 있는 2인 가구)
부모자녀가구	현재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근로활동 상태에 따른 가구유형 분류(Ⅰ)

현역가구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가 근로활동 상태인 가구
반퇴가구	가구주나 가구주 배우자가 반퇴 시기에 있는 가구(현직가구 제외)
은퇴가구	가구주나 가구주 배우자가 모두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

• 근로활동 상태에 따른 가구유형 분류(Ⅱ)

은퇴전가구	현역가구와 반퇴가구의 합
은퇴후가구	은퇴가구

• 연금 구분

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교직원, 군인)
퇴직연금	DB형, DC형, 개인형 IRP 포함
개인연금	세액공제형·세액비공제형 보험, 펀드, 신탁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월 월급으로 받는 연금

• 세액공제 여부에 따른 개인연금상품 구분

세액공제형 개인연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 예)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개인연금 예) 연금 외 저축성보험, 일반 펀드, 일반신탁, 주택연금

• 가구유형 및 연금 보유에 따른 노후자금 준비 성향 분류

연금종합형	공적연금 + 퇴직연금 + 세액공제형 개인연금 +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을 모두 보유한 3층 구조 연금 보유 가구
절세지향형	공적연금 + 퇴직연금 + 세액공제형 개인연금 보유 가구
관심부족형	공적연금 + 퇴직연금 보유 가구
종합지향형	공적연금 + (세액공제형 또는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 보유
여력부족형	공적연금만 보유

• 노인 거주지 구분

양로시설	생계급여 수급자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입소 시설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생활
노인복지주택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입소 시설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생활
노인요양시설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입소 시설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생활
실버타운	자립생활이 가능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식사·청소·안부 문의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주거시설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시설 이용료가 있음
실버스테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식사·청소·안부 문의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실버타운보다 저렴
고령자복지주택	저소득층 대상 공공 임대주택으로 식사·청소·안부 문의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시설 이용료가 매우 저렴
시니어빌리지	자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이주 가능하며, 단독·연립·아파트 등이 주택 단지를 형성하고 수영장·마트 등 부대시설이나 여가·건강·가사 등 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됨
케어센터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중증 노인 대상으로 전문 간호, 재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거주 방식 구분

다운사이징 (Downsizing)	기존 거주지보다 규모가 작고 저렴한 거주지로 이사
업사이징 (Upsizing)	기존 거주지보다 규모가 크고 비싼 거주지로 이사
에이징 인 플레이스 (AIP, Aging in Place)	이전부터 살던 익숙한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나이 들어간다는 의미. 특정한 거주처로 이주하지 않고, 생활하던 지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년기를 보내는 노후 라이프스타일

● 부록3 : 참고 자료

• 도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3.11),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4.9),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

• 아티클

- 국회입법조사처(2024), <고령친화산업의 실태와 향후 대응 과제>.
- 금융감독원(2025),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 금융감독원(2022),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 김현주, 국회도서관(2024),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고령자 주거모델,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국회도서관 2024-23호.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5.8.29), <OECD Health Statistics 2025 요약표>.
- 삼일PwC경영연구원(2025), <슬기로운 시니어 주거생활,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을 중심으로>.
- 석재은, 김명숙, 허남재, 한국노인복지학회(2017), <일본의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사업소 사례 연구와 시사점>, 노인복지연구 제 72권4호.
- 주택금융연구원 서정훈(2024), <해외 주요국의 역모기지 현황 및 시사점>.
- 최희정, 국제사회보장리뷰(2025), <일본 노인의 지속 거주(Aging in Place) 사례와 과제>.
- 통계청(2024.9.26), <2024 고령자통계>
- 통계청(2024.12.9),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2025.3.25), <2024 한국의 사회지표>.
- 하나금융연구소(2024), <해외 사례로 살펴본 민간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
- 한국은행(2025),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BOK 이슈노트 제 2025-13호.
- LH토지주택연구원(2023), <초고령사회 대응 K-CCRC(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의 정책추진과 계획모형에 관한 연구>.
- R2코리아(2025), <노인주거상품의 현황과 개발전략>.
- Daniela Jopp, Seojung Jung, Amanda Damarin, Sheena Mirpuri, Dario Spini(Nov. 1, 2016), "Who Is Your Successful Aging Role Model?", Volume 72, Issue 2, *The Journals of Gerontology*.
- Greg Bamford(2005), "Cohousing for older people: housing innovation in the Netherlands and Denmark", University of Queensland.
-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2023), "Housing America's Older Adults".
- University of MICHIGAN(Apr.2022), "Older Adults' Preparedness to Age in Place".

- **아티클 (계속)**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Oct. 2023), “Aging-ready homes in the United States-Perception Versus Reality of Aging-Accessibility Needs:2019”.
- World Economic Forum(Jun. 2023), “Living Longer, Better: Understanding Longevity Literacy”, Insight Report.
- Maddy Shaw Roberts(Apr 24, 2019), “An 89-year-old pianist just passed his Grade 3 exam – proof you’re never too old to learn”, *Warrington Guardian*

- **언론자료**

- 《뉴스1》(2025.6.9), “‘기대수명 120세’ 2045년 40%가 노인...“노화역전 기술 독점도 경계””.
- 《스포츠경향》(2024.4.24), “‘생로병사의 비밀’ 부모보다 늙어버린 자식들...2030세대, 가속 노화에 브레이크를 걸어라”.
- 《중앙일보》(2025.3.29), “초고속 초고령화, 고요한 노인의 나라 한국”.
- Bruce Rosenstein(May 2, 2024), “Peter Drucker: A Role Model for Productive Longevity: How to lead a meaningful and positive second half of life”, *Psychology Today*.
- 《CBS News》(May 17, 2015), “Sun City comes of age”.
- Maddy Shaw Roberts(Apr 24, 2019), “An 89-year-old pianist just passed his Grade 3 exam – proof you’re never too old to learn”, *Warrington Guardian*.

- **디지털 자료**

- 기획재정부, “기술 발전의 그늘, 디지털 소외”.
- HSBC UK, “Checklist for planning your retirement”.

발행인 양종희

편집인 정신동

발행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발행일 2025년 9월 28일

연구자 부장/골드라이프센터장 황원경(wk.hwang@kbfk.com)
선임연구위원 김남경(namkyoungkim@kbfk.com)
연구원 강윤정(rkang@kbfk.com)

조사기관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인쇄 신우씨앤피